

大韓帝國 軍事教範集 ②

# 戰術學教程(上)

金元權 編譯

國防軍史研究所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發 刊 辭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0)은 자주독립 국가로서 새로이 태어나기 위한 제반 시책의 일환으로써 군제(軍制)를 개편하여 신식군대(新式軍隊)의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각종 군사교범류를 발간, 활용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거의 사장(死藏)되어 있는 실태이다.

당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교범들을 오늘에 되살려서 관계기관이나 각급 군부대에 널리 보급함으로써 비록 짧은 시기였으나 국가가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던 당시의 군사제도 개혁의 의지와 방향 그리고 군사교리 및 교육훈련체제 등을 이해함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군사분야 관계자들이 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대한제국군사교범집(大韓帝國軍事教範集)』으로 번역, 발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해에 『보병조전(步兵操典)』을 제1집으로 내놓았으며, 이번에는 그 제2집으로 『전술학교정(戰術學教程)』을 역간하게 되었다.

『전술학교정』은 1902년(光武 6년)에 저술된 군사교범으로서 총 3권으로 되어 있으며, 제1권 및 제2권은 필사본(筆寫本)이고 제3권은 인쇄본(印刷本)이다.

본서의 내용은 전쟁의 개념과 목적을 비롯하여 각 병과부대의

전술, 수색 및 경계, 공격과 방어, 특수작전 등이 수록되었다.

그리고 본서의 저술에 인용된 외국 서적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및 육군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던 전술학교정과 기본전술 그리고 전략학 등이다.

따라서 이 교범은 대한제국의 군사교리와 교육훈련체제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믿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군사방침, 전술, 전기 그리고 교육훈련 등의 분야에서 시대적인 비교와 발전과정을 검토하는 데에도 참고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앞으로 우리 국군의 전통 확립과 그 계승을 위하여는 이러한 사료(史料)들을 계속 발굴하고 널리 보급하는 작업이 부단히 이어져야 하겠으며, 당연구소에서는 스스로 이 과업을 담당하여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다.

국군 장병은 물론, 이 분야에 뜻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폭 넓은 참여 그리고 협력을 바라마지 않으며, 끝으로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국립중앙도서관(國立中央圖書館)과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의 관계관 제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1999년 8월 일

國防軍史研究所 所長 朴 淳 贊

# 일러두기



1. 이 책자의 번역 대본은, 『戰術學教程』(大韓帝國, 1906년, 光武 10년)이다.
2. 번역은, 원문의 뜻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직역을 피하고 가능한 현대문으로 쉽게 번역하였으며, 원문의 뜻을 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역한 부분도 있다.
3. 군사술어나 명칭 또는 구령 등은 현행 야전교범인 제식훈련/의식(육군본부, 1994), 각개전투(육군본부, 1993)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4.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장은 한글 위주로 기술하되, 당시의 독특한 관용어는 괄호 안에 원어를 소개하고 또한 난해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용어 등도 괄호 안에 한자(漢字)를 삽입하였다.
5. 역주(譯註)는, 원문 내용중 풀어쓰기가 부적절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어휘 및 관용어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각주(脚註)를 붙였다.
6. 원문에서 발견된 오자와 탈자는 상호 관련성이 있는 다른 교범들과 대조하여 문제 부분을 찾아 해당되는 글자나 표시 등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원문은 뒤에 부록으로 실었다.

7. 원문의 총목록상에는 제2권에 「제6편(行軍과 駐軍 及 搜索과 警戒의 義解)」과 부록(3개 편)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본문에는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7편 이하를 순차적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보기 : 제7편을 제6편으로, 마지막 제13편을 제12편으로). 그리고 부록은 이를 생략하였다.
8. 원문의 목차가 편, 장, 절까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편의상 이를 다시 항(1, 2), 목(가, 나)으로 세분하였다.
9. 원문(총 3권)의 분량이 각각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1편부터 제6편까지를 상권으로, 제7편부터 제12편까지를 하권으로 편집(총 2권)하여 발간하였다.

# 總目次

- ▶ 上 卷 —— 第 1 篇 用 兵  
第 2 篇 戰 術 學  
第 3 篇 各兵科의 戰術  
第 4 篇 諸兵科의 聯合  
第 5 篇 命令 및 報告  
第 6 篇 搜索勤務
- ▶ 下 卷 —— 第 7 篇 警戒勤務  
第 8 篇 行 軍  
第 9 篇 駐 屯  
第 10 篇 戰 鬪  
第 11 篇 局 地 戰  
第 12 篇 特別行動

# 上卷 目次

- 發刊辭
- 일러두기

第1篇 用 兵	1
第1章 總 論	3
第1節 戰爭의 要旨 및 目的	3
第2節 兵 力	5
第3節 用兵學의 要旨	6
第2章 攻擊과 防禦	8
第1節 攻擊戰의 利點	9
第2節 防禦戰의 利點	9
第3節 結 論	10
第3章 軍事術語의 解說	11
第2篇 戰術學	19
第1章 總 論	21
第2章 戰鬪의 種類	22
第1節 總 論	22

第2節	遠戰 및 接戰 .....	22
第3節	密集隊形 및 散開隊形 .....	23
第4節	結 論 .....	26
第3章	各兵科의 性能 .....	27
第1節	步 兵 .....	27
第2節	騎 兵 .....	28
第3節	野戰砲兵 .....	30
第4節	工 兵 .....	31
第3篇	各兵科의 戰術 .....	33
第1章	步兵戰術 .....	35
第1節	步兵部隊의 編制 .....	35
第2節	步兵의 行軍速度 .....	35
第3節	步兵의 密集隊形 .....	36
第4節	散開隊形 .....	39
第5節	戰鬪展開 .....	41
第6節	步兵의 戰鬪 .....	45
第7節	步兵의 步兵에 대한 戰鬪 .....	54
第8節	步兵의 騎兵에 대한 戰鬪 .....	61

第9節	步兵의 砲兵에 대한 戰鬪	64
第10節	步兵의 彈藥補充	65
第2章	騎兵戰術	67
第1節	騎兵部隊의 編制	67
第2節	騎兵의 行軍速度	68
第3節	騎兵의 隊形	69
第4節	戰場에서 騎兵의 行動 및 襲擊	71
第5節	散 擊	77
第6節	追擊 및 集合	77
第7節	騎兵의 騎兵에 대한 戰鬪	78
第8節	騎兵의 步兵에 대한 戰鬪	80
第9節	騎兵의 砲兵에 대한 戰鬪	81
第10節	騎兵의 步兵戰鬪	82
第3章	砲兵戰術	85
第1節	砲兵部隊의 編制	85
第2節	砲兵의 行軍速度	86
第3節	砲手의 位置	86
第4節	砲兵의 隊形	87
第5節	砲兵戰鬪의 通則	90

第6節	砲兵陣地の選定	91
第7節	陣地進入 및 陣地變換	93
第8節	射擊指揮 및 射擊種類	95
第9節	砲兵의 掩護	99
第10節	攻擊과 防禦	101
第11節	砲兵의 彈藥補充	105
第4篇	諸兵科의 聯合	107
第1章	總 論	109
第2章	兵科聯合의 利害	109
第1節	步兵이 騎兵을 연합할  경우	109
第2節	步兵이 砲兵을 연합할  경우	110
第3節	騎兵이 步兵을 연합할  경우	110
第4節	騎兵이 砲兵을 연합할  경우	111
第5節	結 論	111
第3章	大單位部隊	112
第1節	一般의인 編制	112
第2節	枝隊編成을 위한 諸兵科 臨時聯合 要領	112

第 4 章 戰鬪序列 및 軍隊區分 .....	113
第 1 節 戰鬪序列 .....	113
第 2 節 軍隊區分 .....	113
第 5 篇 命令 및 報告 .....	115
第 1 章 命 令 .....	117
第 1 節 通 則 .....	117
第 2 節 命令의 種類 .....	119
第 2 章 報告(通報 포함) .....	122
第 3 章 命令 및 報告의 傳達 .....	124
第 6 篇 搜索勤務 .....	127
第 1 章 總 論 .....	129
第 1 節 行軍時 搜索勤務 .....	130
第 2 節 駐屯時 搜索勤務 .....	133
第 3 節 威力搜索 .....	133
第 4 節 搜索의 間接手段(搜索補助手段) .....	134
第 2 章 斥 候 .....	139

# 第 1 篇



## 用 兵



## 第 1 章

.....

## 總 論

### 第 1 節 戰爭의 要旨 및 目的

#### 1. 要 旨

전쟁은 한 국가가 자국의 국시(國是)를 관철하거나, 또는 이를 확보 보유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에 대하여 사용하는 최후의 위력적인 행위를 말한다.

만약 국가간에 불행하게도 갈등이 생겨 이를 도리(道理)로써 해결하지 못하면 당연히 전쟁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개 사람들 사이의 다툼은 법규(法規)<sup>1)</sup>가 있어 판결을 내려 주지만, 국가간에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쟁이 아니고는 달리 판가름할 방도가 없다.

그러므로 전쟁이 국제사회에서 고유의 위력재판(威力裁判)이라 할 수 있고, 국가의 생존상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은 알가왈부(曰可曰否)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지난날을 돌아보건대 하나같이 요구하지 않는 것이 없고 또한 전쟁의 추세가 자연히 나

---

1) 법규(法規) : 원문에는 법사(法司)로 되어 있으며 본뜻은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를 의미하나, 이를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법규'로 수정하였다.

타나서 국가간의 관계상 도저히 피할 수 없어 빠져들고야마는 불가피한 요건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상의 도덕학자들은 무기를 흉기(凶器)라 하면서 전쟁은 피해야 할 일이라 하여 도리로써 전쟁을 대신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그 실효에 있어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쟁은 인지(人智)를 개발하고 국세(國勢)를 진흥하는 것을 최대로 삼아 국가와 국민이 모두 오래도록 태평하여 군사에 대한 걱정이 없든지 풍속이 문약(文弱)<sup>2)</sup>으로 흘러 지기(志氣)가 연약하고 쇠진하며, 국가의 원기(元氣)가 쇠퇴(衰頹)하여 이를 다시 고치기 어려울 때에도 사용된다.

## 2. 目 的

전쟁은 대외전략의 최종수단이기 때문에 항상 그 목적에 적합하여야만 한다. 통상적으로 전쟁의 목적은 교전국(交戰國)의 갑측(甲側)은 적극적이고 을측(乙側)은 소극적으로 갑측은 요구하고 을측은 거절하는데, 갑측은 을측을 자기의 의지에 따르게 하려 하고 을측은 갑측의 위압적인 승복(承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국이 처음에는 이것 - 자국의 의지 - 을 거부하여도 기어이 따르도록 하거나, 혹은 상대국이 스스로 그 의지를 포기함으로써 화의(和議)가 성립할 때는 바로 전쟁의 정략상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군사상 목적은 하나뿐

2) 문약(文弱) : 원문에는 교약(交弱)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교(交)를 문(文)으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으로 오로지 적군을 압도하고 섬멸하는 방법과 기술인 것이다.

## 第2節 兵 力

전쟁에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은 병력을 사용하는데 있으며, 한 국가의 병력규모를 결정하는 요령은 군제학(軍制學)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피아병력의 강약을 비교하는데 필요한 사항들만 다음에 열거하였다.

- 부대 및 자재의 다소, 정교함과 미숙함 그리고 출병의 난이한 정도(교통 특히 철도와 선박 및 전기통신)
- 국경 및 국내의 지세 및 요새와 군함(軍艦)<sup>3)</sup>의 다과(多寡)
- 자국내에 있는 인마, 병기와 탄약 등이 과연 군의 부족분을 보충하기에 흡족하고 또한 이를 징집하고 정비하는 속도

병력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귀중한 기구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도구이다.

오늘날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국가간의 교제시에 대화를 바탕으로 하여 상대방의 허실을 엿보아 작은 결점이 있으면 장차 타국을 평정하여 합병하거나 노획하려는 욕망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아직 그 욕심을 억제하고 감히 도발하지 못하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대개 열국(列國) 모두가 병력을 준비해 놓고 있어 평정할 기회가 없는 것이 그 이유일 뿐이다.

속담에 이른바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다(유비무환 : 有備無

---

3) 군함(軍艦) : 원문에는 군반(軍盤)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반(盤)을 함(艦)으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患)’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를 일컬음이고 병력은 실로 호국의 보검(寶劍)이 될 것이다.

### 第3節 用兵學의 要旨

용병학이라는 것은 크게는 국군(國軍)을 운용하고, 작게는 군의 부대를 운용하는 법을 익히는 것으로, 이를 전략과 전술의 2개항으로 구분한다.

전략은 그 운용의 계략을 가리키고 전술은 그 실행의 방법을 가리키며, 이 두 가지는 밀접하여 떼놓을 수 없고 상호 관계가 있음으로써 용병의 묘를 얻게 하는 것이다.

무릇 군사를 운용하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며 이미 목적이 설정되면 이를 달성할 방법을 계획하여야 하는데, 적의 상황을 살펴서 행군의 속도를 계산하고 휴양의 편이성 여부를 살피게 하며 모든 군사 행동을 조율하고 공격과 방어에 관한 득실의 고려 등이 적지 않은 것이다.

대개 일정한 법칙과 원리에 준거(準據)하고 또한 제반 종류의 사태변화들을 미리 살펴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며, 혹자(或者)들은 말하기를 용병의 법칙은 실험과 기회의 포착에 있어서 반드시 학문의 연구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실험과 기회의 포착은 진실로 용법의 요건으로서, 평시에 학문의 연구를 하지 않고 하루 아침에 사태가 변화하여 황급하게 무기를 잡고서 요행히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고자 함은 실로 무모하고 위태롭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1870년 독일과 프랑스 간의 전쟁(Franco-Prus-

sian War)에서 프랑스군은 크게 패하고 독일군은 승리를 차지한 것이 어찌 그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제, 고래(古來)의 명장들이 임기응변으로 일을 순식간에 처리한 자취를 관찰해 보면 모두 우연에서 시작하여 특별한 생각이 없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몸에 익힌 많은 학문과 추리 그리고 계획의 축적(蓄積)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무릇 계획적이면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패망하는데 이는 고금(古今)의 전쟁에서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대개 군사를 운용하는 것은 스스로 진리와 원칙을 살피서 이를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것이 연진연승으로 판가름나는 바이므로, 이러한 진리와 원칙은 배워서 얻을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으로 1866년 전쟁(Austro-Prussian War) 전의 프러시아군과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용병은 본래 지혜를 운용하고 재주를 통하여 활기차게 기회를 살리는 수단이므로 규범이나 척도로써 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연유로 전쟁중에 끊이지 않고 생기는 바 기회와 변화 그리고 간난(艱難)은 천태만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기회를 결정하고 변화에 대응함은 신속하고 미묘(微妙)하여야 하며, 어려움을 물리치고 근심 걱정의 경우에는 굳굳이 참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특히 불운이 쌓이고 위급한 재앙에 빠지면 더욱 조용히 처리하여 미혹되지 않는 도량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로 장교된 자로서 이러한 제반 능력을 구비하지 않으면 어찌 수백 수천명의 꽃다운 목숨을 보살피며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용병(用兵)이 중차대하고 또한 어려움이 이와 같으므로 비록 타고난 기품과 능력이 있는 인사도 배운 후에야 겨우 가능할 것인데, 하물며 보통 사람들로써 어찌 100배의 공을 들여 스스로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용병학을 연구하는데는 전사(戰史)와 무관할 수 없으며, 전사는 용병의 진리와 원칙을 증명하는 것으로 진실로 사물의 도리를 잘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읽으면 한 번 읽는 동안에 승패의 원인이 모두 다 명확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떠한 방법에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패한다는 고금에 똑같이 나오는 사실적인 도리를 깨우쳐 알아내는데 충분한 것이다.

## 第 2 章

.....

## 攻擊과 防禦

공전(攻戰 : 공세의 전쟁 - 이하 공격전이라고 기술한다.)은 적국(敵國)에 침입하여 싸우는 것을, 수전(守戰 : 수세의 전쟁 - 이하 방어전이라고 기술한다.)은 자국(自國)에 머물러 있으면서 수행하는 방어전투를 말한다.

공수(攻守)의 형태는 피아가 여러 차례 전투지역을 바꾸고 또 피아가 함께 공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며, 피아가 함께 수세를 취하는데 이르러서는 끝이 없는 것이다.

## 第1節 攻撃戰의 利點

1. 공자(攻者)는 진취의 기세를 보유함으로써 아직 싸우지 않고도 그 사기가 이미 떨치는데, 하물며 적의 1개 부대라도 먼저 격파했을 때는 더더욱 그러한 것이다.

2. 공자는 항시 선제(先制)의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전투의 장소와 시기를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으며, 혹은 적을 기만하고, 혹은 불의에 습격하고, 혹은 아군의 병력을 집결하여 적의 한 지점을 공격하여 이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3. 공자는 적으로부터 식량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자국이 입을 전쟁의 참혹함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4. 공자의 1보 진격은 바로 1보 승리로서 이른바 적극성의 이점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상대인 수자(守者: 이하 방자라고 기술한다.)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겨우 적을 구축하는데 지나지 않는 이른바 소극성의 이점과 비교할 바가 아닌 것이다.

## 第2節 防禦戰의 利點

1. 방자(防者)는 전투지역의 지리를 숙지하고 또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자국 요새에서의 원조를 받는 이점이 있는데, 이때 요새는 아군측이 점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적 병력의 분산을 강요할 수 있다.

2. 방자는 자국민(自國民)의 지원을 받는 이점이 있는데, 국민의 도움으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혹은 시기

에 따라서는 의용병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마치 1870년 전쟁의 하반기에 프랑스가 행한 바와 같은 것이다.

3. 방자는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자유자재로 전투에 사용할 수 있다. 대개 공자는 적지(敵地)에 깊숙히 들어갈수록 병참의 수비와 요새의 감시 등에 사용되는 병력수가 점점 많아지고 또한 병참선도 자연히 연장됨으로써 교통편은 더욱 감소되고 충원병력의 획득도 더욱 곤란하지만, 방자는 이러한 일들이 전혀 없는 것이다.

프러시아의 군사전문가인 반 단 고쿠츠(Van Dan Gocootz)는 공격군을 녹기 쉬운 봄눈(春雪)에 비유하였는데, 이를 과거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1세(Napoleon Bonaparte)는 군사를 절약하는 지혜가 풍부하다고 하였지만 1805년에 몸소 군사 20만명을 거느리고 9월 하순 국경을 출발하여 12월 2일 아우스터리츠(Austerlitz)에서의 전쟁시는 겨우 8만의 군사를 배치할 수 있을 뿐이었고 또한 공격군의 손실이 많았는데, 그는 군사를 증가하는 어려움을 마땅히 알았어야 했다.

### 第3節 結 論

공격과 방어가 모두 일장일단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으나, 공격전의 이점은 방어전에 비하여 많은 것이다.

대체로 공격전은 전쟁에서 심적으로 사기가 왕성하고 선제의 이점을 확보함으로써 방어전에서의 모든 이점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이런 까닭에 병력수가 적군보다 월등하고 군비도 또한 미리

정비하고 분연히 나아가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적을 섬멸하여 성하의 맹<sup>4)</sup>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방어전은 그 병력의 규모가 적과 같지 못하거나 혹은 지세가 공격전에 유리하지 못하여, 특히 방어의 이점이 있는 등의 만부득이한 경우에만 실행하는 것이다.

### 第3章

.....

## 軍事術語의 解説

일반적으로 전쟁을 대별하면 육전(陸戰)과 해전(海戰)의 두 종류가 있으며, 육전은 다시 야전(野戰)과 요새전(要塞戰)으로 구분이 되나 여기에서는 야전에 관한 것만을 기술한다.

다만, 하나의 전쟁 기간중에는 야전만 하고 혹은 요새전만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체로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전지(戰地)라는 것은 교전(交戰)하는 지역을 말한다.

---

4) 성하의 맹 : 성하지맹(城下之盟), 적에게 수도(首都)의 성(城) 아래까지 침공을 당하고 맺는 굴욕적인 강화(講和)의 맹약을 말한다. 예로서, 조선시대인 1636년 12월에 청태종(淸太宗)이 대병을 이끌고 침공하였을 때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의 항전도 보람없이 인조(仁祖)가 삼전도(三田渡 : 지금의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내려가서 항복하는 모욕(侮辱)을 당하였던 사실이 있다.

작전지(作戰地)라는 것은 전지의 일부분으로 양군이 작전할 일정한 지역을 말하는데, 양군 중에 몇 개의 부대가 있을 때 작전지의 숫자도 또한 이에 따르며 그 장소는 큰 산맥과 하천, 해양이나 중립국으로 제한하고 혹은 커다란 요새의 주위로 국한하는 것이다.

전장(戰場)이라는 것은 작전지의 일부로 양군 혹은 그 이하부대가 현재 전투중에 있는 곳을 말하기 때문에 작전지역 내에서는 몇 번의 전투가 벌어질 것인지 미리 그 횟수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작전계획(作戰計劃)이라는 것은 전쟁 및 전투의 수행을 위하여 획정(劃定)하는바, 심사숙고한 끝에 만들어 낸 계획을 말한다.

작전(作戰)이라는 것은 작전계획의 시행을 말하며, 바로 부대의 주둔과 행군 그리고 전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작전목표(作戰目標)라는 것은 아군이 점령하여 확보하거나, 파괴나 제거하여 적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목표를 말하는 것으로, 전략상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적국의 수도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로는 통상 반드시 적의 군대로 삼아야 한다.

책원(策源)－일명 책원지(策源地)라고도 한다.－이라는 것은 작전을 수행할 부대의 배후 근거지로서 그 소요 품목의 지원을 전담하는 지역을 말하며, 또한 상륙전에 있어서는 후방의 해안 및 그곳에 현재 정박하고 있는 군함을 말한다.

책선(策線)<sup>5)</sup>이라는 것은 책원지로부터 작전목표에 왕래할 주요한 경로(經路)로서, 예를 들면 넓은 도로와 항로 그리고 철도 같은 것을 말한다.

병참선(兵站線)이라는 것은 병참기지(軍制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와 야전군 간에 군용 인마와 물품을 추진보급하고 돌아오는 경로(넓은 도로, 항로와 철도 등)를 말한다.

취중(聚中)이라는 것은 모든 부대가 전장에 나아가기 위하여 한군데로 모이는 것을 말한다.

전략요점(戰略要點)이라는 것은 점령하거나 혹은 전쟁의 전체 국면이나 중요한 국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지점을 말하며, 수도나 요새 또는 도로가 집중되는 지점 등이 바로 전략요점이다.

진술요점(戰術要點)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을 감제하는 지점과 견고한 거점 그리고 애로(隘路) 같은 것을 말하며, 또한 방어진지 가운데 특히 다른 지역을 감제하여 더욱 견고하게 함으로써 그 득실이 바로 진지의 득실과 관련된다는 점 때문에 진지의 쇄약(鎖鑰)<sup>6)</sup>이라고도 부른다.

공격(攻擊)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 전투를 도발하는 것을 말한다.

5) 책선(策線) : 원문에는 책원(策源)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원(源)을 선(線)으로 수정하였다.

6) 쇄약(鎖鑰) : 자물쇠와 열쇠라는 의미로 중요한 장소를 말한다.

**방어(防禦)**라는 것은 공격해 오는 적을 막고 버티는 것을 말한다.

**포위(包圍)**라는 것은 정면공격과 서로 연계하여 적의 일측 방이나 양측방으로 짓쳐 나아가 에워싸는 것을 말한다.

**우회(迂回, 迂廻)**라는 것은 적의 정면으로 나아가지 않고 멀리 그 측면이나 배후로 나아가기 위하여 적의 시계 밖에서 수행하는 행동을 말한다.

**전투(戰鬪)**라는 것은 실제로 총포를 가지고 서로 사격하면서 칼날을 마주 닿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본전(本戰：大戰)**이라는 것은 양군의 전체이거나 그 주력 부대간의 전투로서, 이 결과는 전쟁의 전체 국면이나 대세를 판가름하는데 충분한 것을 말한다.

**지전(支戰：小戰)**이라는 것은 양군의 소규모부대간에 수행하는 전투를 말하며, 본전에서의 일부가 수행하는 전투와 본대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부대간의 전투도 또한 이에 속하는 것이다.

**급습(急襲)**이라는 것은 적의 준비가 없는 것을 틈타서 불의에 쳐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결전(決戰)**이라는 것은 전쟁이나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전투를 말한다.

**양전(陽戰)**이라는 것은 공격으로 가장(假裝)하거나 진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적의 상황을 정찰하거나 혹은 적을 도전하도록

록 하는 것—양격(陽擊)이라고 한다.—또는 행동으로써 적을 기만하는 것—양동(陽動)이라고 한다.—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투를 총칭하는 것이다. 또한 적의 측면이나 배후 등을 위협하는 것도 역시 일종의 양전이지만 보병조전에서는 특별히 이를 위협전(威脅戰)이라고 한다.

지구전(持久戰)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 시간의 여유를 얻기 위하여 적의 병력을 저지하는 전투이며, 흔히 일시적인 방어자세에 속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양전(陽戰) 및 지구전을 총칭하여 지속전(持續戰)이라고 하는데, 이 모두가 결전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 달성을 추구하며, 따라서 반드시 전승(戰勝)을 기대하지 않으나 필승의 기회가 오면 이러한 제한은 없어진다.

포전(砲戰：砲兵戰)이라는 것은 피아의 포병이 포격으로써 교전하는 것을 말한다.

예기전(豫期戰)이라는 것은 예상된 전투를 말하며, 보병조전 및 포병조전에 이른바 방어배치한 적의 정면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전투에서는 부대가 일치하고 질서정연한 전투를 전개하는 것이 통상이다.

조우전(遭遇戰)이라는 것은 예기전과 반대로 불의의 전투로서 이와 같은 경우는 바로 행군간에 발생하는 일이 많다.

본공(本攻)이라는 것은 주력을 사용하는 진면목(眞面目)의 공격을 말하며, 조공(助攻)이라는 것은 본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조공격을 말한다.

역습(逆襲)이라는 것은 방어진지에 위치하여 적의 공격시에 아군의 방어병력이 공격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회복공격(回復攻撃)은 아군지역의 전투에서 적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탈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격을 말한다.

전술단위(戰術單位)라는 것은 독립하여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규모의 부대를 말하며, 보병대대와 기병중대 그리고 포병중대가 바로 이에 해당되는 부대로 군의 병력을 계산하는데는 대개 이 부대들의 수효를 가지고 한다.

전투단위(戰鬪單位)라는 것은 한 사람의 육성으로써 지휘할 수 있는 부대를 말하며, 기병중대와 포병중대는 전술단위이면서 이 단위가 된다. 보병대대는 중대가 모두 밀집하여 있을 때가 아니면 대대장의 구령이 미치지 못하며, 전투에서는 바로 소산(疎散)시키는 대형을 취하기 때문에 자연히 중대를 전투단위가 되도록 한다.

대형(隊形)이라는 것은 부대를 전후좌우에 갖춘 형상을 말하며, 같은 종류의 대형을 합쳐서 대차(隊次)라고 하지만 대형과 대차는 같은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종장(縱長：縱深)이라는 것은 대형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두부대에서 후미부대까지의 거리이며,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임무를 가진다.

제대(梯隊)라는 것은 전후에 배치한 대형을 말하며, 이 제대는 일부가 중첩하거나 전부 중첩하고 간혹 거리를 띄워서 중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수세구형(守勢鉤形)이라는 것은 아군의 측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투지역전단(戰鬪地域前端 : FEBA)의 좌우 끝을 갈고리처럼 구부려 뒤로 물리는 대형을 말한다.

공세구형(攻勢鉤形)이라는 것은 적의 측익을 제압하기 위하여 전투지역전단의 좌우 끝을 구부려서 앞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대형을 말한다.

선제(先制)라는 것은 아군이 먼저 적을 제압한다는 뜻으로, 적을 내치고 적은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개진(開進 : 展開)이라는 것은 종장(縱長)의 대형으로부터 좌우로 넓게 대형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收容)이라는 것은 후방부대가 적의 추격을 저지하고 전방부대로 하여금 그 선 안으로 몰려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第 2 篇

---

# 戰 術 學



## 第1章

# 總 論

전술학은 부대의 운용, 즉 행군과 주둔 그리고 전투의 방법과 기술을 익히는 것으로 대체로 모든 사항들이 전투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전술학은 관련되는 바가 광범위하여 그 한계를 능히 알 수가 없을 정도로서, 여기에서 교육하려는 것은 초급장교에게 필수인 전술의 기본과 응용할 기초사항들을 제시하는데 지나지 못하므로 대개 이 이상의 학문적인 것은 실로 장교단 책임자의 소관사항이라고 하겠다.

무릇 용병의 숙달 여부는 오직 국가의 안위와 부대의 존망(存亡)에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특히 전술의 적절성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극대하여 대개 계략-전략-이 적고 그 실행-전술-도 적절하지 못하면 실로 전투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장교된 자는 깊이 명심하여 칼은 번뜩이고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서서 태연히 임무를 수행하고 감정에 휘말리지 아니함으로써 병마(兵馬)가 어려운 순간에 처하여도 의연히 임기응변으로써 과오를 범하지 않는 능력을 양성하고 연마하는 것이 오로지 그 본분이므로, 심사숙고하여 이에 대한 면학에 마음과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第2章

.....

# 戰鬪의 種類

## 第1節 總 論

대체로 전투는 원전(遠戰)과 접전(接戰)의 두 종류로 대별하고, 그 수행은 밀집(密集)과 산개(散開)의 두 가지 대형으로써 실시한다.

이 4자(者：원전, 접전, 밀집 및 산개)는 전투의 본질이며, 전투의 근본취지를 알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이 4자의 이해득실(利害得失)과 상호 관계를 상세히 알아야 된다.

## 第2節 遠戰 및 接戰

원전은 원거리로부터 적을 살상, 좌절시키는데에 근본취지가 있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를 총격전이라 하여 화기의 성질에 따라 부동의 성질이 있으면서 전투의 대부분을 주도하기 때문에, 접전을 준비하고 지원하며 때맞추어 결전의 국면으로 연결하거나 사격으로써 추격을 하는데 적합하다.

접전은 적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서로 총격하는 백병전(白兵戰)으로, 실제로 행동하는 성질을 지녀서 대개 백병(白兵)을 사용할 경우 적을 향한 행동이 밀접하여야 한다. 이미 밀접해 있으면 순

간적으로 피아의 강약을 판단하고 승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을 그 위치로부터 구축 섬멸하는 것이 목적이 되므로, 접전은 특히 결전에 적합한 전법인 것이다.

이제는 사격의 효력이 현저하게 증대하여도 원전으로는 승패를 결정하는 일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흔히 백병접전(白兵接戰)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원전과 접전을 병용해야 지 어느 한가지를 생략하면 안되기 때문인 것이다.

기병과 포병은 이상의 2개 전법 가운데 하나에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개 기병은 웅장한 활동력으로써 접전하는데 적합하고 포병은 맹렬한 화력으로써 원전하는데 적합하며, 원전과 접전의 두 가지가 모두 적합한 것은 오직 보병뿐이다.

### 第3節 密集隊形 및 散開隊形

#### 1. 密集隊形

밀집대형이라는 것은 각개 병사들이 밀접하게 서로 집결한 대형으로, 그 이점은 다음과 같다.

- 밀집대형은 협소한 지형에 많은 병력을 집결할 수 있어 지휘통솔이 편리하기 때문에 기세(氣勢)를 함하고 마음과 뜻을 화합함으로써 정정당당하게 전투를 하고 또한 임기응변이 가능하다.
- 밀집대형은 일거(一擧)<sup>7)</sup>에 많은 병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7) 일거(一擧) : 원문에는 정거(丁擧)로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정(丁)을 일(一)로 수정하였다.

로 접전시에는 적을 압도하는 힘이 가장 강력하고, 방어시에는 저항력이 가장 견고하며 또한 이 대형은 충격력이 매우 크므로 특히 기병에 대한 습격에 적합하다.

밀집대형은 횡대(橫隊)와 종대(縱隊)의 2가지로 대별하고 있으며, 그 이로운 점과 불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 【횡 대】

횡대는 종대보다 더 많은 수의 백병과 화기를 배치할 수 있고 또 종대에 비하면 중심이 짧아서 적의 화력으로부터 피해가 적은 등의 이점이 있다.

그러나 보병과 기병의 경우에는 좌우의 폭이 크기 때문에 행군시 각개 병사들이 서로 막아 좁혀져서 그 행동이 더욱 곤란하고, 장애가 많은 지역과 사상자 때문에 열중(列中)에 공간이 생기는 때와 같은 경우에는 대열이 가장 동요하기 쉽고 또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불편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 등이 불리한 점이다.

### 【종 대】

종대는 특히 단결력이 강하고 장악하기에 편리하며 또 협소한 지역에 많은 병력을 집결하는데 적합하고 정면이 협소하여 행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행군방향을 바꾸고 장애물을 피하며 엄폐물을 이용하고 기타 충격력과 측방에 대한 저항력이 강대한 이점이 있으나, 또한 중심이 길어서 적의 화력에 좋은 목표가 되는 불리한 점이 있다.

**【결 론】**

횡대와 종대의 일반적인 이점과 불리한 점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비교하여 그 응용에 오류가 없을 것이 요구되며, 그 사용방법은 각종 병과의 밀집대형별로 구분하여 대형에 따라 판별하여야 한다.

**2. 散開隊形**

산개대형은 대오(隊伍)를 산개하여 일제히 정돈할 필요가 없는 대형이므로 지휘통솔에는 불편하지만, 또한 그 이점이 많으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각개 병사들이 지형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엄폐하는데 편리하다.
- 각개 병사들은 전면과 인접 병사의 사격을 방해하지 않으면서<sup>8)</sup> 자유자재로 화기를 사용하고 또한 의탁사격(依託射擊)을 할 수 있다.
- 적의 포화에 대한 표적으로서는 작다.
- 행동이 자유스럽고 진퇴가 신속하여 특별히 험난한 지형에 있어서는 그 이점이 가장 크다.

산개대형은, 특히 다음 2가지의 주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 화기의 사용이 가장 편리하다.

---

8) 원문에는 ‘방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 능히 적 화기의 효력을 감쇄(減殺)시킨다.

## 第4節 結 論

이상의 문장내용에서 보면, 산개대형은 오직 원전(遠戰)에 적합하며, 이는 바로 보병이 산개대형으로 전투를 개시하고 또한 많은 경우에 전투를 완결하는 보병의 주요한 전투대형이 되는 까닭이다.

이에 반하여 밀집대형은 접전에 적합하다. 다만 화기가 정교한 오늘날에는 최전선에서 사용할 기회가 드물지만 돌격에는 이 대형의 효력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밀집대형은 이미 기술한 바와같이 부대의 장악이 편리하기 때문에 후방부대는 이 대형을 항시 사용하고 제1선 병력도 또한 전황이 허락하는 한은 이 대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원전을 주로 하는 포병의 전투대형은 일종의 산개대형이고, 접전을 주로 하는 기병의 전투대형은 밀집대형을 많이 사용하며, 보병은 밀집과 산개의 두 가지 전투대형을 아울러 같이 사용한다.

## 第3章

.....

# 各兵科의 性能

## 第1節 步 兵

보병은 독립 병과이며 용도가 광범위하고, 특히 군의 주력으로서, 그 성능은 다음과 같다.

보병은 착검한 소총을 가지고 원전, 접전 그리고 밀집, 산개의 모든 전투에 적합하며 또한 공격과 방어의 두 가지 능력을 겸비하여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행동이 가능하고 또한 전투가 가능하므로 평탄하지 못한 지역과 음폐(陰蔽)된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형이 되고, 또한 어두운 야간이나 농무(濃霧)가 낀 때에는 보병을 제외하고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병과가 거의 없다.

보병은 다른 병과에 비하면 징집과 훈련 그리고 장비 등이 매우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전시의 교육도 역시 용이하고 그 교육이 간혹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도 인내력 면에서 다른 병과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에 비하면 인내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보병의 성능은 대략 이와 같으나 파쇄력(破砕力)과 원거리사격의 효력면에서는 포병만 같지 못하고, 또 속력(수색근무시)과 충격력(습격시)은 기병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유럽 선진국의 군대에서는 종래에 보병을 경중(輕重)의 2종류로 나누었으나, 오늘날에는 지난날과 같은 임무, 훈련과 전투상 뚜렷한 구별이 없고 오직 그 명칭만 존재할 뿐이다. 다만 경보병(輕步兵)은 대체로 대대의 편제로서 독립적인 행동시 많이 사용된다.

## 第2節 騎 兵

기병은 말[馬]의 능력에 기초한 속력과 충격력으로써 그 성능을 삼는다.

기병은 그 속력에 의하여 적에게 불의에 출현하고, 혹은 좋은 기회가 오면 바로 이에 편승하며, 혹은 습격이 불리할 때는 신속히 위험한 지역을 벗어나는 것 등이 그 장점이 되며, 이와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색과 경계 그리고 통신 등 제반 근무에, 특히 추격에 탁월한 효용을 지니고 있다.

기병은 그 충격력으로써 적의 부대를 교란시키고 또 섬멸할 능력을 보유하나, 방어력이 거의 없어 적이 엄습할 때에도 역시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백병공격은 기병의 전법인 것이다.

기병의 소총은 때로는 보병의 성질로 변하여 보병전투에 사용하게 되는데, 대개 말위에서의 사격은 명중이 불확실하고 적의 화기에 대한 목표로서 크고 또 보병처럼 지형을 이용하여 그 몸을 엄폐하는 것이 능숙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말을 탄 초병과 척후 등의 경보 및 산격(散擊, 제3편 제2장 제5절에서 후술한다.) 또는 자체방어시에 한한다.

기병은 지형에 따라 그 사용범위가 가장 크게 제한을 받으며, 밀집습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른 병과에 대한 기병의 공헌도는 적병의 기세가 날카롭거나 위축되었을 때, 아군이 적의 정면이나 측면을 습격할 경우, 혹은 적의 방어가 매우 강력하던가 장차 불의에 출현할 가능성 등에 따라 좌우된다.

왜냐하면, 기병은 스스로 사격을 실시하고 공격 준비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공헌할 능력이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일거에 맹렬히 승패를 결정짓는 하나의 수단이며 또한 가장 의도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이를 요약하면, 기병은 백병공격과 수색, 경계 그리고 통신 등에 특별히 이바지하는 병과로서, 이 가운데 수색은 바로 기병 최대의 중요한 임무이며 기병을 일컬어 군의 이목(耳目)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이를 달성하기 때문이다.

기병은 인마(人馬)에 대한 징집(徵集)과 특별훈련 그리고 전시의 교육 등이 보병에 비하여 상당히 어렵고 또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유럽 선진국의 군에서는 대개 기병을 경중(輕重)의 2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기병은 중무장(갑주를 착용)한 인원과 대마(大馬)로써 편성하여 공격의 최대 위력을 보유하고, 경기병은 신체가 가볍고 작으며 영리한 인원과 몸집이 왜소(矮小)한 준마(駿馬)로써 편성하여 수색, 경계 및 통신 등에만 사용한다.

2~3개 국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이밖에 오히려 중기병(中騎兵)이라고 명명(命名)한 일종의 기병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중 두 가지의 기병 어느 쪽에도 채택되지 않은 인마

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기병과 중기병의 두 가지 임무를 아울러 수행한다.

### 第3節 野戰砲兵

포병의 성능은 화포를 사격하는 것이며, 그 사거리와 파괴력 그리고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보병에 비하여 월등하게 크다.

그러나 포병이 화포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직 직접적인 자체방어를 위하여 백병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격준비를 하는 시기가 아니면 전투력이 없으므로, 포병은 독립전투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를 결정하지도 못하며 단독으로 작전행동을 못하는데 이것이 포병은 항상 타병종의 협력과 엄호를 반드시 의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또한 포병은 지형 때문에 그 능력을 제한받는 것이 기병에 비하여 더욱 심하여 매우 어두운 야간이나 농무시에는 거의 그 효력을 잃어버리지만, 흐르는 물이나 소택지(沼澤地)를 사이에 두고서 맹렬한 화력으로써 적병을 살상, 좌절시키고 다른 병과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실로 이 병과보다 우수한 병과는 없다고 하겠다.

포병은 행군장경이 매우 길기 때문에 다른 병과의 행군을 부진케 하여 험난한 지역에서는 부대의 행동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한다.

포병은 인마의 징집과 훈련(인마의 교련 및 화포의 사용) 그리고 전시의 교육이 매우 곤란하고 또 가장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포병에서는 인마와 화포가 잠시라도 서로 떨어지면 안되므로 보병과 기병의 2개 병과처럼 행동이 용이하지 못하나, 강인하여 능히 오래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병연합의 전투에서는 배치의 기초와 전투의 골간이 되고, 또한 다른 병과의 결전을 용이하도록 해 준다.

야전포병은 야포병(野砲兵)과 산포병(山砲兵)의 2종으로 구분한다. 야포병은 그 포수가 통상 도보로 행동하지만 신속한 행동이 요구될 때는 포차와 탄약차 등에 탑승하고, 산포병은 포수가 말을 부리면서 도보로 경중(輕重)의 화포를 사용하는데 화포를 수레에 연결하거나 그 위에 싣는다.

산포(山砲)는 그 효력이 야포(野砲)처럼 크지 않으나 말발굽이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는 거의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유럽 선진국의 군에서는, 야전포병이 대개 야포병과 기포병(騎砲兵)의 2종으로 나뉘고, 산포병은 2, 3개 국가에서 산악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겨우 편성할 뿐이다.

기포병은 기병 소속으로서 병사들은 모두 승마하고 화포는 야포에 비하면 약간 가벼운 편이다.

## 第4節 工 兵

공병은 기술상의 작업으로 작전능력을 증진보완시켜 주는 병과로서, 야전에서의 공병의 중요한 임무는 보루(堡壘)의 축조와 진지, 촌락 및 삼림 등에 실시하는 방어공사 그리고 군용교량의 건설과 도로의 개설 및 보수, 제반 파괴공사 기타 군사상 필요한 공사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밖에, 공병은 요새 작전과 보루가 설치된 진지전에서는 가장 요긴한 업무를 맡으며, 야전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보병과 같은 방법으로 전투를 수행한다.

공병은 보병과 거의 동일한 무장과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술상의 훈련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훈련은 보병보다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징집도 보병에 비하면 약간 어렵지만 전시교육이 간단하고 쉬워 보병과 큰 차이가 없다.

## 第 3 篇

---

# 各兵科의 戰術



# 第 1 章

.....

## 步兵戰術

### 第 1 節 步兵部隊의 編制

보병중대는 4개 소대로 분할되고, 소대는 잠정적으로 다시 약간의 분대(1개 분대는 13명 내지 16명이다.)로 분할된다.

5개 중대를 가지고 1개 대대를, 2개 또는 3개 대대로써 연대를 그리고 2개 연대로써 여단을 편성한다. 이상의 상세한 편제 내용은 군제학(軍制學)에 기술되어 있다.

밀집한 부대는 측면중대를 제외하면 모두 2열로 편성하는데, 열중(列中) 각개 병사들의 간격은 팔뚝을 가볍게 서로 닿게 함으로써 기준을 삼으며, 앞열과 뒷열과의 거리는 60cm(앞열 병사의 등이나 배낭으로부터)이고, 횡대시에는 보조를 정지할 때에 80cm이다.

열중에서 각개 병사들의 폭은 인접 병사와의 간격을 합하여 대략 1보(75cm)이므로 횡대의 폭은 1열의 인원수에 이것을 곱한 것과 동일하다.

### 第 2 節 步兵의 行軍速度

보병의 행군속도는 속보(速步), 산보(散步), 구보(驅步) 및 슝

보(襲步)의 4종류로 대별한다.

속보는 1보의 길이(한쪽 발의 뒤꿈치로부터 다른 쪽 발의 뒤꿈치까지)가 75cm이고 그 속도는 1분간에 115보(86m)로 모든 행동에 적용한다.

산보는 행군시 사용하는 것으로 속보의 변형된 방법이지만 그 속도는 부대의 대소와 속달 여부에 따라 증감이 있다.

구보는 급속한 행동에 사용하는데, 1보의 길이가 85cm이고 그 속도는 1분간에 약 170보(약 145m)로, 충분히 장구(裝具)를 짊어진 보병이 원거리 행군이나 험난한 지형에서는 이 행군속도를 사용하기는 어렵다.

습보는 속보와 같은 요령으로 실행하는데, 다만 그 속도는 1분간에 약 140보이다. 그러나 원래 돌격에 사용하는 보행방법이기 때문에 적병에 접근할수록 그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구보와 거의 구별이 없을 정도로 변하여 빨리 달리게 된다.

### 第3節 步兵의 密集隊形

#### 1. 中 隊

##### 가. 橫 隊

횡대는 중대 내에서 각 소대가 좌우에 밀집하여 정렬하는 것을 말하며, 오로지 전투간의 행동에 사용하는데 밀집대형 중에 적의 화력을 받게 되는 정도가 가장 적고 또 밀집사격을 시행하는데 가장 편리한 대형이다. 제1도(생략)<sup>9)</sup>

9) 제1도 : 원문에 '第一圖'로 기술하였으나, 실제로 도면은 생략되어 있으므로 '第二圖'부터는 번역에서 삭제하였다.

### 나. 中隊縱隊

중대중대는 중대 내에서 각 소대가 서로 6보의 거리(경우에 따라서는 증감할 수 있다.)를 유지하여 전후로 중첩하는데, 제반행동 및 집합에 사용하는 대형이다.

### 다. 側面縱隊

측면중대는 행군 및 제반 행동에 사용하는 대형으로, 도로의 폭에 따라 4열, 3열, 2열 그리고 1열의 측면 구별이 있고 그 열수(列數)가 작아질수록 중심이 증가하는 불리한 점이 있다.

### 라. 方 陣

방진은 정지 혹은 행진하는 중대중대로부터 만드는데, 기병의 습격에 대처하기 위한 대형이다.

## 2. 大 隊

대대는 지형과 목적에 따라 중대중대를 좌우로 또는 중첩하여 배치하는데 대대의 기본대형은 다음과 같다.

### 가. 重複縱隊

2개의 중대중대는 6보의 거리를 가지고 중첩하고 다른 2개 중대중대도 같은 방법으로 중첩하여 6보의 간격을 가지고 앞의 중대와 옆으로 배치하며, 또한 1개 중대는 좌우 2개 중대의 중앙에서 후방으로 6보 거리의 지점에 중첩하는데 이 대형은 오로지 집합시와 사격권 밖에서의 행동시에 사용한다.

#### 나. 大隊縱隊

각 중대중대는 6보의 거리를 가지고 중첩하는데, 이 대형은 좁고 긴 지역의 집합시에 사용하며 또한 행군대형에서 전투대형으로 이전할 경우에 중심을 단축시킬 필요가 없을 동안의 행동에 사용한다.

#### 다. 縱隊橫隊

각 중대중대는 6보의 간격을 가지고 좌우로 배치하는 것이다. 이 대형은 제반행동(그 중에서도 개활지에서 적의 화력, 특히 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을 할 때, 지형과 전개 종류에 따라 중심으로 정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통상 전투가 종료된 후의 집합에 사용한다.

이상의 모든 기본대형에 있어서는 각 중대의 간격 및 거리를 증감시킬 수 있다.

### 3. 聯隊 및 旅團

연대 및 여단의 밀집대형은 집합하는 대형을 제시할 뿐이며, 실전에 임하여서는 연대나 여단을 단위로 하여 밀집대형으로서 행동하는 경우는 드물다. 만일 이를 시행할 경우에는 연대의 행동은 대대의 행동에 준하고 또한 여단의 행동은 연대의 행동에 준하여 시행한다.

### 가. 聯隊의 集合隊形

각 대대는 통상적으로 중복중대(重複縱隊)로서 제1선, 제2선 혹은 제3선에 배치된다. 3개 대대로 구성된 연대에서 2개 선에 배치할 때는 1개 대대를 다른 2개 대대의 간격 중앙에서 앞이나 뒤에 위치를 잡고, 2개 대대로 구성된 연대에서는 앞뒤로 중첩한다. 어떤 경우에서도 각 대대의 거리나 간격은 통상 20보를 유지하며, 지형과 목적에 따라 대대중대(大隊縱隊)의 대형을 사용할 수 있다.

### 나. 旅團의 密集隊形

여단은 집합대형을 취하는 경우, 각 연대를 좌우로 배치하거나 중첩하는데 연대간의 거리나 간격은 통상 30보이다.

## 第4節 散開隊形

산개대형은 전선에 전개한 중대가 총격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형으로, 최전선에 있는 부대는 대개 각개 병사들을 통상 1보 내지 2보의 간격을 유지하여 1열로 산개시키는 것이다.

나머지 부대들은 전투 초기에 증원부대로서 밀집대형으로 좌우나 중앙의 후방지역을 점령한다.

대체로, 산개는 중대중대와 측면중대 그리고 횡대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먼저 1개 소대를 전개하는 것이 보통이며 2개 소대를 전개하는 경우에는 소대 간격이 약 10보로 유지될 때 지휘가 용이한 이점이 있다.

최전선의 각개 병사들은 직접 전투를 담당하고, 증원부대의 임

무는 전투정면을 확장(연신 증가)하거나 내실(오간을 증가)을 기하기 위하여 최전선을 지원하고 기타 적의 습격 우려가 있는 측면을 엄호(경우에 따라 척후를 파견)하는데 있다. 따라서 증원 부대는 시기를 맞추어 적당한 지역을 점령하여야 한다.

증원부대와 산병선 간의 거리는 전황과 지형에 따라 신축성이 있고 일정한 규칙을 정할 수는 없으며, 그 주된 바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병선을 증원하는데 있으나 평탄한 지역에서는 최초 산병선으로부터 약 120m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통칙(通則)이다.

증원부대의 대형은 지형과 적 화력의 효력에 관계가 있으며, 적이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을 때는 횡대를 사용하고, 지형을 의탁하여 차폐가 가능할 때는 중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중대의 전투정면은 통상 그 폭이 120m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중대가 결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입을 수 있는 손상을 고려하여 병력이 겨우 100명으로 감소되더라도 1m당 하나의 총을 배치하여 총격전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설명한 바는 대대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고, 중대가 산개 대형으로 독립전투를 하는 경우란 파견시로 한정되며, 이 경우에는 중대장이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완전히 자기 책임하에 행동할 것이며 따라서 산개방법도 역시 시기에 맞추어 따라가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초 산개시에는 가능한 한 병력을 절약하고 전투 수행시에는 가능한 한 우세한 병력으로써 확장한 최전선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전선의 병사들은 지형을 넓게 이용하여 엄폐물이 있으면 이에 의탁하고 밀집되지 않도록 산개하여야 하며, 일단 산개하는 순간부터 상급자의 장악하에서 벗어나게 된다.

무릇 전투가 바야흐로 무르익어 가면, 총소리가 울려서 귀가 멍멍해지고 화약연기가 자욱하여 눈이 흐릿해지며 시체가 앞애 가로놓이고 전우가 옆에서 부상할 때는 의기가 자연히 격앙되고 정신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후방에서 증원병이 오고 전방에서 사상자가 후송되어 마치 조수간만(潮水干滿)의 상태처럼 전쟁터가 소란해지며 피아의 부대가 이미 혼잡한 형세에 이르게 된다. 이러할 즈음에는 흔히 부대장의 사상(死傷)으로 지휘자가 없거나 만일 다행히 있어도 전투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일체의 구령이나 신호가 부하들에게 두루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오해의 소지가 많아져서 산개전투의 지휘는 지극히 곤란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병된 자는 강직하고 씩씩하며 용맹하고 과단성 있으며 또 충성심이 있어서 독단으로 정정당당하게 처신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 第5節 戰鬪展開

### 1. 大 隊

대대는 독립적으로 끝까지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이므로 이를 분할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개는 전진이나 퇴각시에 행군방향으로 가장 간편하게 실행하며, 부대가 정지시에는 그 선상에서 전개하는 경우가 드물다.

전투대형으로 이전하는데는 대대장의 명령으로 전개할 중대를 지정하고 동시에 그 위치와 간격도 지시하여 각 중대의 전투 연

계를 바르게 가지도록 진력(盡力)할 것이며, 각 중대는 중대장의 완전한 장악하에서 전투가 가능하도록 이 연계를 유지하고 협동하여 대대가 전투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상 최초의 전개에서는 정면보다 중심을 길게 하며, 점차로 전투력의 증가가 요구되면 필요에 따라 중대를 축차적으로 전선에 투입하고 나머지 병력은 예비대로 하여 대대장이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대의 전투정면은 전선에 전개한 중대의 다소에 따라 그 폭이 달라지며, 다만 5개 중대의 정면이 최대치가 되지만 대대가 타부대와 연계하고 있을 때에도 대대장은 약간의 병력을 후방에 위치시켜 장악하고 또한 타부대와의 관계상 대대 전체를 전선에 전개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다.

고립시는 이 상존하는 예비병력을 가지고 끝까지 독립전투를 지속할 수 있게 제대구분(제1선중대 및 예비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대 전체를 전선에 전개할 수는 없다.

예비대는 증원부대의 후방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 적당한 대형을 취하고 전투할 중대의 행동에 맞추어 따라간다.

대개 보병의 집중화력이나 곡사화력으로 인하여 동시에 전후의 3개 제대에 커다란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거리는 200m 이상이므로 최초의 전개시에서는 마땅히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대대가 한쪽 측면을 타부대나 장애물에 의탁하는 경우에는 반대편에 후방부대를 배치한다(A, B도). 이것은 적의 측면공격에 대응하고 또한 스스로 측면공격을 수행하는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앙의 후방에서처럼 적의 총탄이 미치는 정도가 크지



연대의 제반행동 중, 전진시에는 선두의 대대를 퇴각시에는 후미대대를 행진방향에 전개하는데, 행군대형으로 전개하는 데는 시기에 따라 적절히 대대별로 전개하고 또 집합대형에서는 그 선상에 전개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개를 위한 행동을 개시할 대대를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행동중에 전개할 때는 후방에 대기하게 되는 대대는 정지하여 필요한 거리와 적절한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선에 있는 각 대대간의 간격은 임무와 목적 그리고 지형에 따라 변화하는데, 최초의 전개에서는 명령으로써 정하고, 모든 전개는 가능한 한 적의 총탄과 관측을 차폐하고 지름길을 경유하여 시행한다.

전개할 연대의 행동은 각 대대를 위하여 공동 혹은 각 대대별 행군 목표를 지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중앙과 일익을 기준으로 할 것을 지시하고, 그 실시는 각 대대장의 재량에 맡긴다.

### 3. 旅 團

여단 전개의 기초는 전투정면 안에서 예하연대에 전투임무를 부여하는데 있다. 이 경우에 각 연대는 좌우에 나란히 배치(횡접배치: 橫接配置)하여 마치 독립된 부대처럼 제대구분을 한다.

증원시 간혹 각 연대를 전후에 중첩하는데(중첩배치: 重疊配置), 그러한 때 후방의 연대는 일익 또는 양익 후방의 제대가 되어 적당한 위치를 점령한다.

전개한 여단의 행동을 규정하는 데는 연대에 행군 목표를 지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사항은 연대의 전투전개에 열거한 원칙

에 따라야 한다.

1개 여단(6개 대대)의 전투정면은 최초 전개시에 약 1,100 내지 1,200m로 계산하는데, 대략 이 너비로 전개하면 1m마다 화기수가 4 내지 5정(挺)의 배열이 가능하다.

#### 4. 結 論

본절에서 설명한 바 부대의 전개정면과 제대 간의 거리 등은 오직 표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대개 이것들은 시기와 지형, 공격과 방어, 그리고 독립적인 전투와 타부대와의 연계 전투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전투가 개시되면 가능한 한 전개할 정면을 좁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 전투 수행시에 정면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든가 혹은 조기에 모든 단위부대가 혼란을 면하지 못하므로, 전투를 수행할 때는 아무쪼록 다수의 병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第6節 歩兵의 戰鬥

산개대형에서의 총격전은 최근의 보병전투 가운데 그 효용이 실로 현저하게 크다. 그러나 이로써 승패를 결정짓지 못했을 때는 결국 밀집부대의 백병전으로 총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래에 상세히 기술한다.

## 1. 銃擊戰

### 가. 總 論

보병의 총격전은 소총사격으로, 그 사격효력은 직접 총을 사용하는 외에 사거리와 사격권 안에 있는 목표의 위치 그리고 그 크기, 두께와 밀도 기타 기상상태에 관계된다.

사격효력을 나타내는데는 사격지휘에 있어 사격군기를 지키고 또한 각개 병사들은 침착하여야 하며, 특히 사격술이 숙달되어야 한다.

사격지휘라는 것은 사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하고 가늠자의 기준을 지시하고 사격목표를 부여하며 사격의 완급을 규정하는 것 등을 말하며, 사격지휘에 관여하는 범위는 통상 최전선에 있는 소대장과 중대장으로 제한된다.

기타 상급지휘관이 전투에서 다른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사격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전선에 화력을 증강하거나 혹은 화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적당한 지점에 필요한 병력을 배치하는 등으로 제한된다.

총기의 진가(眞價)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지휘관이 장악하는 정도에 달려 있으므로 사격지휘는 가능한 한 오래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투가 오래 지속될 때는 산병선에 있는 지휘관들 중에서 다수가 줄어들어 이로 인하여 사격지휘가 자주 불완전해지며,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병사들이 다소는 독단으로 사격군기를 유지하는 것이 특히 긴요하다.

사격군기는 총격전 중에 각개 병사들이 명령을 확실히 이행하

고 총기취급요령을 엄수하고 전투 수칙을 따르는 것을 말하며, 그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사수는 적병을 주시하고 또한 항상 지휘관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사격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확실한 사격권 안에 있는 적병을 조준하지 않으면 뚜렷한 효력이 없음을 명심하여, 적의 화력하에서 응사하지 않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
- 총격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휴대한 탄약의 수량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격하여야 하지만, 일단 하나의 목표를 정하여 사격할 때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탄약을 충분히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목표가 사라지던가 기타 사격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속히 실행한다.
- 언제라도 명령 받은 가늠자의 기준은 가장 정확하게 설치하여 조준하고 침착하게 발사하며 신속하게 장전한다.
- 목표 선정은 먼저 전술적 요지에 따라 판정하고 다음에는 목표물이 높거나, 깊거나, 넓거나 또는 조밀한 점 등을 가려서 명중률이 높게 하여야 한다.
- 차폐물을 응용하는 요령은 사격효과를 우선 고려하고 다음에 차폐 효용을 숙고한다.

사격을 대별하면 밀집대형의 사격과 산개대형의 사격 그리고 연발사격이 있다.

### 나. 密集隊形의 射擊

최전선에서 밀집대형은 장애물을 보유하고 또 기병의 습격에 대비하는 때에 사용하며, 이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작은 부대단위로써 편성하는데 대개 그 부대가 크면 적의 화력을 쉽게 초래하고 또 그 시간이 아주 짧아도 많은 피해를 받게 된다.

밀집대형으로 사격을 실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3종류의 대형을 사용한다.

- 횡대로, 흔히 소대마다 사격을 하며 이것은 밀집대형 중에서 사격을 하는 정면이 가장 넓은 이점이 있다.
- 중대중대로, 횡대를 만들 여지와 시간이 없든가 혹은 추격 사격을 하는 등의 경우에 선두 2개 소대로써 실시하는 4열(四列) 사격이다. 다만 당시의 사정에 따라 마지막 소대는 전개한다.
- 방진으로, 각 방향으로 습격해 올 기병을 저지하기 위하여 각면(各面)에서 실시하는 사격이다.

밀집대형의 사격에는 또 다음과 같이 일제사격(一齊射擊)과 각개사격(各個射擊)의 2종류가 있다.

#### 【일제사격】

일제사격은 명령에 따라 모든 병사들이 한결같이 동시에 사격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격은 아군의 사기를 왕성하게 하고 적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

또한 사격지휘는 지휘관이 장악하여 명령을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기를 전후하여서도 사격하지 않도록 임의로 사격을 중

지시키며 정면의 초연(硝煙)이 흩어져 사라지기를 기다려 사격하도록 하고 탄착점에 따라 사거리를 정확히 알도록 하여 탄약을 절약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사격에 이로운 것이지만, 전투가 바야흐로 한창일 때 병사들의 심신이 혼란상태에 이르면 이러한 종류의 사격은 갑자기 변하여 불규칙한 각개사격으로 되는 불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격은 적 기병의 내습에 대비하든가 또는 원거리에서 커다란 목표(포병 혹은 종대)에 대응하는 등의 경우에만 사용한다.

### 【각개사격】

각개사격은 각자 임의대로 사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격에서는 각개 병사들의 정속 유지가 어렵고 초연은 사격할 때마다 증가하며 또 사격 중지가 매우 어렵지만 정밀한 조준과 다량의 탄환을 사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갑자기 적의 습격을 받았을 때나 유리한 목표의 출현시에 사용하면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사격속도는 급속하게 실시하는 두 가지로 그 방법은 다음 항의 내용과 동일하다.

### 다. 散開隊形의 射擊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산개대형은 보병의 주요한 전투대형이다. 따라서 산개대형에서의 사격, 즉 산병선의 사격은 보병의 주요한 전투수단이며 그러한 사격은 대개 각개 병사들 나뉘어 행하고 그 속도는 완사격(緩射擊), 연속사격(連續射擊) 그리고 급

사격(急射擊)의 3가지가 있으며 또한 드물게는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실행하는 일제사격(一齊射擊)이 있다.

### 【완사격】

각개 병사가 인접한 병사와 공동으로 사격하는 것이 통상으로, 바로 갑졸(甲卒)이 사격할 때는 을졸(乙卒)이 그 탄착점을 주목하고 갑졸이 장전한 후에 을졸이 사격하며 그 속도는 분당 약 2, 3발이다.

### 【연속사격】

완사격과 같이 번갈아 사격을 하지 않고, 각개 병사들은 목표를 숙지하고 혹은 적전(敵前)의 초연을 인식하여 임의대로 사격하며 그 속도는 분당 5, 6발이다.

### 【급사격】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격하는 것으로, 그 속도는 분당 약 8 내지 12발이다. 또 급사격은 조준이 정밀하지 않고 탄환을 많이 소모하는 폐해는 있으나 그 효력이 뛰어나며 확인시 탄도의 기선(基線)을 이용하여 확실한 효력을 기대할 수 있는 200 내지 300m의 거리에서 결전시 통상 사용한다. 다만, 300 내지 800m의 거리에서도 단시간에 특별한 이득이 있는 목표(포병과 기병 그리고 보병의 밀집부대와 근방을 행군하는 산병선)가 출현하여 사격효과를 아주 크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역시 사용한다.

급사격을 적용하는 적절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공격에서는 돌격에 앞서 최후의 준비를 할 때
- 방어에서는 적의 돌격을 격퇴할 때

- 기병에 대한 방어시, 또는 일반적으로 전투에서 갑자기 적과 조우할 때(보루의 근방, 촌락내와 삼림내 등의 전투)
- 퇴각하는 적을 향하여 추격사격을 할 때

**【일제사격】**

산병선에서 사용할 때의 이점은 밀집대형과 동일하지만, 전투의 소음이 있는 경우 육성 전달이 밀집대형에서 보다 한층 곤란하다. 그러므로 전투 초기에 소부대에서도 명령이 전체에 전달될 수 있고 또 아직 적의 효과적인 사격을 받기 이전이나 사용할 뿐이다.

**라. 連發射擊**

최전선에서 적보다 월등히 많은 총기의 준비는 바로 보병전술의 첫번째 요건이며, 이러한 취지를 확장하는데는 단발총(單發銃)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요에 맞는 연발(連發)이 가능한 소총을 준비하여야 한다.

연발총(連發銃)은 단발총에 비하면 같은 시간에 몇 배의 탄환을 사격할 수 있으므로 한 개의 총을 가지고 수개(數個)의 단발총 사용효과를 가져와서 1명이 몇 명의 몫을 겸하여 해낼 수 있고 사격속도가 이와 같을 때는 그 탄환이 실로 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는 형상과 같게 된다.

그러므로 공자(攻者)가 장차 돌격으로 국면을 끝내려 할 때에 이를 사용하면 쉽게 사격의 치열함을 다하게 되며, 방자(防者)도 역시 이러한 속도를 이용하여 적병의 돌진을 저지하게 되므로, 연발총이 공격과 방어의 2가지 전투에 기여하는 능력은 이처럼 큰 것이다.

연이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발총이 방어전투에 기여하는 능력은 공격전투에 비하여 두 배로 커지는데, 그 이유는 공격전투에서는 승리를 위주로 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총기의 사격은 진출을 저해하는 적병을 물리침으로써 아군의 진로를 개척하는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방어전투에서는 각개 병사들의 사기가 대개는 위축되어 전투간에 하나같이 화력을 바탕으로 하여 적병을 저지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는 방어전투에서 연발총의 능력을 최대한 빛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연발총은 기병을 방어할 때, 갑자기 직접 적과 조우할 때 그리고 추격시 등에 사용하면 커다란 이점이 있다.

연발총의 사격에도 연발급사격(連發急射擊)과 연발일제사격(連發一齊射擊)의 구별이 있다.

연발급사격은 단발총의 급사격 조목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경우에 실행하며, 대개 이미 완전히 장전한 탄환을 병사들이 각자 따로따로 연속으로 급사(急射)하는 것을 뜻하고, 연발 속도는 30초 동안에 대강 10발에 이른다.

연발일제사격은 명령에 따라 연발로 사격을 하는 것으로 그 속도는 1분 동안에 대강 8발이며 중거리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 통상이다. 다만, 순간적으로 출현하는 유익한 표적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원거리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단발총의 일제사격과 다를 바가 없다.

## 2. 步兵의 白兵戰〔着劍突擊〕

바야흐로 화기가 나날이 더욱 정교함을 다하는 까닭에 지형 및

야음(夜陰)의 도움이 있거나 적병이 아군의 화력으로 인하여 어지러워지든지 비교적 호기를 타지 못하면, 돌격의 효과를 거두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아군이 만일 적과의 거리가 100m 되는 지점으로부터 이러한 돌격으로 전환하면, 돌진하는 시간이 적어도 30초를 요하며 이때는 적의 화력이 아주 치열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적이 만일 연발총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발급사격을 하여 반드시 아군의 전진을 거부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아군 병력이 돌진하는 동안에 총마다 10발씩 쏟아지는 적탄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 능히 적진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 돌격은 결국 실행이 어려워 못할 수 있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공자(攻者)의 산병선은 그 화력으로써 적병을 좌절시키고 점진(漸進)하여 적과의 거리를 200 내지 300m의 지점에 도달하고 증원병이 계속 증강해 와서 공격지점에 대하여 치열하게 화력을 퍼붓지만 아직 적병을 구축할 수 없을 때는 다시 약진하여 화력을 다함으로써 적을 압도하고 바로 이 기회를 타서 돌격으로 전환할 때는 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는 않다.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부대 전체는 일치단결하여 돌격을 감행하되, 상급자는 술선수범하고 후방제대는 전방으로 추진하며 나팔수는 돌격나팔을 신속하게 불고 습보(襲步)는 더욱 그 속도를 가하여 돌진의 명령에 각자는 함성을 지르면서 질주하여 경쟁적으로 돌격함으로써 일거에 승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승부는 흔히 사기의 성쇠(盛衰)에 따라 판가름나는 것이다.

무릇 돌격은 최고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기본이

지만, 산병선상에서 맨먼저 어떤 시기나 장소에 적의 저항력이 미약함을 관찰하여 신속하게 모든 이점을 장악할 수 있으므로 돌격은 산병선에서도 감행한다.(단, 최고지휘관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할 때는 밀집부대는 산병선의 바로 뒤를 따라가면서 지원하고 또 역습을 경계할 임무를 담당한다.

## 第7節 步兵의 步兵에 대한 戰鬪

보병이 보병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의 승리는 정신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기타는 사격훈련, 사격군기 그리고 사격지휘를 기초로 한다. 지휘관의 책임은 사격을 위하여 가능한 한 다수의 총기를 사용하거나 확장된 전선의 화력을 주요한 지점에 맹렬히 집중하는데 있다. 이러한 전투는 공격과 방어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 1. 攻 擊

공격은 대체로 조우전(遭遇戰)이나 방어배치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격과 구별을 한다.

조우전에 있어서 선두부대는 후속부대를 위하여 그 전개시간과 장소를 확실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하급지휘관은 일반적인 전개의 진척에 관련해서 그 연계유지를 기준으로 삼아 독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전개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부대가 중도에서 머무르는 선상에서 전개하는 것 등은 대개 시간만 소비할 뿐이다.

방어배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정면공격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적병이 출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공자는 임의로 공격의 방향과 방법의 선정이 가능하여 그 지휘가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 전투로 이전하기 전에 전개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질서정연한 전투지휘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인 것이다.

앞에 제시한 두 가지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공자는 지형 및 적의 화력하에서도 가능한 한 밀집대형을 유지하면서 전진하고, 최초부터 산개하는 때에는 먼저 전투개시에 소요되는 병력만 최전선에 준비하며 전투실행시에는 과감하게 증원함으로써 전선의 총기 수량이 적의 것보다 우세할 수 있고, 이미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은 적에게 많은 손실을 줌으로써 아군의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유일한 수단이 되며, 대개 지형 및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사격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여 적에 접근하여야 한다.

공격의 성과는 우세한 사격을 가할 수 있는 포위행동을 함으로써 가장 용이하게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모든 방향으로 접근하든지 혹은 전투제대(戰鬪梯隊)를 투입하여 시행하려면 최초 전개시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산병선의 증가는 일찌감치 모든 단위부대의 혼란을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연신(延伸)하는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지만 형세가 불가피하면 오간(伍間)을 증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대체로 병력을 보충받았을 때는 산병선은 그 기세가 올라가서 분발하여 전진하고 점점 적에 접근하여서는 대개 체대별로 약진

을 하며, 다만 당시의 형세로 행동이 가능하다면 그대로 일거에 적진으로 뺨박(逼迫)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증원부대 및 예비대 가운데 평탄한 개활지에 위치한 병력은 전투 초기에는 마땅히 측익의 후방 혹은 멀리 후방에 위치하여 능력이 아직 약화되지 않은 적의 화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하고 적에게 점점 접근하면서는 피해를 고려하거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단호히 전방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지휘관은 결전할 지점을 향하여 계속 새로운 정예병력을 증가시키고 결전의 시기에는 오히려 적보다 우세한 능력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산병선이 점차로 추진되어 적진으로부터 대략 200 내지 300m의 지점에 도달한 이후의 조치는 '제6절 2항 步兵의 白兵戰〔着劍突擊〕'의 여러 방법에 준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공격이 성공하고 적의 진지를 탈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획득한 진지의 점령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하여는 촌락, 삼림 등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후미에 이르기까지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 추격은 통상 공격의 연결선상에서 하지 않고 대개 사격으로써 실시하며, 후방부대는 지형이 허락하는 한 제1선으로 전진하여 사격하는데, 이때 이미 돌격을 실시한 부대는 바로 탈취한 진지를 점령하고 대오를 정돈하면서 이후의 새로운 기도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전투준비를 하여야 한다.

추격사격은 적을 살상할 수 있으나 완전히 적을 섬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예부대가 있거나 상황이 허락하면 급속하고 맹렬한 추격행동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공격이 성공하면 지휘관은 그 획득한 지역을 고수하는데 노력하고 또 신속히 그 대오를 정돈하고 다시 공격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며, 아직 혼란에 빠지지 않은 적의 화력하에서 퇴각하는 것은 마치 자멸을 초래하는 것과 같고 일제히 전진하는 것만 못한 것이다.

적의 사격권 안에서 전진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므로 야음을 이용하여 적에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통상 주간에 적의 사격권 밖까지 전진하고 다음날 먼동이 트기 전에 야음을 틈타 다시 모든 부대를 전진시켜 여명(黎明)에 사격하기가 좋은 거리에 도달하여 바로 사격을 개시하여야 한다.

## 2. 防 禦

방어시의 대형은 일정한 모형을 설정할 수 없으며, 이는 공격에 비하면 더욱 그러하다. 대체로 방어시에는 특히 지형의 이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지형에 맞추어서 대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방어의 수행은 일정한 지역(고지와 계곡 등)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사용 방법은 하권에서 기술하고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보통 사항만을 기술한다.

무릇 방어는 화기를 충분히 이용하는데 있으며, 이 목적에 따라 진지를 선정하고 인공적으로 견고하게 만든다.

적의 공격방향을 탐지하면 전투 목적 및 지형에 따라 진지를 고수할 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각 견제부대의 방어 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또 각각 예비대를 준비하는 것이며, 한편 그 담당구역의 수와 너비는 진지의 형상(形狀)과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관측의 난이도(難易度) 등에 따라 다르다.

무릇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방어는 공격 조치와 병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주로 공격을 담당하는 부대는 일정한 지역에 사용되지 않은 총예비대가 되기 때문에 그 병력을 가능한 한 많도록 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전황 및 지형에 따라 순식간에 공격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편리한 지점, 다시 말해서 진지의 일익에 통상 위치한다.

이러한 위치는 또한 강력한 진지에서 가장 우려해야 할 적의 포위를 방지하고 오히려 적의 측면을 공격하는데 편리하다.

총예비대는 방어부대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멀리 측방에 위치하여 전개지역을 점령하여야 한다.

공격시에는 가능한 한 시간을 오래 끌다가 사격을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방어에 있어서는 적병이 아군 소총의 중거리 사격권 안에 들어오면 사격을 개시함으로써(매우 유리한 목표에 대하여는 오히려 더 먼거리에서 사격한다.) 적의 공격을 어렵게 하고 또 적을 동요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처음에는 가급적 일제사격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부대가 오랫동안 침묵을 유지하고 또 탄약을 절약하고자 하는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일찍 사격을 하는 것은 아군의 진지를 노출시키며 또 탄약을 낭비하기 쉽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적병이 점점 접근함에 따라 방자는 더욱 치열하게 사격하고 그 전진을 저지하는데 노력하며, 적병이 마침내 돌격을 하기 위하여 노출된 상태로 전진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크게 손실을 입도록

하고, 이들이 아군 진지 앞에서 물러나 도피하게 되면 이 시기가 바로 아군이 역습할 절호의 기회이다.

이때 이미 교전하던 병력은 진지에 집합하여 역습을 감행할 총 예비대의 배후 지탱점(支撐點)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능한 다수의 총기를 동원하여 급사격으로써 역습을 지원하여야 하며 때로는 모든 전선에서 함께 출격하는 경우가 있다.

방자가 만일 퇴각할 지경에 이르게 되면 신예의 1개 부대로 후방진지에 거점을 만듦으로써 나머지 퇴각하는 병력을 수용할 본분을 다하게 하는데, 다만 이러한 부대를 전투에 사용하지 않고 퇴각 결심을 하기 전에 미리 후방으로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할 사항이다.

전수방어(專守防禦)에 있어서는 진출하여 적을 섬멸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지만, 만부득이 이러한 경우에 빠질 때는 살아 있는 한 끝까지 노력하여 전투지역을 방어할 뿐이다.

### 3. 夜間戰鬥

#### 가. 總 論

이제까지는, 야전에서의 야간전투가 전투진지에서 적과 대치할 때 혹은 적의 진영을 급습할 때 등에만 일어났었으나, 화기가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백주(白晝)에 임무 성취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공격할 때는 야음을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장차 야간전투가 일어날 경우는 특히 소부대의 전투에서 가장 많을 것은 명백하다.

야간전투에 있어서는 모든 지형지물이 주간에 비해 그 효용이 완전히 다르고 또한 도로 및 방향이 쉽게 혼미해지며 행동과 지휘가 곤란하고 대오가 문란해지기 쉬우며 정확하게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야간전투는 특히 백병전에 가장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의 소위 “탄환은 어리석고 검(劍)은 지혜롭다.”라는 격언은 실로 야간전투의 특색을 가리키는 것으로, 야간에는 우군이 서로 살상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신호나 암호를 정하여 적군과 아군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나. 攻 擊

야간에 수행하는 공격행동은 행군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목표를 확실히 결정하여 사전에 지시하는데 단거리로 지정하고 또한 이미 숙지하고 있는 가능한 한 일정한 범위의 지역내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공격대형은 가장 단순하고 또한 장악하기가 편리한 대형, 다시 말해서 중대중대를 병렬로 하거나 중첩하여 그 정면 앞으로 약간의 산병을 배치하거나 혹은 배치하지 않고서 접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기타 근거리에서 중대의 선두로써 격렬한 총격전을 교환할 수 있다.

나머지 공격방법은 모두 혼란을 조성할 뿐이며, 만일 야간에 부대가 혼란에 빠지면 다시 정돈하기 어려워 마침내 공격의 수행은 불가능해지거나 ‘자식이 먼저 죽음’을 당했을 때와 같은 참담한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 다. 防 禦

야간방어시에는 침착하게 그 점령한 위치에서 방어하고 대형을 새로 구분하지 않으며, 총격전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급격하게 행하되 미리 주간에 적의 접근로를 중심깊게 사격할 위치를 직접 관측해 두어야 한다.

만일 1개 부대가 특히 야간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할 때는 가장 먼저 경계선에 병력 증가가 필요하고, 모든 야간방어 전투에서 인접부대간의 상호 지원은 오직 신속한 측면공격으로만 수행할 뿐이다.

## 第8節 歩兵의 騎兵에 대한 戰鬪

1명의 보병이 사격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 개활한 평지에서도 1명의 기병보다 우세하며, 가령 다수의 기병에 대하여도 침착하여 동요하지 않고 시종 적병을 주시하여 적절하게 화기를 사용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보병부대도 역시 태연자약하여 견고한 자세를 지킬 때는, 가령 우세한 기병부대를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정확히 조준하고 침착하게 사격하여 보다 많은 화력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은 어떠한 대형으로도 기병을 방어하는데 적절하기 때문이다.

기병에게 최대의 위협을 주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화기를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과 방향의 전환은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만 시행되어야 하며, 보병의 각 대형에 대한 사용 방법을 다음에 대략적으로 제시하였다.

- 횡대에서는 정면으로 습격을 받았을 때는 대형을 바꾸지 않고 즉각 이에 대항하여야 하고, 만일 그 습격이 횡대의 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 일익에 소요되는 병력으로써 기병에 정면 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 중대중대에서는 습격을 받았을 때, 만일 행동에 여유가 있으면 바로 기병을 향하여 횡대로 전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중대중대로서 사격을 한다.
- 전투대형에서 정면으로 습격을 받았을 때는 각개 병사들은 바로 사격을 개시하고 증원된 각 소대는 좌우측 후방에 제대를 만들어 측방을 감시하고 그 방향으로 오는 기병을 사격하여야 하며, 만일 한 측면이 습격을 받았을 때는 증원부대 및 예비대는 모두 이 방면으로 정면을 바꾸어서 제대를 만들어 사격으로써 이 측면을 방호(防護)하여야 한다.
- 언제라도 적의 보병과 전투하게 될 각개 병사들은 가령 적 기병의 위협에 봉착하여도 되도록 밀집대형을 취하는 것을 피할 것이며, 침착하게 사격을 하면 충분히 자신을 가지고 적 기병의 습격에 대응할 수 있고, 만일 지형이 기병에 대하여 장애 및 엄폐물이 될 때는 더욱 각개 병사들의 힘을 증가시켜 준다.
- 후방부대의 사격에 따라 그 측면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산병선에서 기병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보병이라면 설령 방진(方陣)을 편성하여도 효과가 없는 것이다.

방진은 이제까지 기병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대형으로 그 주된 바는 착검으로써 적의 기병에 저항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

나, 인간의 팔힘은 사실상 말이 전속력을 다하여 달려오는 기병의 충격력을 당할 수 없고 또한 방진은 충분한 화력을 사용할 수 없어 오히려 적의 보병 및 포병의 양호한 사격 목표로서 노출되는 불리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보병조건 가운데 이 대형이 수록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이 특별한 시기에만 사용한다.

- 부대의 탄약을 모두 사격하였을 때
- 살상이 많은 전투 후에 부대가 어지러울 때
- 개활지를 퇴각함에 있어 끊이지 않고 우세한 적의 기병이 위협을 가할 때

보병은 적의 기병이 우세한 보병의 지원을 받을 때 혹은 동시에 각 방향으로 수개 노선으로써 습격하여 오는 우세한 기병이 아닐 때에는 개활한 벌판에서도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즉각 이에 대응하여 전진한다. 전진할 수 없거나 효과적인 사격을 가할 수 있는 대형을 취할 수 없을 때만 제외하고는 보병이 기병에 대하여 손색(遜色)이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병은 그 지점에 정지하여 사격을 가하면 간혹 그 습격에 대응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나 도망가는 보병은 기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조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협도 크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 第9節 步兵의 砲兵에 대한 戰鬪

### 1. 敵砲兵의 火力下에서의 行動

#### 가. 步兵이 小銃 射距離 밖에서 砲兵에 對應

이 경우에는, 적포병의 사격을 받아도 응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면하지 못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엄폐물을 이용하여 적의 포화를 피하고 또한 개활지에서는 일시적으로 비껴 가거나(적 화포의 조준 및 수정을 곤란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치를 좌우 방향으로 바꾼다.

그리고 행군과 정지에 관계없이 항상 적에게는 작은 목표물이 되게 하고 부대의 중심을 줄임으로써(포탄을 피하기 위함이며, 파편이 횡방향보다는 종방향에 심하기 때문이다.) 적 포화의 효력을 감소시킬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나. 步兵이 小銃 射距離 안에서 砲兵에 對應

이 경우에는, 유리한 점이 매우 많고 그 접근 정도와 지형의 도움이 크면 클수록 더욱 그러하다.

#### 다. 砲兵에 대한 戰鬪

원거리에서는 포병의 화력이 보병보다 우세하고, 1,000m 이내의 거리에서는 그 효력이 비로소 대등해지며, 600m 이내의 거리에서는 보병이 포병보다 훨씬 우세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보병은 원거리에서 결코 포병과 그 위력을 겨루는 것은 불가하며, 이와 같은 행동은 단지 탄약만을 소모할 뿐이다.

## 2. 砲兵에 대한 攻撃

포병에 대한 공격의 성공은 그 진퇴를 저지하고 화력을 압도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주요한 공격방법은 완벽하게 준비된 총격전이다.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거리는 1,000m 이내이므로, 보병은 지형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 거리 안으로 접근하고 제일 먼저 목격한 수레의 말을 사격함으로써 그 화포의 이동 및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에는 그 병사들을 사격하여 신속하게 화포의 조종이나 사용을 못하게 하여야 한다.

포병에 대하여는 특히 측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역시 정면공격과 측면공격을 함께 하며 통상 먼저 그 근방에 있는 엄호병을 격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포를 탈취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적의 회복공격(回復攻撃)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일부병력으로 노획한 화포와 인마를 확실히 지키고 호위하도록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파괴한다(폐쇄기를 제거하고 조준기와 차륜을 파괴하며 포구를 막아 버리는 등).

### 第10節 歩兵의 彈藥補充

보병이 휴대하는 탄약(수량은 군제학에서 기술한다.)은 전투중에 대대의 말이 끄는 탄약수레(탄약의 수량은 군제학에서 기술한다.)로부터 보충하는데, 이러한 탄약수레를 끄는 말들은 대대본부 하사의 지휘에 따라 전투가 개시되면 차폐물에 의탁하고 전투병력과 거리 800m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태가

다급해지면 위험하거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최전선 가까이로 전진시켜야 한다.

탄약을 최전선에 보충하는 데는 수요에 따라 가능한 한 지원부대와 예비대의 병력을 사용하며, 이 병력들은 명령에 따라 탄약 수레가 있는 지점에서 도착된 탄약을 수령하여 지시받은 중대로 운반하여야 하고, 1개 상자의 탄약은 묶음상태로 상자로부터 꺼내서 병사 2명이 나누어 운반한다. 그러나 필요시는 상자에 들어 있는 채로 2명이 운반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전선으로 들어가는 탄약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병사들은 최전선에서 이미 사격하고 있는 병사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보충탄약을 가져가야 하며, 사상자들의 탄약을 수습하여 보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탄약수레가 부대를 곧바로 따라갈 수 없을 때(탄약수레가 통과하기 어려운 지역과 매우 빠른 행군을 요할 때) 그리고 전투간에 보충이 곤란하고 또한 다량의 탄약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부대가 전선지역에 투입될 때 탄약의 전량 혹은 일부를 병사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으며, 그러한 때에 각 병사들은 잡낭(雜囊)과 바지주머니 등에 간직하는 것이 편리하다.

수레에 있는 탄약을 적당한 시기에 보충하는 것은 대대장의 책임이며, 그 보충은 탄약대열(탄약수량은 군제학에서 기술한다.)로부터 하는 것이 기본이다. 탄약대열에서 대대의 탄약수레에 대한 보충이 불가할 경우에는 상급지휘관이 다른 대대의 아직 사용하지 않은 탄약수레로부터 보충하여야 한다.

결전의 시기에 임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탄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탄약보충

은 각급지휘관 및 병사들이 특히 주의할 것이며 기회가 있을 때 실행에 태만하면 절대로 안된다.

대개 탄약을 모두 사격하여 바닥을 낸 보병은 주요한 전투력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충 가능성 여부는 전투의 승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탄약보충의 의의는,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으나 언제라도 탄약의 보충을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 안되고 격전을 치르는 하루 온종일 간혹 보충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탄약을 절약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알아야 한다.

## 第2章

.....

## 騎兵戰術

### 第1節 騎兵部隊의 編制

기병중대는 4개 소대로 편성되며(만일 소대원이 10명이 되지 못할 때는 소대의 수를 줄인다.), 소대는 다시 4개 분대로 편성되고 2개 분대가 합치면 반소대(半小隊)라고 하며, 기병대대는 이 기병중대로써 편성한다. 편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군제학에서 기술하였다.

유럽 선진국의 군대에서는 대개 4개 중대(독일, 러시아, 프랑

스) 내지 6개 중대(오스트리아, 이탈리아)로써 연대를 편성하고, 2개 내지 3개 연대로써 여단을 그리고 2개 내지 3개 여단으로써 사단을 편성한다.

밀집한 모든 부대는 2열로 편성하며, 이 열중(列中)에서 각 기병의 간격은 말의 등자(鎧子)의 틀이 서로 닿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열간(列間)의 거리(앞열 말의 꼬리로부터 뒷열 말의 머리에 이른다.)가 중대에서는 1보이고, 황대에서는 20보이다.

모든 중대대형에서 통상 취하는 거리는 그 선두부대 제1열의 말머리로부터 후방부대 제1열의 말머리에 이르는 길이로써 측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열중에 있는 각 기병간의 폭은 이웃한 기병과의 간격을 합하여 1보, 즉 1m이기 때문에 황대정면의 폭은 기병의 인원수와 같은 m 수치이다. 도보시의 1보는 보병과 같은 75cm이고 승마시의 1보는 1m이다.

## 第2節 騎兵의 行軍速度

기병의 행군속도에는 상보(常步), 속보(速步) 그리고 구보(驅步)의 3종류가 있다.

상보는 1분간에 90보로서 이는 말이 오래 견딜 수 있는 가장 완만한 행군속도이다.

속보는 그 속도에 비하여 말의 피로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마음대로 원거리를 빨리 갈 수 있고 또한 모든 행동에 사용하며, 그 속도는 1분간에 210보이다.

구보는 가장 빠른 행군속도로서 말의 피로함도 가장 빨리 오기

때문에 원거리의 행동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흔히 전개할 때나 습격을 하기에 앞서 행군하는데 사용하며, 그 속도는 1분간에 300보이다.

각각의 행군속도는 필요에 따라 앞에서 제시한 속도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이상 3종류의 행군속도는 통상 적절히 혼용함으로써 기병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 第3節 騎兵의 隊形

#### 1. 中 隊

##### 가. 橫 隊

4개 소대를 병렬로 정렬한 것으로 전투의 주요한 대형이지만 원거리 행군에는 불편하며 지형으로 인하여 대오가 문란해지기 쉽다.

##### 나. 中隊縱隊

4개 소대가 서로 정면의 폭과 같은 거리를 취하여 중첩하는 것으로 집합과 행동시에 사용하는 대형이다.

##### 다. 2伍(1伍 또는 4伍)縱隊

도로상의 행군에 사용하는 대형으로, 이를 줄여서 1오가 되거나 늘려서 4오를 만드는 것은 오직 도로의 광협에 따르게 되며, 4오가 되는 때는 중심을 줄이는 이점이 있으나 이러한 폭을 유지

할 수 있는 도로는 매우 드물다.

## 2. 大 隊

### 가. 橫 隊

대대내의 모든 중대는 횡대로서 서로 6보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오른쪽부터 왼쪽의 1개 부대에 나란히 정렬하는데, 그 사용 방법은 앞의 '제1항 중대'와 동일하다.

### 나. 縱隊橫隊

중대중대에서 각 중대의 3개 소대의 폭에 6보를 가산한 간격을 가지고 나란히 정렬하는데, 이 대형은 중대와 횡대의 2개 대형을 절충한 것이기 때문에 행동이 자유자재하여 모든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고 기타 지형이 복잡한 곳을 행군하기에 편리하므로 습격을 위하여 대기할 때의 행동과 집합시에 적절하다.

### 다. 大隊縱隊

중대중대에서 각 중대의 소대 정면에 6보를 가산한 거리를 가지고 중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대형은 정면이 협소하기 때문에 곤란한 지형을 행군하는데 편리하고 제반행동 및 좁고 긴 지역에서 집합하는데 적합하다.

### 라. 大隊中隊縱隊

각 중대는 횡대로서 중대 정면에 6보를 가산한 거리를 가지고 중첩하는 것을 말하며, 이 대형은 용이하게 모든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반행동에 사용한다.

## 第4節 戰場에서 騎兵의 行動 및 襲擊

### 1. 戰場에서 襲擊待機間의 行動

#### 가. 總 論

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는 것은 매우 드물고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것은 매우 빠르다. 호기를 잡아 감행하는 습격은 기병만이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각 방향에 대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습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기병은 적의 포화에 대한 목표물로서 크다는 점과 적의 총탄에 대하여 마필이 두려워하고 대오가 쉽게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대기중에는 특히 적의 포화를 차폐시켜야 한다.

적의 포화나 습격 예상구역 밖에서는 집합대형을 취하여 주둔하거나 행동하며, 그 구역 안에서는 각 방향, 특히 위태로운 방향에 대하여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대형(중대중대 혹은 중대횡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 搜索兵

중소대(中小隊)의 전투를 준비하려면 그 부대장은 곧바로 전진하려는 지형이 적당한지 여부를 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임무를 수색병에게 맡기기 위하여 각 소대로부터 가급적 민첩한 병사 2명을 통상 차출하고(상황에 따라서는 측방의 소대에서 차출한다.) 숙달된 하사(혹은 사관) 1명으로 하여금

지휘하도록 한다.

수색병은 구보를 하면서 본대와 시호통신(視號通信)에 의한 연락은 유지하면서 지시된 방향으로 나아가 중대가 진격하고자 하는 지역을 검정하여, 장애물이 있으면 사전 약속된 신호로써 알리고 적의 행동을 보고하며 또한 아군부대의 행동이 은밀하도록 하는 것이 임무이다.

중소대가 습격을 위하여 전진할 때 수색병은 습격에 앞서 본대의 선두에서 전진하여야 하며, 다만 직접 접촉만 하고 귀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다. 戰鬥斥候

기병은 비록 전투준비가 충분한 때라도 측면이 불의의 습격을 받았을 때는 이에 대응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노출된 측면은 전투척후로써 계속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투척후는 본대와 함께 행군하며 시종 관찰을 통해 본대를 위하여 위해로운 것을 살피거나 습격의 호기를 인식할 때는 본대에 보고하며 습격하는 동안에도 더욱 감시를 태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전투척후는 하사 혹은 상등병 1명과 병사 2명으로 편성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부대규모가 크고 또한 필요시는 그 병력수를 늘리고 또 장교를 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다.

## 2. 戰列區分

기병의 전투(특히 기병에 대한 전투)에서는 직접 습격을 해오

는 병력보다 오히려 장차 전투에 참여할 신예(新銳) 병력을 쳐부수는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전열을 구분한다.

대개 기병이 서로 충돌할 때는 통상 분전(奮戰)하여 난투가 벌어지므로, 그 진퇴가 마치 노도(怒濤)와 같고 각 기병은 전승(全勝)이나 전패(全敗)나의 양극 사이를 오락가락하는데 이때에는 신예 병력을 사용하는 것이 대개 승리를 안겨주고 패하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개전시에 제1전열은 패하지 않도록 배치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기병중대는 그 병력이 아주 적기 때문에 보통은 반드시 전열구분을 할 수 없으나 가능한 한 일부 병력으로써 제2전열을 만드는데, 수개 중대로부터 편성된 부대에서는 전투중 적지만 2개 전열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전열은 제1선에 위치하여 적과 충돌하는 부대이며 가능한 다수의 병력이 필요한데, 그 이유의 하나는 개전시에 먼저 기선을 제압하고 다른 하나는 적을 포위하기 위함이다.

전열대형을 취하여 습격을 위한 장거리 행군시에는 바로 제1전열은 적절하게 중대를 만들어야 하며, 횡대로의 전개는 장차 습격을 하고자 할 때에 필요하다.

제2전열의 임무는 제1전열의 증원부대로서 적의 측면을 공격하여 아군의 측면을 보호하고, 또 제1전열을 수용하거나 돌파하는 적을 막으며 또한 접전시에 특히 결전을 유리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접전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밀집대형을 편성하여 진격하는 부대를 뒤따르게 된다.

중대의 수와 병력이 허용되면 3개 전열로 구분하며, 그러한 경

우에는 제3전열은 예비가 된다.

각 전열간의 거리 기준은 전열의 병력수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통상 제2전열은 제1전열의 정면의 폭과 대략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혹은 위험하거나 아군의 전력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측방을 점령하며, 제3전열은 제2전열과 반대쪽에 제2전열의 선두보다 약간 물러나서 점령하기 때문에 전열 전체의 모양은 마치 물고기의 비늘〔魚鱗〕형상과 같게 된다.

3개 전열이 이와같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배치되면 행군이 용이하며 또 소요의 부대만 전투하도록 하고 다른 부대는 이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여서도 동일한 대형을 취하여 전투가 가능하며 특히 적의 전선을 포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 3. 襲 擊

기병의 전투는 소위 습격이라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 뿐으로 그 목적하는 바는 적을 유린하고 백병(白兵)을 지휘하여 적을 섬멸하는데 있으며, 이를 대별하면 밀집습격(密集襲擊)과 산개습격(散開襲擊)의 2종류가 있다.

#### 가. 密集襲擊

밀집습격은 밀집대형을 사용한 습격방법으로, 그 요지는 오로지 충격력이 크기 때문에 적의 기병이나 밀집된 보병에 대하여는 항상 이 방법을 적용하고, 기병 상호간의 전투에서는 그 병력이 아주 적을지라도 밀집대형이 적의 산개대형에 대응하면 항상 승

리하는 대형이지만, 이 대형은 속력이 자연히 제한을 받게 되는 손해를 면하기는 어렵다.

밀집습격에 있어서는 대형의 정돈과 단결의 견고함을 요하는데, 기병이 말고삐에 쫓아서 질주하면 대오가 갑자기 뒤섞여서 어지러워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습격은 장차 적진 속으로 돌입하고자 하는 시기가 아니면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또 마필은 습격 후 오히려 약간의 거리를 추격하기 위한 여력을 남겨 두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습격하는 초기에는 서서히 그리고 점차로 그 속력을 증가하여야 하는데, 바로 초기에는 전투력을 축적하였다가 막판에 가서는 마치 번개처럼 분진(奮進)하고 격돌하여 다시는 적이 대응할 수 없도록 할 전투력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탄창의 용수철에 비유한다면, 처음에 용수철을 충분히 눌렀다가 놓으면 그 힘을 한껏 드러내는 것과 같다.

밀집습격에 사용하는 대형에는 횡대(橫隊)와 종대(縱隊)의 2가지 종류가 있다.

### 【횡대습격】

횡대습격은 기병이 전용하는 주요 전투대형이다. 밀집대형 가운데 다수의 백병을 전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대형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전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대 행진중에 제1열을 추진하고 또 그 결원(缺員)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2열이 필요하게 된다.

그 밖에도, 횡대는 모든 부대가 동시에 적과 충돌할 수 있고 또 부대의 정면이 넓기 때문에 습격시에 적을 포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중대습격(제대습격)】

중대습격은 횡대로 전개할 시간과 공간이 없을 때, 가령 적에게 가장 근접한 애로(隘路)로부터 출격할 때 그리고 측방에 전개할 필요가 있을 때의 습격에 사용하며, 기타 적의 전선 가운데 1개 지점에 계속해서 충격력을 주어야 할 때 등에는 이 습격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방법은 선두부대가 먼저 습격하고 기타부대는 전개하는 즉시 뒤따라 독자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다.

#### 나. 散開襲擊

산개습격은 각 기병이 1보 내지 3보의 간격을 취하여 1열로 산개하여 실행하는 습격법으로 그 충격력은 미약하다.

그러나 행동의 신속함과 적의 화력에 의한 피해는 아주 적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의 포병 혹은 산개한 보병을 공격하는데 사용하고 또 모든 병과에 대한 추격시에 사용되는 것이다.

산개습격은 횡대로부터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횡대로 전개할 여유가 없을 때는 종대로부터 바로 실행하는데 어떠한 경우에서도 한번 산개하면 각 기병은 가장 신속한 속도로 대적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정돈이나 서열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말머리를 가지런히 하여 행군하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산개습격의 요령은 밀집습격에서와 같으며 다만 각 기병간의 간격이 그 기준을 넘으면 병력이 분산되어 돌진하는 힘을 잃고 또한 집합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 第5節 散 擊

산격은 기병부대가 이미 적과 가까이 접근한 경우에 적의 척후와 기병을 분리시키고 아군의 전투준비 및 행동을 엄호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부대(통상 소대)의 전법(戰法)으로, 적의 기병을 원거리 지점에 고착시키기 위하여 화기를 사용한다.

기타 산격부대의 행동은 그 책임자가 받은 임무에 따라 결정되며, 산격부대를 복귀시키려면 중대장은 집합 신호를 사용한다.

## 第6節 追擊 및 集合

### 1. 追 擊

이미 여러 차례 기술한 바와 같이 기병은 추격에 적당한 병과이기 때문에 다른 병과의 승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나 자체의 습격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도 모두가 이 추격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살상과 포획으로써 적의 병력을 크게 감소시키고 다시는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할 정도의 승리는 신속하고 맹렬한 추격으로 개시하여야 얻을 수 있다.

만일 적병을 격퇴하여 장애물이나 곤란한 지형으로 몰아넣을 수 있으면 그 혼란을 배가시킬 수 있고 또 적의 다른 부대에 위축감을 주게 된다면 아군은 심한 저항을 받지 않으면서도 적의 다른 부대도 패주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추격에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오로지 산개대형을 사용하나, 이 대형은 새로이 출현하는 적의 밀집부대를 만나게 되면 매우 위태로운 형세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태변화에 대응할 밀집부대를 후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2. 集 合

집전과 산개습격 혹은 추격 후의 집합은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함이 중요하며, 그 이유는 분리된 기병은 충분한 전투력이 없기 때문이다.

집합은 오히려 보병을 합병할 때와 같은 기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가능한 한 신속히 지휘관의 후방에 도착하여 밀집된 2열 횡대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 第7節 騎兵의 騎兵에 대한 戰鬪

피아(彼我)의 기병간에 교전하는 경우에는 부대를 정돈하고 단결이 견고하며 또한 능력이 있고 행동이 교묘하며 측면을 공격하고 전열구분을 적당하게 활용하는 것과 교묘히 백병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특히, 전투의 승패는 오로지 사기의 성쇠에 따라 판가름되기 때문에, 진실로 기병된 자(者)는 기병전술에 능통하고 어려움에 굴하지 않으며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의 강약이나 다과(多寡)를 불문하고 습격의 명령이 한번 떨어지면 환희의 감정이 뇌리에 충만하여 경쟁적으로 이에 호응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기병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적 기병의 습격을 기다리면 안되고 반드시 먼저 적을 습격할 것이며, 그 습격은 가능한 한 적의 취약한 부분인 바로 적의 측면에 대하여 감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적의 기병에 대하여 아군의 측면을 보호하는 것도 역시 똑같이 필요하다.

습격의 요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횡대로 전개하고 또 전력(全力)을 다하여 충돌하는데 있으며, 다만 접전과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기 위하여 말의 힘을 반드시 아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아군이 횡대로 너무 일찍 전개하여 적으로 하여금 오히려 종대로써 행동하는 이점을 가지게 한다면 상대방이 진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대형을 이용하여 아군의 습격 목적을 오판하게 할 수가 있으며, 만일 늦어서 기회를 잃을 때는 상대방이 아군의 대오가 정리되지 않은 기회를 틈타서 습격해 올 것이므로 기병부대의 장(長)은 전개 시기를 통찰하는 안력(眼力)을 연마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정비가 완료된 적의 기병에 대하여는 아군의 기병은 가능한 한 장거리는 속보로, 단거리는 구보로써 통과하고 다음에 대형을 신장(伸長)하여 구보를 끝내면서 습격보도로 이전하여 빠르게 적을 포위공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적의 기병이 전개중에 있거나 혹은 행동을 전환하는 취약한 틈을 찌르기 위해서는 원거리 지점으로부터 구보를 개시한다.

기병은 전장에서의 임무 외에 오히려 부대를 선도하거나 후속하면서 수색과 경계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기병이 이 임무를 완수하는데는 아군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적의 기병과 언제라도 교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전투는 일반전투

의 서막을 여는 것이면서 그 승패는 전체 국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 第8節 騎兵의 步兵에 대한 戰鬥

숙달된 보병이 기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는 이미 서술하였거니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근래에 기병이 보병을 공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줄로 알겠지만 보병이 전투로 피로해져서 대오가 어지러워진다고 또는 탄약이 부족한 때를 이용한다든가 기타 예상외로 출격하였을 때는 매우 큰 공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무릇 보병에 대한 습격에서 공을 세우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기회를 관찰할 수 있는 정도와 의기투합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나머지 사항들, 특히 병력의 다과 및 습격대형 등은 2차적인 사안이며, 다만 어떠한 경우에서도 공격 이전에 가능한 한 차폐하여 적에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 기술한 제반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병이 항상 좋은 시기만을 기다려서 습격을 할 수는 없으며, 현재 상황에서 공로를 기대하지도 못하고, 또한 도리어 아군이 전멸될 수밖에 없을 때라도 분연히 습격을 감행하여 전장의 희생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 가령 맹렬하게 진격하는 적을 저지하고 아군을 사지(死地)로부터 구원하거나 아군의 공격을 용이하도록 하는 때가 이와 같은 것이다.

산개대형인 보병에 대하여는 각 부대가 축차로 그리고 모든 방

향으로 습격하는 것이 가장 이점이 있으며, 대개 이러한 습격은 적의 사기를 꺾어서 낭패(狼狽)를 당한 사실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르게 하기도 한다.

방진(方陣)을 하고 있는 보병을 습격할 때는 그 모서리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이다. 이는 적병이 아군을 정면에서 사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 그 피해가 정면에서 사격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밖의 대형에 대하여서도, 사격 정면을 피하고 준비가 없는 변두리 방향으로 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

## 第9節 騎兵의 砲兵에 대한 戰鬥

기병이 만일 습격의 목적이 없이 적의 포화 가운데 있을 때는 차폐물에 의탁하거나 매우 빠른 행동으로 정면을 분할하거나(중대 횡대) 혹은 중심을 축소(횡대)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를 벗어나야 한다. 기병이 적의 포화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그 피해가 현저하고 또 마필이 공포에 떨게 되어 대오가 교란되기 쉽기 때문이다.

포병을 습격하는 요령은 보병에 대한 것과 대동소이하고, 그 감행할 시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 포대가 크게 어지러울 때
- 측면이나 후방으로 급습할 수 있을 때
- 앞 차량이 통제에서 벗어나거나 서로 뒤엉켜서 투입될 때
- 포대가 이동중에 있거나 또는 아군의 습격에 대하여 사격할 여유가 없을 때

그러나 대체로 이와 같은 시기에 도 특별부대이면서 동시에 포병을 엄호하는 부대(다음 장에서 기술한다.)를 감당해 내지 못하면 안된다.

포병에 대한 습격은 산개대형으로써 실행하고 그 엄호부대에 대하여는 그것이 기병이나 또는 보병이나에 따라 이미 기술한 전법에 따라야 한다.

공격이 성공하면, 먼저 화포와 탄약차를 후방으로 보내야 하며, 만일 이와같이 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기병은 적의 회복공격에 대하여 이를 고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병의 대부분은 적의 반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바로 집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 第10節 騎兵의 步兵戰鬪

기병은 마상전투(馬上戰鬪)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보병전투를 감행하며, 이를 위하여 기병은 더욱 독자적인 능력을 가져야 한다.

### 1. 步兵戰鬪를 감행할 境遇

- 적이 수비하는 애로(隘路)를 개척할 경우
- 적이 먼저 요지를 점령하여 아군 보병의 합류를 못하게 고수할 경우
- 아군의 퇴각시에 적을 한 곳에 고착시켜 놓고 또한 강력하게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을 얻으려는 경우
- 아군의 숙영지를 방어할 경우

기병이 한번 말에서 내리면 이미 그 기병으로서의 자격을 잃고 불완전한 보병이 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도보전은 기병의 비상수단이다.

도보인 기병은 보병처럼 곳곳에서 행동하면서 장시간의 총격전을 감행할 능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 보병전투의 시초부터 전력(全力)을 다하여 격렬하고 과감하게 전투를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기병에 보병전투의 능력을 가지게 할 경우의 이점은 신속하게 소망(所望)하는 지점에 도달하여 불의에 전투를 개시하고 만일 그 전투가 불리할 때는 다시 승마하여 신속히 물러나는 것이다.

## 2. 步兵戰鬪의 區分

보병전투시의 단위는 중대(中隊)로서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보병으로서 전투할 집단
- 마상예비대(馬上豫備隊)
- 수마(手馬)<sup>10)</sup>

보병전투를 위하여는 승마 제1, 제2소대로써 제1산병소대를 편성하고 제3, 제4소대로써 제2산병소대를 편성하며 각 산병소대는 1명의 소대장이 거느리고 중대장 혹은 1명의 사관(士官)이 양개소대를 지휘하는데, 이러한 전법은 보병의 산개전법에 준한다.  
(산병선 지원부대)

---

10) 수마(手馬) : 보병전투를 하기 위하여, 기병이 내리고 타지 아니한 말〔馬〕을 일컫는다.

마상예비대는 보병전투를 수행할 때나 중대 전체를 동원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 그리고 대대가 보병전투를 수행할 때 등에 편성되며, 통상 밀집하여 보병전투를 준비하고 전투 중에는 특히 측면에 위치하여 수색과 경계를 계속하며 산병들이 하마(下馬)와 승마(乘馬)하는 것을 보호하고 또 수마의 경비에 임하는 소부대이다. 마상예비대를 설치하지 않을 때는 승마척후로서 대용(代用)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마는 보병전투를 위하여 중대가 모두 하마할 때 1명의 사관이 장악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정교(正校)는 수마와 가까이 위치하고 기타 각 소대에 하사 1명씩을 두고 또 산병선과의 연락유지를 위하여 약간의 병사들을 위치시킨다.

수마는 불의에 적의 습격을 받지 않도록 경계하고 음폐되도록 배치하여 가능한 한 적의 관측과 포화를 피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으로 하여금 아군의 병과 여하를 식별할 수 없게 하고자 할 때는 특히 산병선에서 후방으로 적어도 600m 되는 곳에 위치시킨다.

수마의 책임자는 전투경과에 관하여 그 상황을 헤아리고 또 산병소대와 연락을 확실히 유지하며 도보병이 다시 승마할 때 신속하게 마필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하겠으며 또 보병전투를 지휘할 사관도 수마의 소재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 3. 下 馬

보병전투를 위한 하마는 적의 포화와 관측을 차폐할 수 있는 곳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橫隊에서 下馬

각 소대장 이하 모두(전투척후 및 전령용 기병 등은 제외한 다.) 하마하고 각열 가운데 1명씩의 병사로 하여금 그 열의 마필을 지키도록 한다.

나. 縱隊에서 下馬

2개 오(伍)의 종대일 때는 한쪽 편의 병사를 하마케 하고 1개 오의 종대일 때는 제1열과 제2열의 병사를 하마케 하며, 이후 만약에 수마를 지키던 병력들을 보병전투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는 소대의 각열 가운데 1명(통상 중앙에 위치한 병사)에게 모든 열의 마필을 지키도록 지시한다.

횡대나 종대의 구별이 없이 산개한 기병이 하마할 때는 총을 들거나 메고 구보로써 지휘관의 소재지에 집합한다.

### 第3章

.....

## 砲兵戰術

### 第1節 砲兵部隊의 編制

산포병(山砲兵)과 야포병(野砲兵) 중대(3개 소대)는 포차대(砲車隊), 제1단렬(段列) 및 제2단렬로 구분하고 포차대와 제1단렬을 합한 것을 전포대(戰砲隊)라 하며, 각 단렬은 반단렬(半

段列)로 나눈다.

2개 중대를 대대라 하며, 야포병 2개 대대 및 산포병 1개 대대(근위에서는 야포병 2개 대대)를 연대라고 한다. 이밖에 편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군제학(軍制學)에서 기술한다.

## 第2節 砲兵의 行軍速度

### 1. 野 砲 兵

야포병의 행군속도는 1분간에 상보(常步)가 약 86m이고 속보(速步)는 약 210m이며 구보가 약 300m로서, 만일 속보를 오래 지속할 때는 그 속도를 줄여서 1분간에 약 180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山 砲 兵

산포병의 행군속도는 수레를 끄는 말이나 짐을 실은 말을 막론하고 상보는 약 86m이고, 속보는 약 145m이다.

## 第3節 砲手의 位置

### 1. 野 砲 兵

앞의 차량과 접속할 때 포수의 정위치는 화포의 측면일 때는 제15도, 화포의 후면일 때는 제16도, 차량 위에서는 제17도 그

리고 화포를 방렬할 때는 제18도에서 보는 바와 같다.<sup>11)</sup>

## 2. 山 砲 兵

도화선을 장착할 때 포수의 정위치는 화포의 측면일 때는 제19도, 화포의 후면일 때는 제20도 그리고 화포를 방렬할 때는 제21도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밖에 산포병은 수레를 끄는 말이나, 짐을 실은 말이나에 따라 모든 병사들의 정위치는 제22도 및 제23도와 같고, 말이 끄는 수레의 포수가 화포의 후면에 위치할 때는 그 말을 포수의 후방으로 1m의 거리를 취하게 한다.<sup>12)</sup>

### 第4節 砲兵의 隊形

#### 1. 中 隊

##### 가. 橫 隊

포차대는 제1선이고 제1단렬은 제2선이며 제2단렬은 제3선을 구성하여 집합 및 제반행동에 사용하는데, 2개 단렬을 합치는 것은 집합시에 한하며, 포차의 지정된 간격은 14m이고 평상시 배열 간격은 5m가 보통이며 3m 이하로 줄이지는 않는다.

##### 나. 砲車縱隊

각 포차가 2m의 거리(산포병에서 수레를 끄는 말은 1.5m, 짐을 실은 말은 75cm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전후하여 행동

11) 위치도가 생략되었다.

12) 위치도가 생략되었다.

및 행군하는 대형이다. 다만, 단렬 포차대를 수행할 때에는 그 거리가 10m이다.

#### 다. 放 列

각 포차는 지정된 간격을 유지하여 일선에 배치하고 제1단렬의 3번 탄약차(산포에서는 포차에 속한 6번 탄약마)는 포차의 후방 10m 되는 곳에, 앞차(제1단렬의 6번 탄약마)는 탄약차(포차대의 맨 뒷열의 말꼬리)로부터 10m 거리를 유지하여 가능한 한 방렬의 한쪽 또는 양쪽 후방에 위치하여 엄폐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전투대형이다.

탄약차(마)는 당시의 상황이 허용하면 짐을 풀어서 수레를 끌던 말이나 타던 말들은 엄폐시켜야 한다.

나머지 제1단렬은 통상 포차대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직접 전선을 수행하는데 방렬의 후방으로 약 100m 되는 위험이 적은 쪽에 위치하여 엄폐하고, 제2단렬은 방렬진지의 후방 약 600m 되는 곳에 같은 요령으로 엄폐하며 또한 교통이 편리하고 진출입이 용이한 곳을 골라서 이에 대응할 대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렬은 전면과 후면 그리고 측면에 모두 설치할 수 있다.

## 2. 大 隊

### 가. 橫 隊

횡대에서 양개 중대는 포차 간격의 2배와 같은 간격(28m)을 확보하여 동일선상에 병렬하는데, 이 대형은 집합 및 제반 행동에 사용한다.

#### 나. 縱隊橫隊

포차중대에서 양개 중대는 동일선상에 위치하여 약 100m 간격을 확보하여 병행하는데, 이 대형은 행동시에 사용한다.

이 간격을 약 30m로 단축하면 폐수중대 횡대(閉收縱隊橫隊)라고 일컫는데, 필요시 약 10m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이 대형도 역시 집합 및 행동시에 사용한다.

#### 다. 中隊縱隊

횡대에서 양개 중대가 약 85m의 거리를 유지하여 전후에 중첩하는데, 이 대형은 행동시에 사용한다.

#### 라. 砲車縱隊

포차중대에서 양개 중대는 약 20m의 거리를 유지하여 전후에 중첩하는데, 이 대형은 행동 및 행군에 사용한다.

#### 마. 放 列

방렬은 양개 중대가 동일선상에서 사다리꼴로 배치한 것이다. 대대장은 제1단렬 및 제2단렬의 배치를 위하여 양개 중대에 공동의 위치를 대략 지정하여 명령을 내린다.

### 3. 聯 隊

연대가 취하는 대형은 연대장이 명령하며, 각 대대장은 대대를 병렬하거나 중첩시키는데, 그 간격과 거리는 통상 대대에서 중대의 간격 및 거리와 동일하다.

방렬대형에 있어서는 대대마다 사다리꼴의 진지를 구성하여야 한다.

## 第5節 砲兵戰鬪의 通則

포병전투는 화포로써 실시하는 사격이다. 그 사격효과의 대소는 시험사격의 적부(適否)에 관계가 있으며, 이는 거리측정에 기초한 탄착의 원근(遠近)을 관측하여 적절히 수정하는 한가지 방법뿐이다.

포병은 강우시나 농무시(濃霧時) 기타 매우 먼 거리에 있을 때는 관측이 곤란하므로 그 효력이 적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야포는 4,000m 이상 산포는 3,000m 이상 거리에서 실시되는 포병전투가 극히 드문 것도 또한 이 때문이다.

포병은 전투 개시에서부터 다수의 화포를 배열하고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러한 이유와 시험사격에 시간을 소모하는 포병중대의 분할과 같은 행동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병은 적의 소총 유효사거리 밖에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결전시 필요할 경우에는 적의 맹렬한 소총사격에도 결코 피하지 않고 아군 보병을 수행하면서 지원을 한다.

아군 부대의 머리 위를 통과하게 사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포병부대장이 아군에게 위해(危害)<sup>13)</sup>가 없음을 확인할 경우로 제한된다.

13) 위해(危害) : 원문에는 면해(免害)로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면(免)을 위(危)로 수정하였다.

## 第6節 砲兵陣地の選定

포병부대장은 화포를 방렬 배치하기에 앞서 진지를 선정하는 것이 통칙으로, 이를 선정하는데는 지휘관의 목적에 따라 일반적인 전황을 고려하고 오히려 타병과와 공동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에 주의가 필요하며 최초의 진지에 투입할 포병의 규모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른다.

진지를 선정하는 데는 사격효과가 많을 것이 주안(主眼)이 되지만 이와 함께 부대 자체의 엄폐 이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조건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사계가 광활(廣濶)할 것
- 적을 감제할 수 있을 것(적을 향하여 완경사를 이룬 곳)
- 지면의 폭이 충분할 것(중대는 40 내지 100m의 정면을 가지고, 중대간에는 20~40m의 간격을 가지는 것이 편리하다.)
- 가능한 한 근거리의 지점에도 사격이 가능할 것
- 포차의 위치는 평탄하고 단단하며 또한 조감(鳥瞰)이 가능할 것
- 방렬할 때 정면은 가능한 한 사선(射線)과 직각을 이룰 것 (처음부터 이와 같은 아주 적절한 정면을 선정하는 것은 특히 긴요하며, 만약 다시 그 정면을 변환할 때는 사격을 중지하여야 되고 또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 적으로 하여금 포탄 낙하에 대한 관측을 곤란하게 할 것
- 진출입이 용이할 것(단, 방어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적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 단렬의 위치가 적당할 것(가능한 한 측방에 음폐한다.)

부대 자체를 음폐하기 위하여는 화포를 고지능선(배사면이나 방어진지)의 배후에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정면 앞쪽의 토질이 유연하던가 단절되어 아군의 행동이 크게 방해받지 않으며 이밖에 아군의 사격을 방해하지 않는 차폐물(나무 무더기, 담장, 제방 등)이 화포를 방렬한 위치에서 전방으로 100 내지 200m의 지점에 있으면 가장 유리하다.

이에 반하여 화포를 방렬한 곳이 척박(瘠薄)하거나 그 근방에 현저한 물체가 있으면 불리하다.

전위포병의 진지는 아군의 전개를 엄호하고 수용포병의 진지는 퇴각을 엄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진로의 근방 또는 퇴로의 측방에 이러한 진지를 선정할 수 있으면 매우 유리하다.

포병진지의 바람직한 요건은 앞에 제시한 바와 같으나, 대체로 이와 같이 완벽한 진지를 찾기가 실제로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이점을 가진 진지로써 만족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아주 좋은 진지를 구하려고 선정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때는 사격개시의 시기를 놓쳐서, 득(得)보다 실(失)이 많게 된다.

포격개시 시간이 늦거나 빠른 것이 전군의 승패에 크게 관계되기 때문에, 진지의 선정은 매우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되며, 진실로 포병의 책임자는 모름지기 그 안목(眼目)을 높여야 한다.

병사와 포차를 음폐하기 위하여 시간이 허락하면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어진지에서는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앞차와 탄약차를 엄호하기 위한 공사는 이미 준비한 진지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다.

몇 개의 중대가 하나의 진지를 점령할 때는 처음부터 정면을 적절히 제한하여, 뒤에 도착하는 포병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수개 중대가 점령하고 있는 진지에서는 지형과 풍향 그리고 예상되는 전황에 따라 모든 중대를 1선 혹은 제대(연대에는 대개 대대마다 제대를 이룬다.)를 구성하도록 배치한다. 제대(梯隊)는 상호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사격지휘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고 또한 그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앞의 제대에 피해가 미치지 않게 하며, 이는 포연(砲煙)이 바람에 따라 통상 인접 제대의 후방으로 지나가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정면의 지세가 매우 좁은 경우, 지형이 허락하면 방렬선(放列線)을 전후로 중첩하고 제대 단위로 사격할 수 있다.

## 第7節 陣地進入 및 陣地變換

### 1. 陣地進入

포병부대장은 선정된 진지에 머물면서 적을 주목하고, 중대장은 스스로 자기 부대를 이끌고 진지에 진입하는 것이 통상이다. (독립중대에 있어서는 중대장이 진지에 머물면서 적을 주목하고 제1소대장이 중대를 인솔하여 온다.)

진지에 진입하는데는 되도록 행군장경을 길게 하고 또 차폐물을 이용하는데 주의한다. 이를 위하여는 포차중대로 행군하여야 하지만, 음폐하여 진지에 접근할 수 없을 때는 되도록 광활한 정면을 취하여야 하고 적의 전면에서 자주 대형을 바꾸는 것은 피

하여야 한다.

전개는 되도록 사격권 밖에서 그리고 차폐물의 배후에서 실행하고, 적의 화력하에서는 가능한 한 측면 행동을 피해야 하지만 부득이할 때는 포차중대로서 하는 것이 좋다.

행군속도의 적용은 전투의 목적과 전황 그리고 지형이 관련되며 말의 힘도 고려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포차를 방렬진지에 도착시킬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적의 관측에 노출되지 않고 진지를 점령하여 불의에 사격을 개시하는 것이 유리하며, 음폐하여 진입할 수 없는 진지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한 행동이 요구된다.

진지진입에 앞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수개의 중대가 동시에 사격개시가 요구될 때 그리고 적의 사격하에 있으면서 방렬을 실시할 때는 진지에 근접하여 음폐하고 대기 위치를 점령하여 사격준비를 하고 정숙(靜肅)과 순서를 지켜서 진지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陣地變換

진지변환은 상급지휘관의 명령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으며, 그 시기가 필요하게 되면 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나 전황에 따라 신속하게 전진을 요할 때에 한하여 독단으로 조치하고 보고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진지변환은 포병이 그 효력을 일정한 시간 상실하기 때문에 전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진지변환은 시행하지 않는다.

진지를 변환할 때는 먼저 화포에 장전하고 탄약을 보충하여야

한다.

적의 정면에서 진지를 변환하는 경우, 2개 중대 이상에서는 통상 제대를 사용하고, 퇴각의 경우에는 독립중대도 역시 제대를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둔하고 있는 제대는 사격을 계속 실시한다.

진지변환시 새로운 진지의 선정은 제1진지에서와 같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대장은 이동할 부대보다 먼저 신속하게 나아가 곧바로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리 진지변환에 소요되는 지점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좋으며, 다만 인력만으로 가능한 사소한 위치변경 등은 진지변환이라고 하지 않는다.

퇴각시 진지의 선정은 부대장이 훈령(訓令)을 주어 1명의 장교에게 위임하는 것이 통상이다.

## 第8節 射擊指揮 및 射擊種類

### 1. 射擊指揮

포병부대장은 상급지휘관이 지시한 목표를 할당받아서 전투 방법을 결정하고, 전투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각종 전황에 대응하여 항상 주요한 목표를 사격할 수 있어야 한다.

전투 초기에는 통상 적의 포병을 목표로 하되 먼저 가장 아군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대를 목표로 선정하여 사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박멸하기 쉬운 것을 사격한다.

적의 보병에 대하여는 밀집부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 통칙(通

則)이며,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산병을 목표로 하되 포탄으로써 광범위하게 전선(全線)을 뒤덮어 버리는 것처럼 하여야 한다.

원거리에서 기병을 목표로 하여 성과를 올리려면 기병이 집결하는 시기를 노려야 하고, 그밖에도 고급사령부를 목표로 할 수 있다.

무릇 사격이란 목표를 변경할 때는 다시 시험사격으로 인하여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에 대하여 충분한 성과를 나타낸 뒤가 아니면 소홀히 목표를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위급한 경우에는 대대장이나 중대장은 독단으로 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

준비태세를 완비하여 불의(不意)에 나아가 일사불란한 지휘로써 동시에 사격을 개시하면 그 효과가 크게 증가한다. 수개 중대의 화력을 동일한 목표에 집중하면 신속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적병이 우세한 경우에도 역시 그 일부에 대하여 화력을 일시에 집중하여 효과를 나타내도록 시도하여야 한다.

적의 여러 부대에 피해를 주기 위하여 화력을 수개의 목표에 배분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 때이다.

대대장은 대대의 사격을 지휘하지만 가급적 중대장의 독립성을 저해하면 안된다.

## 2. 射擊種類

사격은 그 속도와 탄종(彈種)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한다.

가. 射擊速度와 관련한 射擊種類

사격속도와 관련한 사격종류는 완사(緩射)와 심상사(尋常射) 그리고 신속사(迅速射)로 세분된다.

【완 사】

완사는 발사할 때마다 중대장이 포차의 번호를 지명하여 실행하고, 그 속도는 일정하지 않으나 가장 완만한 사격이다.

【심상사】

심상사는 6문의 중대에서 대략 1발/15초(1분간에 약 4발)의 속도로 하는 사격으로, 발사시마다 탄착을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신속사】

신속사는 장전된 화포를 순서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는 사격으로, 그 속도는 6문의 중대에서 대략 1발/8초(1분간에 7~8발) 이상이 가능하며, 다만 탄착의 관측은 필요하지 않다.

그밖에 오히려 긴급히 방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장전하고 또 조준을 완료한 포차는 명령에 따라 바로 발사한다. 또한 소대나 중대가 동시에 사격하여 그 부대의 모든 화포가 일제히 발사하기도 한다.

이상의 사격종류는 전투의 목적과 시기에 관련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즉 지속적인 전투나 전투초기에는 완사 또는 심상사를 사용하고, 결전의 시기와 상승세를 탈 때 그리고 근접전투에서는 신속사를 사용한다.

그밖에 많은 화력을 동시에 집중해야 할 때는 일제히 사격하

고, 또한 이동하고 있는 적에 대하여 수정이 완료된 때는 기회를 보아서 특히 신속하게 방렬하는 것 등이 있다.

### 나. 彈種과 관련한 射擊種類

탄종과 관련한 사격종류는 착발사격(着發射擊)과 예광탄사격(曳光彈射擊) 그리고 산탄사격(霰彈射擊)으로 세분된다.

#### 【착발사격】

이 사격에는 유탄(榴彈)과 착발할 유산탄(榴霰彈)을 사용하는데 격심한 충돌에 의해서 파열되는 파편과 탄환을 통하여 효력을 나타내며, 이러한 사격의 이점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갑자기 발생하는 질은 연기를 통하여 탄착을 관측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시험사격에 적합하다.
- 장애물, 즉 가옥과 교량, 담장, 절벽 등을 파괴하는데 적합하며 유탄은 더욱 그러하다.
- 아군부대의 머리 위를 지나서 사격하는데 적합하다.
- 신관장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격전시에도 확실히 사용할 수 있으며, 견고한 지면에서 산탄사격의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예광탄사격】

이것은 예광탄(예화할 유산탄)을 사용하는 사격이며, 목표의 상공에서 파열시키는 방법으로 파편과 탄환에 의한 효력을 나타내며, 이러한 사격의 이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착발사격은 목표가 있는 지역의 토질이 유연한 때는 파열의 효력이 감쇄하지만 예광탄사격은 토질에 따른 제한사항이 없다.
- 예광탄사격은 살상위력이 현저하기 때문에 부대와 차폐물의 배후에 의탁한 목표물에 대하여 효과적이다.
- 사거리가 분명할 때는 그야말로 농밀(濃密)한 탄우(彈雨)로써 적을 집중 가격할 수 있다.

### 【산탄사격】

이것은 산발사격(散發射擊)으로, 사용이 간단하고 신속하므로 접근하는 적에 대한 방어용으로 사용하는데, 300m 이내의 거리에서 효력이 있고 평탄하고 견고한 지면에서 탄환이 뛰어오를 때는 그 효력이 두 배로 커진다.

## 第9節 砲兵의 掩護

### 1. 總 論

포병은 이미 그 성능의 항목(제2편 제3장 제3절 야전포병)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적의 습격에 대하여 스스로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고 미약한 적병이 접근하여도 아군의 포격이 쉽게 방해 받는다.

그러므로 포병은 일반적으로 배치에서부터 다른 병과로부터 자연히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협을 받는 포병부대의 근방에 있는 부대는 별도의 명령을 받지 않아도 통상 이를 지원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포병에게 특별한 엄호병력을 부가하는 것은 현명한 대책이 아니며, 포병이 일시적으로 다른 병과와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 2. 掩護兵力 및 兵科

엄호병력은 흔히 본대의 전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절감시켜야 하며, 그 병력규모는 포병부대의 대소와 위험 정도에 따라 동일하지 않다.

포병이 이동할 때는 엄호할 병과로서 기병을 선정하는데, 이는 기병이 수색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포병이 전투를 할 때는 보병을 선정하는데, 이는 보병이 능히 각종 전황에 대응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형과 전황에 따라 적의 산병이 은밀하게 접근할 때 등의 경우에는 보병이 아니면 대개 그 사용이 어렵다.

## 3. 掩護兵力의 行動

엄호병력은 포병의 이동간에는 위험이 많은 방향으로 행군하면서 수색하고, 포병이 전투시는 위험한 측방에서 가능한 한 차폐하여 위치를 잡고 그 방향을 감시하여야 한다.

엄호병력이 기병일 때는 멀리까지 수색을 실시하고 주력은 측방의 후면에 위치하여 내습하는 적병에 대하여 기회를 엿보아 습격할 태세를 취하며, 장기간 방어할 진지에서는 보병의 전법에

따른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엄호병력이 보병일 때는 측방의 앞쪽에서 적절한 진지를 점령하여 멀리서부터 적병을 저지함으로써, 그 화력이 아군의 포병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호병력의 일부는 적 기병의 급습에 대비하여 직접 포병을 엄호하기 위하여 포병에 근접하여 위치하며, 모든 엄호병력의 위치는 포병의 행동, 특히 그 사격임무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병이 사격을 중지하고 퇴각할 때 엄호병력은 포병이 완전히 위험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그 지점에 머물고, 만일 아군의 포병이 적에게 매우 가깝게 된 때는 분연히 이를 막아서 포병을 구출하여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엄호병력은 때때로 후위의 요령을 명심하여야 한다.

엄호병력은 그 임무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부질없이 교전하면 안된다.

## 第10節 攻擊과 防禦

### 1. 攻 擊

공격시 포병은 조우전(遭遇戰)이나 방어배치된 적에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행동이 다르다.

조우전에 있어서, 포병이 보병의 협력을 크게 받지 않고도 전투가 가능하면, 이는 지휘관에게 결단의 여지를 많이 부여한다.

공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처음부터 적의 포병을 압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동과 시험사격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선제(先制)의 이점을 점하는 좋은 수단이며, 이로써 적으로 하여금 회복이 불가능한 전세에 빠지게 한다.

아군이 전개하여 적을 먼저 제압할 수 있으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아군의 화포수가 대략 적과 균형이 될 때까지 맹렬한 포병전을 예비로 준비한다.

방어배치된 적에 대한 공격은 전개한 후에 전투를 개시하는 것이 통칙이며, 이때에도 역시 사격의 우세를 점하지 않으면 그 성과를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포병을 진지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적의 포화에 의한 피해를 벗어나기 위하여 야음을 이용하여 적에 접근할 필요성은 보병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무릇 포병은 공격전투의 종류 여하에 구애받지 않고 우세한 화포를 구비하여 전투를 개시하여 적의 포병을 위축시키고, 지휘관으로부터 공격지점에 대한 지시를 받으면 그 지점을 향하여 사격을 집중하여야 한다. 만일 측방으로부터 이 지점을 사격할 수 있으면 능히 피아를 판별하여 탄착점을 관측하고 또한 아군에 위협이 미치지 않게 하면서 오랫동안 진지변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으므로 이 기회에 포병의 일부는, 특히 아군 공격부대에겐 손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적의 포병에 대하여 사격하는 경우가 있다.

아군의 보병이 공격을 개시한 후, 아군 포병에 대응하는 적의 포병이 새로 출현하거나, 다시 전투를 개시하더라도 아군 포병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사격의 주력부대로서 보병의 공격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화력을 적의 진지 후방에까지 미치게 함으로써 적의 예비대가 증원해 오는 것을 곤란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일부 포병은 보병을 수행하여 근거리에서 접근하여 맹렬히 사격할 경우 공격부대에 대한 지원이 되면서 보병의 사기를 크게 발휘하도록 하기 때문에, 설령 포병을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할지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공격의 성과를 올리게 되면 포병의 일부는 탈취한 진지에 신속하게 진입하여 보병을 지원하고 사격으로써 제일 먼저 추격을 담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포병부대장의 독단으로써 진지를 변환할 시기이다.

또한 패퇴하는 적이 이미 아군의 유효 사정권을 벗어나게 되면 정식 추격으로 이전하며, 포병은 집결하여 신속하게 접근하여 적으로 하여금 새로이 진지를 점령하지 못하게 한다.

공격이 성과를 올리지 못한 때는, 특히 가장 늦게 진출하였던 포병으로 하여금 퇴각할 보병을 수용하고 역습을 격퇴하도록 한다.

## 2. 防 禦

방어에 있어서도 포병의 전투는, 통상 먼저 적의 포병에 대하여 사격을 개시하고 최초부터 모든 포병을 동원하여 사격의 우수를 기대하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적의 공격방향을 예견할 수 없을 때, 최초에는 전투를 개시할 포병만을 구축된 방렬진지에 투입시키고 기타는 진지의 중앙이나 긴요한 지점의 후방, 즉 화력증원에 응하기 위하여 교

통이 편리한 곳에 수용하고, 적의 공격방향을 통찰함으로써 가능한 한 적의 포병에 앞서 방렬진지를 점령하여 선제의 이점을 차지하여야 한다.

사격 개시는 통상 지휘관이 명령하며, 성급하게 너무 먼 거리에서나 소규모부대에 대하여 사격을 개시하는 것은 피하여 적에게 조기에 아군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의 보병이 공격을 위하여 전진하기 전에는, 그 포병과 대전하고 보병이 이미 전진하고 있으면 적의 포화를 고려하지 않고 또 차폐물도 제거한 가운데 적 보병에 맹렬한 사격을 가하여 전진을 막는 것이 특히 긴요하며, 동시에 적의 포병에 대하여서도 사격을 가한다.

적의 보병공격이 개시되기 전에는, 적 포병이 우세하여 포병전을 계속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포병은 일시적으로 적 포탄에 의한 손해를 피할 수 있으나, 만일 적이 전진하여 결전을 기도할 때는 특별한 명령이 없더라도 모든 포병은 적의 포화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출하여 적 보병을 맹렬히 사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어상 이점이 없어도, 포병의 일부는 적이 침투하려는 진지에 포병이 진입하는 것을 막고 다른 일부는 돌격하려는 보병에 대하여 포탄을 대량으로 퍼붓고, 예비대와 협조하여 적을 진지로부터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최후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태연하고 동요하지 않으면서 적과 대전함으로써 다른 병력의 퇴각을 엄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비록 포차를 손실하는 지경에 이르러도 오히려 빛나는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다.

명령에 따라 포병이 퇴각하여 수용진지(가능한 한 측방이나 애

로의 후방에 선정한다.)를 점령하도록 할 때는 교전중 전투력 소모가 적었던 부대, 즉 통상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은 포병부대가 담당하여 적을 맹렬히 사격함으로써 추격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방자(防者)가 공자(攻者)를 격퇴하게 되면, 포병은 그 화력으로써 맹렬하게 적을 추격하여야 한다.

### 第11節 砲兵의 彈藥補充

방렬한 포병은 제1단렬(段列)로부터, 제1단렬은 제2단렬로부터 그리고 제2단렬은 포병탄약종렬(縱列, 중대 및 종렬의 탄약수량은 군제학을 참조한다.)로부터 탄약을 보충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시기를 당하면 중대장은 연대장에게 보고하여 그 명령에 따라 다른 중대의 제2단렬로부터 탄약을 보충할 수 있으며 또한 전황에 따라 급속한 보충이 필요하면 특별하게 종렬에 있는 탄약수레를 전선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포차의 앞에 준비한 탄약은 긴급할 때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완전한 상태로 비축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탄약차의 탄약을 제일 먼저 사용한다.

야포의 경우, 방렬하고 있는 탄약차의 가용탄약에서 절반 정도를 소모하면 그 책임자인 반단렬장(半段列長)은 중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중대장은 제2단렬의 탄약차를 제1단렬이나 방렬에 보내고 빈 탄약차는 제2단렬로 오도록 한다.

산포(山砲)의 경우에는 제1단렬로부터 6개 탄약마를 포차대에 부속하며, 포차에 속한 탄약마의 탄약을 제일 먼저 사용하고 탄

약이 거의 소모되면 제1단렬로부터 다시 6개 탄약마를 이르게 하고 방렬의 빈 탄약마는 분대장의 지휘하에 제2단렬에 이르도록 하며, 제2단렬의 책임자는 별명이 없으면 바로 6개 탄약마를 제1단렬에 보낸다.

대체로 보충탄약의 도착 여부가 전투의 승패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큰 이유는 이미 보병의 탄약보충 조목(제3편 제1장 제10절 보병의 탄약보충)에서 기술하였으나, 포병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포병의 전투는 오직 '사격'이라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 뿐이므로, 사격으로 탄약이 바닥나면 일시적으로 완전히 전투력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그러므로 포병은 탄약이 부족하여도 퇴각하지 못하고 진지에 머물러서 보충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탄약보충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 第 4 篇



## 諸兵科의 聯合



## 第1章

.....

### 總 論

제병과의 성능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병과는 작전간에 그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고 완급 등에서 상부상조하면서 각자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유일한 목적인 바로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약하는 것이다.

## 第2章

.....

### 兵科聯合의 利害

#### 第1節 歩兵이 騎兵을 연합할 경우

보병을 주력으로 하여 기병을 연합하는 부대는 수색과 경계에 모두 이점이 있다. 그러나 포병을 보유한 적과의 전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취약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볍고 민첩한 행동을 통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부대에서만 사용되는 형태이다.

## 第2節 歩兵이 砲兵을 연합할 경우

보병을 주력으로 하여 포병을 연합하는 부대는 전투력이 크게 증강되고 또한 구축된 진지와 견고한 가옥 그리고 장애물 등에 의탁한 적을 공격하는 경우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병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적상황을 알 수 없어 적의 급습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시종 불명확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므로, 기병을 보유한 적에 대하여는 마치 맹인(盲人)이 정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게 된다.

그밖에 매우 빠른 추격에 의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는 불리한 점도 있다.

## 第3節 騎兵이 歩兵을 연합할 경우

기병을 주력으로 하여 보병을 연합하는 부대는 탄탄한 지원능력을 가지며 음폐되거나 단절된 지역에서도 역시 독립작전이 가능하지만 기동이 완만한 보병으로 시종 기병과 연합하게 할 때는 기병이 지닌 바 장점인 기동성의 이점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병을 탐승하도록 하든지 혹은 애로를 수비하여 기병의 퇴각을 보호하도록 하든지 간에, 보병은 초기에만 사용될 뿐이고 또한 기병은 부득이할 때는 바로 보병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병과 연합하는 경우는 점점 적어지고 있다.

## 第4節 騎兵이 砲兵을 연합할 경우

기병을 주력으로 하여 포병을 연합하면 기병으로서 막강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게 되고 또한 수색에 있어서도 적의 병력을 노출시켜서 추격하기가 편리하지만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기병이 그 행동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 보병과 연합할 때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기포병(騎砲兵)이 없는 군대에서는 거의 없는 형태이다.

## 第5節 結 論

이상의 각 절에서 관찰해 보면 제병과가 연합하지 않으면 작전상의 조직체가 완벽을 기하지 못하므로 군의 대단위인 사단(師團) 및 독립하여 작전하는 부대는 반드시 제병과로써 편조(編組)하는 것이 통칙으로 되어 있다.

## 第3章

.....

# 大單位部隊<sup>14)</sup>

## 第1節 一般的인 編制

1개 병과로써 편성된 최대 단위부대는 보병여단이며, 제병과가 연합한 단위부대는 사단이다.

독립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구비한 사단 및 여단의 일반적인 편제는 군제학을 참조한다.

## 第2節 枝隊編成을 위한 諸兵科 臨時聯合 要領

작전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부대로부터 일시적으로 병력을 할당받아 지대를 편성하는 일이 때때로 있는데, 지대는 앞에 기술한 제2장(병과연합의 이해)의 요지에 따라 제병과를 거느리는 것이 통상이다. 다만 어떤 병과를 ‘주(主)’로 하고 어떤 병과를 ‘종(縱)’으로 할 것인가는 지대의 임무와 지형에 따르는 것이다.

---

14) 대단위부대(大單位部隊) : 원문에는 제3장과 제4장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의 분량이 매우 적으므로 편의상 1개 장으로 묶어서 각각 절(節)로 재편성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지대 편성의 요령은 지대의 목적과 임무에 필요한 병력 규모를 초과하지 않을 것과 가능한 한 견제부대를 분할하지 않는 것이다.

## 第4章

.....

# 戰鬪序列 및 軍隊區分

## 第1節 戰鬪序列

전투서열은 칙령(勅令)으로 전군(全軍) 혹은 군의 일부에 그 군의 편제를 명시하는 것으로서 이로부터 모든 전쟁 중에 통어 및 경리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다.

전군은 몇 개의 군으로 구성되고, 1개 군은 몇 개의 사단으로 구성되며, 또한 그 명칭 등도 적당한 시기에 칙령으로 정한다. 군의 대단위는 통상 사단으로 하고 사단의 전투서열은 평시부터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제1사단으로 하나의 예를 들었다.(생략되었다.)

## 第2節 軍隊區分

군대구분은 부대의 지휘관이 작전 및 전술상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그 부대를 임시로 구처하는 것으로, 가령 전진하기 위하

여는 그 부대를 수색기병, 전위, 측위 그리고 본대 등으로 구분한다.

부대가 주둔시는 전초와 본대 등으로 구분하고, 전투시는 우일선부대와 좌일선부대 그리고 예비대 등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구분은 전투서열에 기초하여 가능한 한 견제부대를 분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第 5 篇

---

# 命令 및 報告



## 第1章

# ..... 命 令

### 第1節 通 則

고급지휘관이 부대 통솔과 관련하여 하달하는 명령은 문서로 하는 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명령의 책임자가 가령 구두로 하달할 때라도 이를 받아서 필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간단한 사항을 명령하고 각자에게 단일 임무를 부여할 경우는 명령을 구두로 하달하거나 혹은 이를 생략하고 구령으로 알리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명령을 작성함에 있어 주의할 요건은 대략 다음과 같다.

- 명령은 간명하고 확실하며 또한 명령 수령자의 지식수준에 적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작성함에 있어서 항상 명령 수령자의 위치에 입각하여 명령사항을 여하히 이해할지를 깊이 잘 생각하여야 한다. 명령 수령자의 오해는 명령자의 과오와 실수로부터 많이 생기는 것이다.
- 명령은 순서를 명백히 확립하여야 하는데, 합동명령, 즉 모든 부대의 행동을 포괄한 장문의 명령은 1호, 2호, 3호 등으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중요한 사항이 앞에 오도록 하며 그 사항과 동일한 종류의 것은 동일한 일련번호 중에 기입하여야 한다.

- 명령에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명령 수령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결단할 수 없는 사항이 있으며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에 한하여 기재하여야 하지만 하급지휘관의 직권 사항에 간섭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실사가 불가능한 사항은 결코 명령으로써 규정하면 안된다.
- 억측과 소망사항 기타 먼 장래의 상황을 예상하는 것과 같은 사항은 명령중에 첨가하면 안된다. 만일 현재의 상황이에 맞지 않을 때는 신뢰를 잃으며 또한 명령의 이유를 결코 구체적으로 예시하여서는 안된다. 작성된 명령이 타당하다면 그 이유는 스스로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그밖에 오히려 명령상 용어 등에 관한 것은 요무령의 통신통칙을 참조한다.

무릇, 애매모호한 명령은 오해를 초래하므로 엄격하고 확실하지 않은 명령이 발동되면 그 사람의 권위가 실추되며, 만일 명령하달이 성실하지 못하여 자주 명령을 변경하고 또한, 특히 부대에 부담만을 주게 되면 부대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린다.

복잡하고 긴 명령은 부하들이 통상 그 요령을 터득하기가 어려우며, 지나치게 간단하면 간혹 그 의도를 다 받들지 못하게 된다.

또한 명령이 그 부하의 직권을 간섭하면, 그 행동이 묵이고 또한 스스로 분발하려는 의지가 꺾여서 방치하거나 그 목적을 그르치게 된다.

따라서 명령을 하달하는 어려움이 평상시에도 이러한데 하물며 전시의 잡다한 일로 바쁠 때에는 재언할 필요가 없으므로, 명령을 내리는 자는 마땅히 주의하여야 한다.

## 第2節 命令의 種類

전시에 사용하는 명령은 작전명령(作戰命令)과 일일명령(日日命令)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이밖에 훈령(訓令)도 명령의 범위에 속한다.

### 1. 作戰命令

이 명령은 작전에 관한 명령으로서, 부대의 단대호를 상단에(某師團命令, 某旅團命令 등) 혹은 군대구분으로 편성한 부대의 명칭을 상단에(前衛命令, 枝隊命令 등) 기입하고, 또한 발령의 월일시각(오전/오후 몇시 몇분)과 발령기관인 모부대의 모부처를 명령의 하단에 기입하는 것이 통상이다.

무릇, 부대는 작전명령에 따라 행동하며, 그 명령은 대략 다음과 같은 조항을 차례로 포함시킨다.

- 적상황(단, 명령 수령자를 위한 긴요한 사항으로 제한한다.)
- 아군의 목적 개요(이것은 명령 수령자가 일반적인 목적을 알면 협동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노력할 수 있다.)

다음에는 군대구분에 따라 가능한 한 각 부대의 임무를 지시하는데, 예를 들면 전진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이 다음과 같다.

- 수색기병에 관한 규정
- 전위에 관한 규정

- 측위와 측지대(側枝隊)에 관한 규정(단, 그것이 설치되어 있을 때)
- 본대에 관한 규정
- 부피가 커다란 물품에 관한 규정
- 치중부대에 관한 규정(단, 부대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
- 행동을 발기(發起)한 발령자의 소재지

이밖에 발령자는 명령문의 말미에 서명하여야 한다.

전투 및 부대의 주둔을 위한 명령도 대략 이와 같은 방식에 준하며, 그 상세한 것은 하권에서 기술한다.

군대구분은 명령문과 명백하게 구별하여 기재함으로써(靛紙나 半紙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앙에 1개의 횡선을 긋고 위에는 군대구분을, 아래에는 명령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는데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두명령에서는 군대구분에 따라 편성된 각급부대의 임무를 지시하는데 먼저 적상황 및 아군의 목적을, 다음에 군대구분을 설명하여야 한다.

소규모부대에서는 군대구분을 특별히 지시하지 않고 가령 ‘모 부대를 전위에 임명하고 기병은 누구를 붙인다’라고 명령하여 간단하고 쉽게 한다.

군대구분에 따라 편성된 전위와 후위 등을 위해서는 먼저 그 책임자를 지시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모든 부대를 전투서열 즉 보병, 기병, 포병, 공병의 순서에 따라 열거한다.

본대에서도 편의상 그 부대를 행군서열에 따라 열거하는데, 그

러한 때는 본대의 제목 아래 ‘同한 行軍序列’이라는 6자를 괄호 안에 함께 부기(附記)하여야 하며, 이들은 상급지휘관의 명령하에 속하기 때문에 본대에서는 그 책임자를 지시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다.

## 2. 日日命令

이 명령은 부대의 내무생활, 인사와 경리 등, 즉 작전과 직접관계가 없는 명령으로서 그 사단의 일일명령 또는 모여단의 일일명령이라 부르고 작전명령과 구분하여 별도로 하달한다.

## 3. 訓 令

훈령은 아군의 목적을 대강(大綱)만 열거하고 그 실시부대에 충분한 자유를 부여하는 명령문으로, 최고사령부<sup>15)</sup>로부터 군사령부에 그리고 군사령부로부터 사단사령부에 하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개는 예하부대가 매우 크면 독단으로 진행(專行)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또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간섭도 적어져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1개 부대를 며칠 동안 멀리 파견하고서 수시로 특별한 명령을 하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파견중에는 단지 그 부대장의 의견으로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때는 오직 그 달

---

15) 최고사령부 : 원문에는大本營(大本營)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제국 일본의 최고 통수부를 가리키므로 통상적인 개념인 ‘최고사령부’로 수정하였다.

성할 목적과 달성함에 있어서 적당한 수단을 교시(敎示)하는데 그쳐야 하며 이러한 교시도 역시 일종의 훈령이다.

훈령으로 된 것은 명령에 비하면 명확도가 낮은데, 이는 훈령의 실행방법을 결정하고 또 훈령에서의 조건을 실제로 취사선택하는 것은 명령 수령자의 권한내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第2章

.....

### 報告(通報 포함)

통보는 상급사령부로 하는 ‘통지(通知)’와 그밖에 인근의 각급 사령부 그리고 각 관계관 등에게 상호 실제로 경험한 상황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보고는 하나의 임무를 담당한 자가 그 임무를 부여한 자에게, 그리고 보고자의 상급 관계자에게 알아야 할 사항을 고(告)하여 알리는 것을 말한다.

보고도 역시 보통의 경우 문서로 하며, 명령에서와 같이 간략하고 취지가 명백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용어 등은 요무령의 통신통칙에 의거한다.) 통상적으로 다음에 기술한 두 가지의 요지를 구비한다.

- 피아에 관한 과거 및 현재의 상황
- 보고자의 장차 시행하고자 하는 조치

시기적으로 지연됨이 없이 확실하고 정확한 보고를 전달하는 것은 작전상 가장 긴요한 하나의 수단이므로 그 연습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

보고의 취지는 사실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이 중요하며, 경박하고 소홀하거나 근거가 없는 보고는 군기를 흐트치는 대죄(大罪)이므로, 무릇 보고자는 스스로 목격한 사안과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 그리고 억측에서 나온 것을 명백하게 구별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올려 보내야 한다.

일정한 기간 중에 형세변화가 없거나 그 지역에서 아직 적병을 발견하지 못한 사항 등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는데, 대개 이와 같은 사실들이 지휘관에게는 때때로 긴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릇, 보고에는 보고자의 서명과 파견지의 명칭 그리고 시각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이를 누락시키면 그 보고가 접수자에게는 효용이 없게 된다.

보고서와 그 봉투는 지정된 양식(요무령에 규정되어 있다.)으로 된 것을 사용하나, 이러한 것들이 만일 없거나 또 시기가 급한 경우에는 수첩의 종잇조각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 第3章

.....

## 命令 및 報告의 傳達

명령 및 보고는 거리의 원근(遠近)과 기타 상황에 따라 전기통신(電氣通信)과 문서 혹은 구두로써 전달하되,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문서화하여 전달하는 것이 규칙이다.

구두로써 명령 및 보고를 전달하도록 할 때는 전령이 출발하기 전에 복창(復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전령을 사용시 임무의 경중(輕重)에 따라 장교나 하사 혹은 병사를 단독으로 가도록 하거나, 도중에 위험요소가 있을 것 같으면 약간의 호위병을 대동시키고 또한 긴요한 명령이나 보고는 그때의 사정에 알맞게 2, 3통을 만들어서 여러 경로(經路)를 이용하여 몇 명의 전령으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하는데, 다만 그 발송하는 전체수량을 문서상에 기재하면 안된다. 이는 적에게 문서를 탈취당하여도 전체수량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명령 및 보고서를 적에게 탈취당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파괴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미리 전령에게 문서내용의 취지를 설명해 두어야 한다.

명령 전달과정에서 형세가 변하여 보내고 있는 명령내용이 이미 기회를 잃어서 실천에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경우에는 명령 수령자에게 당시의 형세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는 때때로 전달과정에서 다른 사령부 등에 알리는 것이 적절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전달자에게 별도로 알려 주어야 한다. 명령 및 보고의 전달자의 속도는 다음의 규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승마 전령의 속도】**

문서낭(文書囊)에 1개의 ‘十’자형(字形) 표시가 있을 때는 속보와 상보(常步)를 혼용하고(평균 7분간에 1km), 2개의 ‘十’자형일 때는 속보를 사용하며(평균 5분간에 1km), 3개의 ‘十’자형일 때는 말의 속도를 최대한로 하여 가능한 한 신속함을 요한다. 구두로 전달할 때에도 전령에게 명령할 때에 普(十), 急(十十), 至急(十十十)을 구별해 준다.

**【도보 전령】**

도보 전령의 속도는 지형의 난이도와 거리의 원근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만, 대략 다음과 같다.

普(十)는 속도가 평균 12분간에 1km이고, 急(十十)은 구보와 속보를 혼용하여 평균 9분간에 1km이며, 至急(十十十)은 오직 근거리에서만 사용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구보로서 간다.

**【체기초(遞騎哨)】**

거리가 먼 곳에 명령 및 보고를 전달함에 있어, 야전전기통신 시설 등이 없을 경우에는 체기(遞騎)<sup>16)</sup> 노선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일시적 목적을 위하여 약간의 기병으로써 체기초를 설치하며, 체기초 상호간의 거리는 8km를 초과하지 않는다.

---

16) 체기(遞騎) : 먼 곳에 명령이나 보고를 전달하는 기병(騎兵)을 말한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서 설치되는 체기초는 하사 1명과 병사 6명 내지 10명으로써 편조(編組)하고 앞의 8km보다 장거리에 설치한다.

**【체보초(遞步哨)】<sup>17)</sup>**

부대가 산악지대에 위치하거나 기병을 보유한 부대가 전무할 경우에는 먼 곳에 명령 및 보고를 보내기 위하여 체보초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통칙은 체기초와 다름이 없다. 체보초간의 거리는 지형과 시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4km를 초과하지 않는다.

---

17) 체보초(遞步哨) : 원문에는 체기초로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기(騎)’를 ‘보(步)’로 수정하였다.

## 第 6 篇

---

### 搜索勤務



## 第1章

.....

## 總 論

일반적으로 적의 상황을 획득하는데는 광범위하고 멀리 수색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색근무는 오로지 기병만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적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기병이 독립하여 수색임무를 수행하며, 이를 수색기병(搜索騎兵)이라고 부른다.

적과 점차로 근접하게 되면, 통상 기병은 경계부대에 소속되어 수색임무를 수행하며, 행군시는 전위기병(前衛騎兵) 주둔시는 전초기병(前哨騎兵)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수색을 위하여 척후(斥候)를 운용하고 수색의 목적에 따라 무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수색의 간접수단도 사용한다.

수색근무는 행군이나 주둔으로 점차 그 임무를 마치게 되므로 이하 절(節)로 나누어 기술하고, 다음(제2장)에 기술하는 척후 등의 업무와도 상이한 것이다.

## 第1節 行軍時 搜索勤務<sup>18)</sup>

### 1. 騎兵의 任務

수색기병은 행군중대 지휘관의 직접 관할에 소속되어 독립적으로 멀리 행군중대의 전방에 나아가며, 그 임무는 적정을 수색하고 상황을 살피며 또한 동시에 아군의 행동을 엄폐하는데 있다.

대개 기병은 광범위하고 먼 지역을 수색하므로 진퇴의 행동이 언제나 구속받지 않고 자유스러워야 하는데, 그 정도는 후속부대와 연관되는 일이 적을수록 증진되며, 이는 독립적으로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군중대의 지휘관은 기병을 눈이나 귀처럼 운용하여, 이 들로부터 획득되는 보고사항을 자세히 조사하여 아군의 임무 및 부대 전체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것이 바로 기병을 직접 관할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피아가 점점 근접하게 되어 전방에서 활동하는 기병이 전투를 시작하여 적의 전위를 유인하고 교전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전과 다르므로 수색과 전위로서 전투개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긴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기에는 행군중의 기병 대부분을 전위와 후위부대장의 지휘하에 전위기병과 후위기병으로서 수색을 담당하도록 하며, 근무원칙은 적군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와 다른 점이 없으나 다만 그 행동의 범위가 축소될 뿐이다.

18) 수색근무(搜索勤務) : 원문에는 ‘수색근’으로 되어 있어, ‘무’를 삽입하여 수색근무로 하였다.

## 2. 騎兵의 區分

이상의 요지에 따라 형세가 허락하면, 기병은 가능한 한 그 주력으로써 수색기병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구분은 시기와 지형에 따라 기병부대장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통상의 경우에 부대 병력의 1/3 내지 1/4을 차출하여 전위를 구성하고, 전위는 그 1/3 내지 1/4을 차출하여 전병(前兵)을 구성하며, 여기서 또한 첨병(尖兵)을 차출한다.

만일, 수색기병의 병력이 1개 중대에 지나지 못할 때는 통상 전위만 두고, 여기서 첨병만을 차출한다.

이밖에 기병부대의 대소를 불문하고 각 제대로부터 소요에 따른 척후 또는 부대를 측방에 내보낸다.

## 3. 搜索正面

수색정면의 너비는 지형과 도로의 관계, 기타 기병의 다소 그리고 행군중대의 대소 등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수색기병은 엄호할 행군중대의 전방뿐만 아니라 측방의 위험한 지역도 수색하는 것이 불변의 원칙이다.

## 4. 遠隔의 範圍

수색기병이 본대와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거리도 일정하지 않으나, 행군중대의 지휘관이 되도록 빨리 적의 상황을 탐지하고자

할 때는 원거리 수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황이 허용하면 그 거리는 며칠이 걸리는 행정(行程)을 가진다.

기병이 전위에 속할 때는 배후의 보병부대와 연락이 절대로 단절되면 안되지만, 뒤에 따라오는 보병과 일정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바랄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기병은 상보(常步)로 행군하여도 보병과 점점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억지로 행군속도를 단축하려 들면 마필이 아주 피로하게 되어 기병의 성능을 해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병은 상보와 속보를 교대로 하되, 원격의 기준은 후속하는 보병과 연락을 유지하는 범위내에 있는 것이다.

적병이 점차로 근접하여 전위의 다수 기병이 이미 전방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게 되면, 소요의 병력만 남고 나머지는 장차의 행동에 적당한 위치(아군의 측면을 엄호하고 적의 측면이나 배후를 수색 또는 위협하며 또한 전투배치에 가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 5. 敵騎兵과의 遭遇

일반적으로 기병이 아주 약한 적의 기병과 조우하면 주저하지 말고 이를 구축하면서 계속 전진하여야 하며, 적의 기병진지가 견고할 때는 우회하거나 잠입 등의 가능한 수단을 다하여 수색을 계속하면서 보병의 지원을 기다려야 한다.

보병이 도착하기 전에 적기병에게 구축되든지 또는 적보병에게 제압당하게 되면 조금씩 퇴각하여 마침내 본대에 가까이 이르면 뒤에 있는 병력에게 정면을 개방하여야 한다.

퇴각중이라도 일단 적군과의 접촉은 끊지 않고 끝까지 주의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또한 적과 충돌한 후 기병이 오로지 노력해야 할 것은 적의 후속부대의 병과와 병력규모를 탐지하는데 있으며, 전투 수행을 망각하여서는 안된다.

## 第2節 駐屯時 搜索勤務

행군간에 독립하여 수색에 종사하는 기병은 주둔시에도 통상 전위와 멀리 떨어져서 의연히 독립하여 숙영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통상 전초보병과 전초를 혼합편성하기 때문에 주둔시 수색근무는 전초의 조항에서 기술한다.

## 第3節 威力搜索

통상적인 수단을 가지고서 적상황을 수색할 수 없을 때는 부득이 강력한 보병부대와 포병 그리고 기병을 부가하여 공격(위력수색)을 실시하는데, 이와 같은 종류의 수색부대는 가능한 한 비밀리에 행동하여 적에게 접근하고 적의 관측에 포착되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공격하든지 혹은 포격만으로써 적의 병력이 노출되도록 힘써야 한다.

수색부대는 대개 전투에 그 근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색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면 차후의 목적에 따라 신속하게 전투지역을 이탈하고 혹은 본대가 실시할 전투에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전투로부터 획득한 수색효과를 완전히 살리는 것은 수색결과를 바로 이용하는데 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주저하면 적의 상황이 홀연히 변경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수색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퇴각하면 아군부대에 패퇴의 느낌을 일으키게 하고 또 획득한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생긴 손해의 보상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가 많으며, 이 전투에 개입하게 되는 후방부대는 상급지휘관의 의도에 반하여 전투에 참여하는 과오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전투를 개시하기에 이를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색을 위한 위력의 사용은 아군이 계획하는 총공격을 개시하는 시기로 한정하여야 한다.

#### 第4節 搜索의 間接手段(搜索補助手段)

수색에는 직접적으로 적을 수색하는 방법 외에, 오히려 여러 가지 간접방법이 있다. 즉, 간첩을 이용하거나 포로, 투항자, 주민 그리고 여행자들을 심문하거나 혹은 문서를 탈취하고 혹은 여러 징후를 살피는 것 등이다.

##### 1. 間 諜

간첩이란 민간인이나 복장을 바꾼 군인으로서 적 지역이나 진지에 잠입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내오는 자들을 모두 일컫는다.

간첩은 꾀계(詭計)를 쓰고 교활한 지혜를 발휘하며,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를 무릅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간첩의 효용이 어떠한가는 오로지 인재의 획득 여부에 관계되므로, 인재를 얻었을 때는 적군의 상황을 정밀하게 알도록 하여

마침내 적군 전체의 비밀사항까지도 발견할 수 있되, 다만 병력의 배치 등과 전술상의 사항을 확실히 알려면 장교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장교가 아닌 간첩에게는 최초 용이한 사항을 명령하여야 하고, 이미 간첩 업무에 익숙하더라도 동시에 여러 건을 명함으로써 번거로워서 감당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부여하는 명령은 정확하고도 항시 구두로써 설명하며, 문서로써 부여하는 경우는 오직 적을 기만하고자 할 때, 즉 이중간첩을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많은 사항을 탐구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확실한 정보를 얻으려면 동시에 여러 명의 간첩을 사용하고, 그 임무를 분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군의 기도가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므로, 추가하여 쓸모가 없는 사건을 각 간첩의 임무에 첨가한다.

또한 하나의 긴요한 사항을 탐구하려면 몇 명에게 명하여 그 보고된 상황을 서로 대조하여 허실을 연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들이 서로 간첩임을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첩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간첩이라는 사실을 주변사람들도 모르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또한 간첩을 접대함에는 내심으로는 경계하고 삼가며 외면상으로는 온화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환심을 잃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대개 난폭하게 간첩을 대하면 효과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것이다.

## 2. 捕虜, 投降者 및 戰場遺棄의 負傷者

이들을 심문함에 있어 그 진술내용이 거짓이 아니면 위엄보다는 차라리 관대하고 따뜻이 대해 주어야 한다. 만일, 심문자가 적지(敵地)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으면 문답은 자연스럽게 대화형식으로 바꾸어서 대화중에 중요한 사건을 탐지하며, 심문할 사건은 피심문자(被尋問者)의 귀천과 지혜로움이나 어리석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다음과 같다.

소속부대와 그 부대에 연계된 타부대, 상급사령관의 성명, 전날 밤의 숙영, 행군상태, 장차의 행동에 관한 명령 또는 소문, 탄약과 식량의 다소, 사기의 상태, 급양의 만족도 그리고 질병 및 부상자의 다소 등이다. 다만, 그 응답의 진위를 명확히 관찰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심문은 이들이 아군에 의하여 수습될 당시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그들의 심지(心志)가 낭패하여 자신을 지키는데 미처 겨를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며, 피심문자로 하여금 숨기고 말하지 않으려는 것까지도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실로 심문자 개인의 기량에 달려 있는 것이다.

## 3. 住民 및 旅行者<sup>19)</sup>

주민 및 여행자에 대하여 심문하는 조건도 전항(2항)과 대략 동일하다.

---

19) 이 항은 7번째가 아니고 3번째의 항이므로 수정하였다.

주민에 있어서는 관리(官吏), 교사, 승려, 마을의 유지 또는 적을 위해 종사하다가 인질이 된 자를 가려서 심문하여야 하고, 때로는 아동으로부터 쉽게 중요한 사항을 얻을 수 있는데 아동은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사실을 말하기 때문이다.

여행자는 먼저 그 직업과 오게 된 경로를 심문하되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

주민과 여행자로부터 얻는 정보 가운데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 많다. 특히, 병력수 같은 경우 실제보다 많이 말하는데, 미국의 부트렌(Buttren) 장군은 “주민이나 여행자는 적의 병력수를 실제보다 4배 내지 6배로 말하는 것은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증한다.”라고 하였다.

#### 4. 文 書

전시에 민간 거주지에 들어가는 부대장은 그 지역의 신문(新聞)과 아울러 우편전신국 및 공사(公私)의 우편함에 있는 서신 기타 관청의 모든 서류들을 탈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정확한 적의 상황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가 때때로 있기 때문이다.

#### 5. 各種 徵候

징후에 따라 적의 기도나 동정을 추정하여 알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적측의 주민이 불손하고 아측의 주민이 두려워하는 것은 모두 적군이 그 부근에 있든가 또 적군이 많다는 징후이다.

먼지나 연기의 방향과 그 농도 및 고저는 병과의 종류나 행군 방향을 아는데 충분하다. 즉, 먼지나 연기가 농밀하면서 낮은 것은 보병부대의 징후이고, 담박(淡薄)하면서 높은 것은 기병부대의 징후이며, 가장 조밀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것은 포병부대의 징후인 것이다.

적의 진영에서 취사시 연기의 소밀(疏密)과 화투불의 빛 그리고 그 병력수로서 적의 상황을 살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이 퇴각을 비밀로 하기 위하여 화투불을 오히려 크게 하는(버려진 모닥불) 등에 걸코 속으면 안된다.

차량의 굉음(轟音)과 말의 울음소리 그리고 개가 계속 짖어대는 것은 대개 부대가 통과하고 있다는 징후이다.

사람의 발자국, 말발굽자국 그리고 수레바퀴자국 등으로 적의 병력과 편조 및 행군방향을 대략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적군의 군화 밑바닥과 말굽쇠의 종류 그리고 수레바퀴 간격의 광협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타 물가에 도강용 자재를 모으는 것은 물을 건너가려는 징후이고, 도로를 파괴하는 것은 전진할 의사가 없다는 징후이다. 또한 적군이 이른 아침부터 공격해 오면 그 공격이 군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저녁에 공격할 때는 오직 아군의 정황을 탐색하든지 혹은 그들의 퇴각을 비밀로 하려는 징후가 된다. 이러한 사항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미처 겨를을 내지 못하므로 마땅히 사태에 직면하여 그 징후를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第2章

.....

## 斥 候

일반적으로 척후는 수색을 주된 목표로 삼아 당시의 필요에 따라 수색부대나 경계부대 그리고 본대로부터 파견된다.

척후도 또한 가능한 한 광범위하고 먼 지역을 수색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병으로써 담당하게 하지만, 지형이 기병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수색지역이 작은 경우에는 보병을 사용한다.

척후의 병력수는 그 목적에 따라 정하지만 보거나 듣는 것을 주로 하며 전투는 피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아주 적으며 통상 책임자를 포함하여 4명으로 이는 비밀리에 행동하는데 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척후가 될 수 있는 자는 슬기롭고 민첩하며 침착하고 담력이 강하며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척후의 임무는 여러 가지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으며,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책임자로 장교(기병장교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때로는 타병과의 장교도 가능하다.)를 사용하고(장교 척후), 간혹 하사를 사용한다(하사 척후).

장교(하사) 척후에게는 임무를 명시하며(방향과 어느 곳을 수색하라는 등이다.), 실시방법상의 문제는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 척후는 파견하는 부대와의 연락유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완전히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임무는 때때로 며칠이 걸린다.

척후가 진지상의 적 상황을 수색할 때는 그 진지를 관측할 수 있는 곳에 신속하고 은밀하게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척후가 간혹 약간의 병력을 보유한 부대로서 장기간 적군과 접촉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적의 행동을 좇아서 하여야 한다.

적의 소규모 척후를 만나면 반드시 격퇴하고, 간혹 멀리 척후를 파견하게 되면 보고를 위해 많은 전력기병이 필요하며 또한 실정에 맞게 체기선(遞騎線)을 설치하여 보고의 도착을 확실하게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장교척후의 병력이 증가되어 1개 소대에 이르기도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장교척후는 오직 행동의 민첩함을 이용하여 자체경계를 하여야 하며 보고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6기(騎) 이상이 되어야 한다.

멀리 적의 근방에 내보내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색하기 위하여 본대로부터 기병부대를 독립하여 파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독립기병이라고 총칭한다.

장교척후의 임무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만 팔목할 만한 공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 장교는 앞에 제시한 척후의 기능 외에도 군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올바르게 판정할 수 있는 재능을 구비하고 또 적절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밀한 지도, 양호한 시계(時計)와 망원경을 휴대하고 지형에 대한 판단과 지도에 익숙하여 적정 및 아군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한 가운데 수색에 종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출발하는 척후의 책임자는 부하들에게 수색할 임무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기타 행군방향을 지시하며 또한 집결지점을 미리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대개 첩후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군과 휴식을 규모가 큰 민간 주거지가 아닌 개활한 야지에서 하여야 하며, 첩후가 만일 주야로 계속 파견될 때는 도로 밖의 엄폐물에 의탁하여 밤을 지내고 경계병 차출이 부족할 경우에는 각자가 말고삐를 쥔 채로 경계하여야 한다.



# 戰術學教程(上)



戰術學教程總目錄

卷之一

第一篇

用兵

第二篇

戰術學

第三篇

各兵種之戰術

第四篇

諸兵種之適合

第五篇

命令及報告

卷之二

第六篇

行軍及駐軍及搜索之警戒之義

第七篇

搜索勤務

第八篇

警戒勤務

第九篇

行軍警戒

第十篇

駐軍警戒

卷之三

第十一篇

戰鬥

第十二篇

局地戰

第十三篇

特別動作

附錄

第一篇

給養及衛生

地形判斷及偵察

第三篇

戰術沿革史

戰術沿革史

戰術學教程卷之一

目錄

第一篇

用兵

第一章

總論

第一節

戰爭之要旨及目的

第二節

兵力

第三節

用兵學要旨

第二章

戰爭之政府

第三節

攻戰之利

第四節

守戰之利

第三節

結論

第三章

兵語之解

第二篇

戰術學

第一章

總論

第二章

戰闘之類別

第一節

總論

第二節

速戰及接戰

第三節

密集隊次及散開隊次

第四節

結論

第三章

各兵種之性能

第一節 步兵

第二節 騎兵

第三節 野戰砲兵

第四節 工兵

第三篇 各種之戰術

第一章 步兵戰術

第一節 步兵隊編制

第二節 步兵之步度

第三節 步兵隊之隊次

第四節 散開隊次

第五節 戰鬪展開

第六節 步兵之戰鬪

第七節 步兵之步兵之對立戰鬪

第八節 步兵之騎兵之對立戰鬪

第九節 步兵之砲兵之對立戰鬪

第十節 步兵之彈藥補充

第二章 騎兵戰術

第一節 騎兵隊之編制

第二節 騎兵之步度

第三節 騎兵之隊形

第四節

戰場上騎兵之動作及龍裝性

第五節

散擊

第六節

進擊及集合

第七節

騎兵對騎兵之戰鬥

第八節

騎兵對步兵之戰鬥

第九節

騎兵對砲兵之戰鬥

第十節

騎兵之徒步戰

第三章

砲兵戰術

第一節

砲兵隊之編制

第二節

砲兵之速度

第三節

砲兵之位置

第四節

砲兵之隊形

第五節

砲兵戰鬥之通則

第六節

砲兵陣地之撰定

第七節

陣地進入及陣地之搜索

第八節

射擊指揮及射擊之種類

第九節

砲兵之掩護

第十節

攻守之砲兵

第十一節

砲兵之彈藥補充

第四編 諸兵種連合

第一章 總論

第二章 兵種連合の利害

第一節 歩兵と騎兵と連合の境遇

第二節 歩兵と砲兵と連合の境遇

第三節 騎兵と歩兵と連合の境遇

第四節 騎兵と砲兵と連合の境遇

第五節 結論

第三章 大單位一般の編制

第四章 技隊編成例及諸兵種臨時連合の要領

第五章 戦闘序列及軍隊區分

第一節 戦闘序列

第二節 軍隊區分

第五篇 命令及報告

第一章 命令

第二章 報告

第三章 命令及報告の傳達

戰術學校程卷之一

第一編 用兵

第一章 總論

第一節 戰爭의 要旨

要旨○戰爭은 一國이 他國에 對하야 一國이 是를 實徹하야 或은  
 이를 保持하야 用하는 最後의 威力 動作이다 夫國이 國이  
 不幸으로 葛藤을 生하야 道理로 斷言이 能치 吳호면 勢  
 가 戰爭에 訴치아 남을 得지 吳호나 蓋人의 相爭言은 法司가  
 以하여 裁호며 一國의 相爭言야 決치 吳호나 至호야는 戰爭言  
 을 호고 다시 判호는 途가 업스이 故로 戰爭은 天地間 固有의 威

力 裁判이 一國家의 生存上 必要호야 不可缺됨은 正설호論호  
 後치아 남지나 試호야 既往을 徵호컨디 必然치아 업나 업호되  
 卽戰爭의 理勢가 自然히 出호야 國際上 兵者에 免호나 能  
 치 吳호고 文호미 不可호 要件됨을 可知호 世의 道德學者는  
 兵을 凶器라호고 戰는 免事라호야 道理로 卽戰爭에 代호려호  
 나 其實効에 至호야는 正설호 期호미 不可호 是호문 卽戰爭은  
 人智를 開達호고 國勢를 振興호미 最大호나 國民의 호호 卽界  
 平호호 軍事의 廣가 업호는 風俗이 交弱호 流호호 志氣가 柔虛  
 호고 國家의 元氣가 衰頹호호나 敎治호미 不可호 是호호 至호호  
 미호호호이다



이欲을運五科를이아其欲을抑고且감히蘇利兵은  
 此者는無他非蓋列國이兵力는備호호시來호機가  
 必合는由호機이이結호所謂備가이二時惠이必호  
 은호此를謂호이이兵力는實호護國의實劍이필호

第三節 用兵學의要旨

用兵學이라는가호此를大州호時國軍는運用호호小州호  
 時國隊를運用호法는諸호者는호호小호戰客호戰術  
 의二項이라호호호

戰畧는其運用의計畧를謂호호호戰術이라호호其  
 實行의方法를謂호호호호者호密接호호離호호

相頊호호用兵의妙를得호호호

凡兵호用호호호는반호時目的이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察호호호進의遲速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兵의運動호호調호호攻守의得失호호호호호호  
 이호皆一定의法則原理호호據호호且諸種의事度호  
 察호호適當호호斷호호호方案이호호호호호호  
 或曰用兵의法는實驗호投機호在호호호호호  
 要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件이호호호호호호時講學의事는廢棄호호一朝호有



지 아니는度量이 없음이不可호니 진실로將校되는者로此等  
 의諸能을備치 아니면이지幾百千人の死命을司호國  
 家의安危에任호를得호리오兵을用호기에重호且는難  
 호음이如此호故로미루고天稟有爲의士호學호後姑能  
 호리니호를며常人호는호지百倍의功을用호호洋礪호하  
 남호可호호호

用兵學호는講究호는호는戰史와相渾호하남호不可호호戰  
 史호用兵의眞理原則호는證明호는者호다진실호活眼호호호明讀  
 호면勝敗의原因호는호一讀의間호炳然호하남호且某法  
 호從호면만호시勝호호某法호호遠호면必敗호호는古今一轍

此出호實理호는會得호는호是호호호

第二章 戰爭의攻守

攻戰(攻勢의戰爭)이라호는호는敵國호호侵入호호戰호호謂호호호호호  
 守戰(守勢의戰爭)이라호는호는自國호호止호호호防戰호호謂호호호호호  
 攻守의形호는彼我가屢호其地호易호호又彼我가호호攻勢  
 호是取호호호호호但彼我가호호守勢호是取호호호至호호호  
 絶호호호호호호

第一節 攻戰의利

其一 攻者호는進取의勢호有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志氣  
 가호호의奮호호호호호호호敵의一部隊호호호호호破호호호

리오

其二 攻者도常川先制의利를有호니故도或戰의地外時  
是自在則選擇호미可호니或敵는欺騙호니或其不意는襲  
호니或我兵力는集合호니敵의一點는攻得호미可호니다  
其三 攻者는上庫糧은敵의州國호미得호니호니다自國  
호니戰爭의慘毒은免호니호미得호미可호니다

其四 攻者가一步의進畧는又一步의勝이니所謂積極의利를  
有호니彼의守者가切戒호니호니다亦敵는驅逐호니호니다  
吳亮所謂消極의利의比호니호니다

第三節 守戰의利

其一 守者는戰地의利를熟知호니且容易히利用호미得  
호니且自國城塞의援助를受호니호니利가호니호니다又城塞는我  
가據點호니호니다호니호니敵의兵力을分割호니호니다  
其二 守者는國民의援助를得호니호니利가호니호니다又國民의  
州籍호니精確호니故報를得호니호니或時機에應호니義勇兵  
을用得호미호니호니西曆千八百七十年役의下半期에何法  
國이行호니호니호니다

其三 守者는其多兵을舉호니自在州戰鬪에使用호미得  
得호니호니蓋切者는敵地에入호니호니愈深호니호니兵站守備  
及城塞監視等에費호니호니兵員이愈衆호니호니且兵站線

互任을 提하여 延長을 三州 交通의 便은 亦 減少하고  
 增加兵을 得은 亦 亦 困難을 守者는 此等의 일이 絶  
 無함이니 李國의 兵家 *Yen der Coert*는 攻戰 軍은 三州  
 溶을 易을 春雪에 喻함이니 此를 往事에 徵함 法帝 策  
 破 崙 第一世는 兵을 節用함 上 智을 富을 亦 稱함이니 西  
 曆 千八百五十年에 倭兵 二十萬이 將이 되어 九月 下旬 國  
 境을 出함이 十二月 二日 *1859년*에 戰을 及함이니  
 八萬의 兵을 亦 部署 州 境을 以 三州 攻者의 兵을 費함이  
 이 多함 且 兵을 增함 上 難을 知함이 可함이니

第三節 結論

攻守가 一利一害의 名은 元來 矣 古는 前述 又 亦 攻戰의 利는  
 守戰의 優함이니 蓋 攻戰은 戰爭의 精神 烈志 氣의 旺 威 吓  
 先制의 利益은 三州 守戰에 總 利益은 壓 倒함을 以  
 니 是以 兵數가 敵에 越 越함 且 軍 備 互任을 預 警 奮 進함  
 亦 戰 是 挑 是 是 勢力은 有 是 者에 在 古 亦 是 攻 戰 上 三州 敵  
 을 殲 滅함 亦 城 下의 盟을 言 則 言이 可 함이니 守 戰 又 古 是 亦  
 亦 其 兵力의 敵의 川 又 亦 矣 古 是 亦 又 鐵 道 船 隻 等의 狀  
 係 互 攻 勢 是 取 함이 能 亦 矣 古 是 亦 亦 地 勢 力 攻 戰 亦  
 便 亦 矣 古 亦 特 亦 守 戰 亦 利 亦 是 亦 萬 不 得 口 亦 境 遇 亦  
 用 亦 是 亦 亦 矣



中間目標은 常에 바나 시 敵의 軍隊라 하나나

策源이라 하는는 作戰을 軍隊의 背後의 根據니 其需用

을 仰方노바 地域이라 又上陸戰에 在古야노 後方에 海岸反

該所에 現在古艦로 卽 策源이니라

策源이라 하는는 策源으로 卽 作戰目標에 通할 主要古

線路라 假令大道外 航路外 鐵道古 古者를 謂호이니라

古站線이라 하는는 古站基地(軍制學에 詳호)外野戰軍間

에 卽 軍用의 人馬物品을 追送回退호는 線路天道外 航路外

鐵道等를 謂호이니라

聚中이라 하는는 諸軍隊가 陸戰을 行호는 處에 大巢合

合을 謂호이니라

戰畧要點이라 하는는 顧호는 或戰爭의 全局과 其大

局의 結果에 影響을 及호는 緊要古地點을 謂호이니라

首府外 城塞及 道路의 輻輳點等이 卽是이니라

戰術要點이라 하는는 他를 瞰制호는 古地點外 堅固古據

點及 隘路口古호는 者를 謂호이니호 又 防禦陣地中 特

이 他를 瞰制호는 古外 堅固古據호는 古로 卽 其得喪은 古

陣地의 得喪에 關호는 點을 稱호는 古陣地의 鎖鑰이라

호나니라

攻撃이라 하는는 進호는 古戰鬪를 挑호는 謂호이니호

防禦라노기스攻擊을야來고노敵을防支함을謂호이  
니라

包圍라노기스正面攻擊과더후連繫을야敵의一翼側  
或兩翼側의溢出을야包圍함을謂호니라

迂回라노기스敵의正面에出치안고遠히其側面或其背  
後에出공노허문에敵의眼界外에行을야運動을謂  
호이니라

戰鬪라노기스現의銃砲를交射을야鋒刃을接함을謂  
호이니라

本戰(天戰)이라노기스兩軍의全部外其大部의戰鬪

其成績의戰爭의全局或其一大局을總호노日是호日  
를謂호이니라

支戰(小戰)이라노기스兩軍小部隊戰鬪을謂호이니라  
本戰一部의戰鬪及枝隊의戰鬪도호호屬호니라

息龍라노기스敵의不備를乘호야其不意를龍衣함을  
謂호이니라

決戰이라노기스戰爭外戰鬪의勝敗를決호호戰을謂  
호이니라

陽戰이라노기스陽面攻擊을甚호야或陣地를防禦호호  
바敵狀를候察호호或敵을挑動호호(陽擊)或運動호호

此敵은欺騙言(陽動)等으로此目的이되노戰의總稱이  
라又敵의側面或背後等은脅威言도亦一種의陽戰이  
나步兵操典은特히脅威戰이라稱호노나

持久戰이란가特別의目的이있어時間의裕餘를汚호는  
서문세敵兵을支持言戰鬪호는一時防禦에要執力  
에屬호者나

以上陽戰及持久戰은總稱言야持續戰이라호노나  
은期치못호는少勝의機에勝호는잇스면此限에잇지나  
나

砲戰(砲兵戰)이란가彼我의砲兵이砲擊言야相戰  
言을謂호는나

豫期戰이란가豫察호戰鬪를謂호는나步兵及  
砲兵操典에所謂防禦排備를호는敵의正面을攻擊  
호는것호는是다此戰의在言야는團隊一致호는整齊  
호戰鬪展開를行호는나

遭遇戰이란가豫期戰의反對호는不意의戰鬪라如  
此호戰은方今行軍間에發生호는날이호는나  
本攻이란가首力을用호는眞面目의攻擊을謂호는나  
나助攻이란가本攻를容易케호는호는行호는

助勢의攻擊을謂言이니라

逆龍象이란것은防禦軍陣地에在言야敵의攻擊에際言야  
攻撃의轉言은謂言이오回復攻撃은就地戰鬪에由言  
야敵의有言者를奪還言은此문에及擊을謂言이니라

戰術單位란것은獨立言야作戰任務를行得言最小部  
隊를謂言이니步兵大隊外騎兵中隊及死兵中隊가即  
是軍의兵力을算言은되나概此數五卅言이니라

戰鬪單位란것은人聲言으로卍指揮를却隊를謂言  
이니騎兵中隊及死兵中隊는魚言야又此單位는步兵  
大隊은千容集言야잇는어가사니면大隊長의号令

은貫徹키 못言디戰鬪에는方今疎散隊次를取言은  
오卍勢가中隊를戰鬪單位가되거言은可至言이니라  
隊形이란것은軍隊를前後左右에備言形狀을謂言은  
이니同種類의隊形을合稱言야隊次라謂言은隊形  
隊形과隊次는又同義에用言은잇는다

縱長이란것은隊形의如何를問치말고先頭部隊로부러  
後尾部隊는同目的의은達言은此문에盡言特別의  
任務를有言니라

持隊란것은前後에排備言隊形의稱言이니此諸隊  
는或一部重置言은或全部重置言은或絶言야重置



## 第二篇 戰術學

### 第一章 總論

戰術學은 軍隊의 運用 兵行 軍功 駐軍 功戰 戰의 方  
術을 講하는 者이니 凡百의 事가 다 戰鬪 功戰 其 準法  
나나라

戰術學은 其 關係가 바가 廣大을 야거의 其 畧을 能知  
치 못하나 本校의 서 教는 上바 者는 專히 初級 將校에  
必需의 事 功戰術의 基本 反應을 言 端緒를 示하  
고 過치 못하나 蓋此로 보러 以上의 學路는 實上 將校團  
長의 職域에 存함으로 卽하나나라

凡 用兵의 巧拙은 言하야 國家의 安危 外 團隊의 存  
亡에 關치아 남이 업나니 特히 戰術의 當否는 그  
接點 關係를 此의 及함의 極大을 나 蓋 謀가 戰畧  
撤하야 만일 其 實行 戰術으로 得當치 못하면  
戰鬪가 甚히 上期함을 不可하나 將校의 者는 派  
히 鎔心하야 卍劍 電彈 兩의 地에 立하야 泰然히  
事를 執하야 感지아나하야 兵馬 倥偬의 際에  
處하야 毅然히 應變하야 誤치아나 能力을 養  
成 練磨함은 固 其 分이 카나지 潛心 熟思하야  
此 學에 從事치아 남이 可하리호

## 第二章 戰鬪의 類別

## 第一節 總論

凡戰鬪上遠戰接戰二類是大別也 行言은 容集及  
散開의 兩隊次로 辨言니라

此四者上戰鬪의 元質이니 戰鬪本旨을 知호려 言면  
必先此四者의 利害得失及關係를 詳知호려 必  
이 不可호려 言니라

## 第二節 遠戰及接戰

遠戰은 遠距離로 且 敵을 殺傷挫折言호려 卽主  
言가 되니라 今日에 在호려 言호려 火戰이 是호려 火戰

은 火器에 性質을 從호려 言호려 靜止의 性質을 有호려 戰  
鬪의 大部分을 主宰호려 言호려 接戰은 準備호려 言호려 援助  
호려 有호려 時로 決戰의 局으로 結호려 言호려 或追擊(射擊에 由  
호려 言호려)을 行호려 言호려 通호려 言호려 言니라

接戰은 敵에게 密接호려 言호려 衝擊호려 言호려 白兵(刀槍  
劍戟)이니 運動의 性質을 具호려 言호려 蓋白兵을 使  
用호려 言호려 敵의 向호려 言호려 運動이 密接지 亦必이  
不可호려 言호려 且 그 密接호려 言호려 瞬間으로 我彼의  
強弱을 判호려 言호려 雌雄을 決호려 言호려 敵을 其位亂호려 且  
驅逐殲滅호려 言호려 卽目的이 되호려 言호려 故호려 接

戰은 벌은 決戰에 適한 戰法이 나다

方今射擊의 効力은 著하게 增大을 야는 遠戰으로  
勝敗를 決하는 일은 반다시 不可하니 故로 古의 白  
兵 接戰에 計치 아 鎗을 得지 못하니 是는 遠接戰  
에 並用을 야 偏廢함이 不可호마이니라

騎兵砲兵은 以上二戰法中의 一이 가 장 卓越한 勢力을  
有하니 蓋騎兵은 雄壯한 活動力으로 射接戰을 도  
方 五砲兵은 猛烈한 火力으로 射遠戰을 도 適하니  
遠戰接戰의 二者를 兼適한 者는 亦 步兵 뿐이니라

### 第三節 密集隊次及散開隊次

第一條 密集隊次○ 密集隊次는 各兵이 密히서  
로 集結한 隊次니 其利잇는 바는 外如하니라

其一 密集隊次는 狹小한 地의 衆多의 兵을 集을 得  
方야 指揮統御에 便하니라 故로 氣勢을 合을 고 心  
志를 協을 야 卽正의 戰은 宜고 且 機에 臨을 고 變에  
應을 得을 의 可하니라

其二 密集隊次는 丁舉에 衆多의 兵力을 用得을 으  
로 射遠戰에 當을 야는 敵을 壓倒을 는 勢力이 最  
強함으로 止戰에 當을 야는 抗力이 가 장 堅固함  
니 且 此 隊次는 至大의 衝力을 有을 야 特히 騎兵의

龍軍學의 通言 77가

密集隊次에 上 又 橫隊 及 縱隊의 二 大 別이 잇스니 其 利 害가 左 外 如 言 77가

橫隊의 橫隊는 縱隊 모 樣은 各 營 多 數의 白 兵 及 火 砲를 排 列 隊을 得 言 且 又 縱隊에 比 方 則 縱長에 小 營으로 卽 敵 火에 對 言 亦 被 害 小 言 考 의 利 가 잇스나 別로 步 兵 及 騎 兵 에 在 言 亦 上 橫 廣의 大 言 故 軍 隊 行 進 際의 各 兵이 受 上 壓 迫 言 亦 其 運 動이 各 營 困 難 言 卽 障 碍 各 多 言 地 及 一 死 傷 者 故 軍 隊 列 中 必 上 隙 을 보 示 言 卽 如 言 是 是 隊 列이 各 營 動 搖 言 卽 易 言 且 又 方 向을 變 換 言 亦 其 甚이 不 便 言

亦 又 各 營 時 間을 費 言 卽 考 不 利 가 잇스나 卽

三 縱隊 〇 縱隊는 特이 團 結 力에 富 言 卽 掌 握에 便 言 卽

又 狹 小 言 地의 衆 多 言 兵은 集 言 卽 適 言 且 正 面에 狹 小 言 亦 運 動이 容 易 言 卽 卽 速 利 行 進 方 向을 變 換 言 卽 障 碍 物을 避 言 卽 掩 蔽 物 利 用 言 且 其 他 衝 力 及 側 面에 抗 力이 強 大 言 利 가 잇스나 又 縱長의 大 言 卽 卽 敵 火의 好 目 標 亦 卽 上 不 利 가 잇스나 卽

結 論 〇 橫隊 縱隊 一 般의 利 害 卽 前 述 又 言 卽 故 卽 能 卽

此 利 害를 對 照 言 亦 其 應 用을 誤 卽 卽 亦 言 卽 要 言 卽 卽 其 用 法은 各 兵 種 密 集 隊 次의 諸 隊 形의 孰 言 卽 亦

了知함이 가능니라

### 第三條 散開隊次

散開隊次는 却伍散開함이 一齊整頓을 要치 아니는 隊次  
니 指揮統御에 不便함이 又 其利되는 바가 多함은 又 其  
左와 如함이니라

其 各兵이 地形을 利用함은 其身을 掩蔽함은 其 便함이니라  
其 二 各兵은 前面及 比隣의 兵에 射擊을 妨礙 せ함을 以  
卽 自在히 火兜을 使用함은 又 依托 射擊 得함이니라  
其 三 敵火의 對함은 目標가 小함이니라  
其 四 運動이 自在함은 又 進退가 迅速함이니 別로 險難함

地形에 在함은 其利 最大니라

散開隊次는 左에 二個의 主利을 有함이니라

其一 火兜의 使用이 甚 便利함이니라

其二 能히 敵火의 効力을 減殺함이니라

### 第四節 結論

上文의 由함은 又 觀함은 散開隊次는 專히 遠戰에 適함  
是上 否 今 此 隊次로 卽 戰鬪를 開始함은 又 許多의 境遇  
에서 戰鬪를 克結함은 步兵에서 主要인 戰鬪隊形  
이 되는 所以니라

此의 反함은 又 密集隊次는 接戰에 適함은 但 火兜精巧의

今日은火線州用言는機가稀古가火擊言는此隊次の初力이至吾도減치아나고且密集隊次는인의說言次守握便言으로州後方部隊上常用言고第一線兵도是戰況의許言限은此隊次를保持言이可古나라

遠戰은主言은死兵의戰鬪隊形은一種의散開隊隊次는接戰를主言騎兵의戰鬪隊形은密集隊次를多用言고步兵의戰鬪는密集散開의兩隊次를併用言나라

### 第三章 各種兵의性能

#### 第一節 步兵

步兵은獨立의兵種이니其用도亦廣言고特이軍의

主兵이되나其性能은左와如古나라

步兵은銃劔을筋着言고小銃을持言야遠戰接戰及密集散開의諸戰에適言고又攻擊과防禦의二方을無備古야人跡이得到言土地에서는能히運動言는能히戰鬪言는可言고不齊地反陰蔽地는가장其得意의地形이되又暗夜或濃霧時에는步兵外에거의復用言兵種이없나라

步兵은他兵種에比言면徵集과訓練과裝備等과極히簡便廉值言는戰時의保育도亦容易言나其保育의或不到言境邊에는能히忍守言는이他兵種の及古는바가아

나라何故호人是馬의比호면忍辱力最大호이니라  
步兵性能은概如此호아破碎力及遠距離射擊の効力  
에노진실호砲兵만及시 못호호又速力(搜索勤務及衝  
力(龍來擊)에노얼리騎兵及지 못호호아니라

歐洲雄國의軍에노從來步兵을分호호輕重의二種이되호  
今日의호往昔호호任務外訓練及戰鬪에著호호判  
別이업호호호其各稱을存호호분이호호但輕步兵은  
더가大隊備制리獨立의動作多用호호아니라

### 第二節 騎兵

騎兵은馬의性能에基호호速力及衝力호호호其性能

이되호호아니라

騎兵은其速力에依호호敵의不意에出호호호或好時機  
에會호호면곳이호호乘호호호或龍來擊이不利호호호호호호  
의危地를脫호호호호호호其長所가되호호호如此호호性  
能을有호호호호故호호搜索及發호호通信의諸勤務  
가별호호追擊의卓越의効用을有호호호아니라

騎兵은又其衝力호호호敵의部隊을潰亂호호호호  
殲滅호호호力을有호호호호騎兵은絶호호호防衛力이업  
호호호호호敵龍來의際호호호호亦攻擊을行호호호아닌  
이不可호호호호故호호호白兵攻擊은騎兵에戰法이호호호아니라

騎兵의 小銃은 有時로 步兵의 性質으로 變하여 徒步戰을 일우므로 用의 供方이 蓋馬上에 射擊은 命中 確實치 못하고 敵火의 對象 目標가 大고 且 徒步兵은 土地를 利用하여 其身을 掩蔽함이 能치 못하리라 故로 이 들을 用함은 騎哨外 斥候等의 警報外 散擊(後의 見함) 或 自衛의 時에 만함이니라

騎兵은 土地의 種類에 由하여 其用을 制限케 함이 最大하니 密集 龍象擊에서 是와 別으로 考하리라

他兵種에 對할 騎兵의 武功如何는 敵兵이 新銳호든지 萎靡호든지 其龍象擊이 敵의 正面에 對호든지 側

面의 되든지 或 敵兵의 防禦가 至호든지 장조 其不意에 出함을 得을 事에 由하리라 何故호 騎兵은 是로 射擊을 行하고 攻擊을 準備함이 則 其功을 確實케 하는 能力에 是와 常의 반대시 一擧을야 猛烈케 勝敗를 決호는 手段이 是로 最得意호는 바니라

此를 要하면 騎兵은 白兵攻擊과 搜索警報及 通信等에 特別의 功이 是兵種이라 統中 搜索은 方今 騎兵 最大 要務이니 騎兵을 稱함이 軍의 耳目이라 함은 實으로 是를 爲함이 니라

騎兵은 徵集(人馬) 訓練(人馬特別教練) 及 戰時의 休  
育等이 步兵의 比가 然스 吳 困難하고 且 巨額의 經費  
를 要하느니라

歐洲 雄國의 軍에서 上 概 騎兵을 分하야 輕重의 二種이  
되니 重騎兵은 重裝 甲冑를 被喜(古人 及 大馬를 用  
하야 偏成하야 攻擊의 最大 威力을 有하야 輕騎兵  
은 身軀가 輕少하야 伶俐人 及 軀幹이 矮小하야 且 駿效  
호馬를 用하야 偏成하야 專히 搜索 警戒 及 通信等  
에 用하느니라

二三의 國(德 法 伊) 에는 此外 오히려 中騎兵이라 名호

호는 一種의 騎兵을 有하야 是는 輕重 二種의 騎兵에  
採치안호나 人馬를 用하느니라 起 因하야 輕重 二種의 任  
務를 兼호느니라

### 第三節 野戰 砲兵

砲兵의 性能은 砲煩 射擊이 나 其 射距 雖외 破壞力과  
志氣의 影響을 호고 大호는 은 尤 步兵에 超越하느니라  
然이나 砲兵이 其 砲煩을 使用하느는 外호는 尤 直接  
自衛의 用에 白兵만 用호는 으로 射擊 準備호는  
척하야나 戰鬪力이 弱스나 故로 砲兵은 獨戰의 能  
치 못호고 獨戰을 決호는 能치 못호고 호는 尤 運動

이 능치 못함이 是는 砲兵은 常의 也나 他兵種의 協力  
反掩護를 仰지 못함이 得지 못함도 亦이 可하리 且 砲兵은  
地形의 문제 其作用을 欲制케 함이 騎兵에 비하면 更甚함  
外 晝夜外 濃霧時에 止거의 其効力을 失함나 水沆沼澤  
等을 滿함外 猛烈의 火力을 敵兵을 殺傷挫折함 且 他  
兵種의 不得爲를 得爲함은 實로 此兵의 右의 出함은 有  
가 必함나 라

砲兵은 行軍에 極히 延伸함者라 故로 可기 他兵種의 行  
進을 滋滯케 함外 險難호 土地에 在함外 是軍隊의 運  
動著大호 障礙를 致함者나 라

砲兵은 徵集(人馬) 訓練(人馬)의 教練并 砲項使用 及 時  
의 保養이 甚히 困難함 且 가 장巨 額의 費用을  
要함나 라

砲兵에 付호 人馬外 砲外 是 須更相難함이 不可言호  
호 州步騎二兵 少호 運動이 容易치 못함나 勒強  
함外 能히 久堪함호 性能을 有함나 라 故로 諸兵  
連合의 戰는 排備의 基礎及 戰鬪의 骨幹이 라  
且 他兵種의 尖戰를 容易케 함나 라

野戰砲兵은 分함外 野砲兵及 山砲兵의 二種이 나 라  
野砲兵은 其砲率이 通常는 徒步함나 迅速히

運動要言同止砲車及彈藥車等에 乘古 立山砲兵  
 은 砲手 數卒이라 徒步古야 輕重의 砲煩을 使用古  
 古야 其 砲煩은 或 繫索 駕古고 或 馱載古야 山砲  
 는 其 効力의 野砲와 同치 못古야 馬跡의 到을 土地에  
 大抵 使用古는 利가 잇지 아니라

歐洲 雄國에 軍에 止 野戰砲兵은 大개 野砲兵及 騎砲兵  
 의 二種에 分古야 山砲兵은 三의 國(澳俄意及 亞京及)에  
 止 山戰의 用言으로 겨 編成을 出이 아니라

騎砲兵은 騎兵의 屬行言으로 設古야 其 砲卒은 大 乘馬  
 古고 其 砲煩은 野砲에 比古면 稍 輕便古야 矣

#### 第四節 步兵

步兵은 技術上의 作業으로 卽 作戰力을 增進 補益古  
 는 者야 野戰에서 步兵의 要務는 堡壘의 築造 外 陣地  
 外 村落과 森林等에 防禦工事과 軍橋의 築設과  
 道路의 開修 外 諸般 破壞工事 其他 軍事上 必要  
 古는 工事를 擔任言이 是야 矣

其他 步兵은 城塞戰及 設堡 陣地의 戰에서 止古는 尙  
 要務의 任古고 野戰에 止 萬不 獲古는 時에 步兵  
 外 同法으로 戰鬪古야 矣

步兵은 大개 步兵과 同一의 武裝을 爲古고 同一의

訓練을爲할분 아니라 하되其技術上의訓練을  
 要言으로附其訓練은步兵보안은時日多要言  
 且其徵募는步兵의比가면稍難기戰時保育  
 이簡易기면步兵과大差가업고기

## 第二編 各兵種의戰術

### 第一章 步兵戰術

#### 第一節 步兵隊의編制

步兵中隊는分기야四小隊가되且小隊는臨時更分  
 기야若干分隊十三伍乃至五六기되기

五中隊를大隊가되且三或二大隊를聯隊가되且二  
 聯隊가旅團이되기

以上編制의詳細는軍制學에講述기기  
 密集는部隊는側面縱隊를除기면다二列는編成  
 기기列中各伍의間隔을肘의輕히相觸호

三州度라 하거나 前列과 後列의 距離는 六十 珊米  
前列兵의 背或背囊은 三十一 珊米 橫隊에 步調를 止  
할 時는 八十 珊米 이다

列中各兵의 隔은 隣兵과 間隙을 合算하되 大約一  
步(卅五 珊米)이 故로 橫隊의 隔은 一列의 人負이 此  
珊米數를 乘하든 者와 同하든 이다

### 第二節 步兵의 步度

步兵의 步度는 速步外 散步外 駈步外 龍表步의  
四種에 大別하리다

速步는 一步의 長이 踵으로 卅七 珊米

其速度는 二分時間의 百十五步(八十六米)로 諸運  
動에 用하든 이다

散步는 行軍의 用하든 者로 速步의 變法이 然이  
其速度는 軍隊大小 熟否에 從하되 增減이 有하  
기다

駈步는 急速을 運動의 用하든 一步의 長이 五 珊米로 其速  
度(一分時間에 約百步)步(約百四十五米)에 十分에 壯者  
를 負擔하든 步兵은 遠距離 又 險難을 地形에 在하든  
此步度를 用하든 일이 難하든 이다

龍表步는 速步와 同要領을 行하든 者로 但其速度는 一分時



大隊上地形之目的應方中隊縱隊是橫接方或重疊方  
大隊的基本隊形은 左와 如方이다

重複縱隊○二個의 中隊縱隊는 六步의 距離를 存方  
重疊方立他의 二個의 中隊縱隊는 亦 同法으로 重疊方  
六步의 間隔을 存方 前縱隊外 橫接方  
且 一 中隊는 左右 二個 縱隊의 中央 後方 六步의 相距  
地의 重疊方이다 此 隊形은 專히 集合及 射擊界外  
에 用運動의 用方이다 第三圖

大隊縱隊各 中隊縱隊는 六步의 距離를 存方 重疊方  
이다 此 隊形은 狹長地의 集合에 用方 又 行軍隊

形은 三戰鬪隊形에 移方 距離가 縱長을 短縮함은  
要치 且 中間의 運動에 用方이다 第四圖

縱隊橫隊○各 中隊縱隊는 六步의 間隔을 存方 橫接方  
이다 此 隊形은 運動(執 中間地의 射敵 火砲 火의 對方)  
을 時外 地形又 展開의 種類로 因方 縱長으로 正面의  
廣을 要할 時及 通常 戰鬪後의 集合에 用方이다

第五圖

以上 諸基本隊形에 在方 各 中隊의 間隔及 距離는 伸縮  
할 得호다

第三條 聯隊及 旅團



密集隊次로卍翼後又中央後의 占位음

凡散開上中隊縱隊外側面縱隊及橫隊로브리者  
니모列一小隊을散開술이常이라二小隊散開술이  
當方外小隊間은約十步를存술이指揮가容易을  
利가잇노이라

火線에兵은天散兵의니直接에戰鬪의任方니援隊  
의任務上戰鬪正面을擴張고(延伸增加)或填  
實(在間增加)方外火線을援助고其他敵龍의  
虛弱上側面을掩護時宜로圖方外戰鬪片候를  
派遣함方이在方니故로援隊上其時機를隨

方外適當方地의占位함이可方니라

援隊外散兵線의距離上戰況과地形에隨方外伸縮  
할者니一定規則을定치 못方니라其主는바上  
時機를失치말고散兵線을援助方이在方니平  
坦地에在方外上最初의散開에什約百千米를通則  
이라方니라

援隊의隊形은地形及敵火의効力에關方니敵으  
로目視利方上時上橫隊를用方고地形을因方外  
遮蔽利方上時上縱隊를用方이良方다方니  
니라



前方으로 死傷者의 轉退上 及 吳潮流滿干의 狀勢  
을 示로 且 戰場의 喧噪을 辨此의 部隊가 심의  
淸雜을 形勢至 此 隊長이 卒이 死傷을 亦 다 指  
揮者가 심스리 辨 眞 幸存을 戰聲의 辨의 另令  
記号가 다 部下의 普及지 못을 又 誤解케 함이  
多을 散開 戰鬪를 指揮을 困難 亦 極을 다 故로  
故로 步兵의 者는 剛毅을 勇猛을 果斷을 且 忠  
慮가 以 卍 獨斷으로 正當케 其身을 處치 亦 能  
을 得지 못을 二 二

第五節 戰鬪展開

第一條 大隊

大隊上 獨立을 戰鬪의 終始를 貫徹을 得을 最  
小 單位니 故로 分 副 官을 任 命 避 免 不 可  
凡 展 開 上 前 進 或 退 却 的 在 各 外 上 行 進 方 向 上 及 各 簡  
便 上 止 止 其 線 上 展 開 者 稀 矣 二 二  
戰鬪隊形에 移을 大 隊 長 是 命 令 上 展 開  
開 言 中 隊 是 定 外 同 時 上 其 位 置 反 其 間 隔  
을 示 各 外 各 中 隊 的 戰鬪 連 繫 是 正 保 持 者  
上 的 盡 力 各 中 隊 上 是 先 中 隊 長 的  
掌 裡 何 戰鬪 上 能 此 連 繫 是 保 持 者 上

協同을 하여大隊의 戰鬥任務를 果함을 勉치 아니 할  
可을니라

通常 最初의 展開에 付서 正面보다 縱長을 大케 하여  
漸次로 戰鬥力을 增加함을 要함이니라 故로 應히 必要  
에 隨하여 中隊를 逐次로 戰鬥線에 入케 함고 其殘餘는  
預備隊가 되고 大隊長의 掌握함을 要함이니라  
大隊의 戰鬥正面은 其戰線에 展開한 中隊의 多少를 隨  
하여 廣狹이 不一함나 但五中隊面으로 卽 最大限의 되나  
大隊 連繫함이니라 且 大隊長은 幾分의 兵을 後方에 掌  
握함고 且 他隊의 關係上 全大隊을 戰線에 展開함은 餘地

심함을 常이라 함고 且 其孤立할 時는 此餘地 常存함  
나 此境 遇에 付서 獨立으로 結局되자 戰鬥을 維持  
함을 爲하야 梯隊區分(第一線 中隊 及 預備隊)은 一  
순이 極要함이니라 故로 全大隊을 擧하여 戰線에  
展開함이 能치 不함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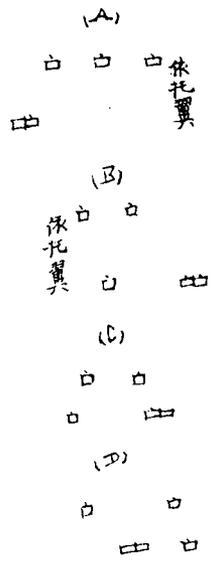
預備隊는 援隊의 後方 適宜한 位置에 在함나 適當한  
隊形을 取함나 戰鬥中 隊의 運動에 準從함이  
蓋 步兵의 集束彈或 榴霰彈의 문제에 同時로 前後의  
三梯隊에 大됨을 及함나 且 必要함을 距離는 三百  
米以上이니 故로 最初의 展開에 付서 卽 當히 顧慮

을 지니라

大隊其一翼則을 他의 軍隊 又 障礙物의 依托方는 何는  
反對의 方位에 後方部隊를 梯置方는 一(圖)  
是는 敵의 側面攻擊에 應고 又 스 스로 側面攻擊을  
行方는 可便을 辨이 나라 又 히 러 中央後에 서 又 지  
敵彈을 被흔 이 大히 害는 利가 잇는 이 나

大隊만 일 못 처 이 依托物을 有히 안고 兩翼이 다 顧慮  
를 要方면 兩翼後의 梯隊를 依方는 一(圖) 地形  
上 兩翼이 못 처 이 顧慮를 要히 안는 지 此考의 事가  
아스 預知흔 이 能치 못하든 지 或 爾後 他의 軍隊에

依托흔을 得을 지 詳知흔 이 能치 못을 設에 는 不  
可 後方部隊를 中央後에 在케 흔 이 可하 나라 (圖)



第二隊 聯隊

聯隊는 縱長의 隊形을 選호므로 卽 展開의 基礎가 되나니 聯隊長은 所要에 應호야 하나 大隊或는 二大隊 外 其 要호는 部隊의 展開호고 自餘의 兵은 預備가 되고 一翼後 或는 兩翼後 外 中央後의 布置호나  
나니라

聯隊의 運動中 前進에 在호야호는 先頭大隊호退却에호는 後尾大隊를 行進方向에 展開호나니 行軍隊形으로 展開호고호는 時機에 應호야호는 適宜케 몬져 每大隊에 開進호고호는 集合隊形에호는 其線上에 展開호를 得호

何等境遇에호는 지 展開호는 運動을 起호는 大隊을 指示호를 要호나니 運動中에 展開호호는 後方에 留호는 大隊호는 駐止호야호는 必要호는 距離外 適宜호는 位置를 保호는 可호나니라

第一線에 在호는 各大隊의 間 滿은 任務外 目的及地 形에 從호야호는 變化호나니호는 最初의 展開호호는 命令으로 卽 定호고호는 展開호호는 行호는 敵陣外 敵眼을 遮蔽호고호는 捷路를 經호야호는 施行호호는 者  
나니라

展開호는 聯隊의 運動은 各大隊를 爲호야호는 共同호

各個의 行進 目標을 指示하고 或 必要의 境遇에 於て 中  
央 一翼을 基準을 爲한 일을 指示하고 其 實施는 各  
隊長의 手裏에 在하리라

### 第三條 旅團

旅團 展開의 基礎는 戰鬥 正面內의 戰鬥 任務을 部  
下 聯隊에 與하되 在하리라 此 境遇에 於て 各 聯隊는  
左右에 併列 橫接 排置하야 吹지 獨立을 爲치 梯隊  
區分을 成호오 州 增援의 際에 或 其 各 聯隊는 前  
後에 重疊하되 重疊 排置호든 時는 後方에 留호 聯  
隊는 一翼 或 兩翼 後의 梯隊가 되어 適當한 位置

를 占하리라

展開호 旅團의 運動을 規定하되 是 聯隊에 行進  
目標을 指示호는 要하리라

其他는 此 聯隊 戰鬥 展開에 揭호 原則에 從호는  
可하리라

一 旅團 六大隊의 戰鬥 正面은 最初 展開에 約 十百乃至  
千二百米로 算하되 蓋 此 幅員호 州 卽하되 每一  
米에 銃數四乃至五挺을 排列호는 得하리라

### 第四條 結論

本節所說의 團隊의 展開 正面及 梯隊 距離 等호

은 오조(五)標準을示함에不過古(古)蓋此等은時機外地  
形과攻擊과防禦外獨力으로戰鬪함과他隊外連繫  
함이戰鬪함에由(由)함아스(스)도相異(異)함者(者)라但戰鬪開始  
에在(在)함아(아)는함(함)비(비)展開正面을狹小(狹小)케함(함)아(아)는然(然)이면戰  
鬪實行에際(際)함아(아)正面이非常(非常)히擴張(擴張)함은지(지)或期(期)의  
문(문)져(져)諸單位의混淆(混淆)를免(免)치(치)못(못)함(함)을戰鬪實行에(에)는(는)아(아)모  
조(조)르(르)는(는)多(多)數(數)호(호)兵(兵)을(을)貯存(貯存)함(함)은(은)이(이)必(必)要(要)함(함)아(아)니(니)카(카)

### 第六節 步兵의戰鬪

散開隊次의火戰은較近步兵의戰鬪中其効用이實  
는著大(著大)함(함)아(아)니(니)然(然)이(이)나(나)아(아)는(는)함(함)비(비)勝(勝)敗(敗)를(를)決(決)함(함)이(이)能(能)치(치)못(못)

함(함)時(時)止(止)는(는)고(고)함(함)아(아)니(니)密(密)集(集)部(部)隊(隊)白(白)兵(兵)戰(戰)의(의)力(力)을(을)藉(藉)치(치)아  
남(남)을(을)得(得)지(지)못(못)함(함)아(아)니(니)以下(以下)에(에)細(細)說(說)함(함)노(노)다(다)

### 第一條 火戰

#### 第一款 總論

步兵의火戰은小銃射擊이(이)其射擊効力은正(正)히銃을  
使用(使用)함(함)아(아)외(外)에(에)射距離外射擊界中(中)에(에)在(在)함(함)은(은)目標의  
位置及其大小外厚薄과疎密과其他天時에(에)關(關)함(함)者(者)  
니(니)其効力을(을)呈(呈)示(示)함(함)아(아)는(는)射擊의指揮에(에)至(至)함(함)아(아)는(는)射  
擊軍紀를(를)守(守)함(함)고(고)且(且)各人은沈着함(함)아(아)特(特)히射擊에(에)熟  
練(練)함(함)이(이)不(不)可(可)함(함)아(아)니(니)카(카)

射擊의指揮라노거는射擊의始終을命호고照尺의度  
를示호고射擊目標을與호고射擊의緩急을規定호고  
步을謂호고射擊의指揮參與호고는通常火線의在호  
少隊長中隊長에限호고者호기其他上級指揮官은戰鬪  
에서他の職任을負호고거시됨호고卽其射擊의関  
方外于步호고이可호고는戰鬪線中火力을增大호고火  
力을取注호고호고司適當호고地點에必要호고兵力을排置  
호고步의限호고者호고銃器의眞価를得호고는指揮  
이手裏에掌握호고호고在호고호고卽射擊指揮호고卽  
長히持續호고를要호고호고호고

戰鬪가火延호고호고散兵線의在호고指揮官의々々教令  
被發호고호고이시호고호고射擊의指揮가屢々完全치부  
호고이호고호고如斯호고境遇에서諸兵卒은多火獨斷을  
호고호고卽射擊軍紀를維持호고이特히緊要호고호고  
射擊軍紀호고火戰中各兵卒이命令을確實히行호고  
호고操銃法을嚴守호고호고戰鬪의法則을遵奉호고를謂  
호고이호고其目이概左外如호고호고호고  
一射手호고敵兵을注視호고호고又常に指揮官의거著意  
호고이可호고호고事

二射擊은何等境遇를論치말고確實호고射擊界의

여在敵兵을照準方지아니면著者의効力이영후을  
銘心方야敵火의下에在方야應射치아니되니自若을  
야傳止키아남이不可方니다

三火戰의始로브키미其携帶한彈藥數의限이有호  
을慮方야極值인호境遇인射擊호이可方니然이  
나亦一日標를定方야射擊호되호其目的을達方호  
되必호彈藥을十分使用호이可方호又目標消失  
方호지其他射擊을中止호되호速히實行호는事  
四何等의時호지命方호호照尺度호가精密判裝  
置호야速히照準호호沈着호야裝射호호速히裝填

호를事

五目標의選定은은은戰術의要旨호從호야判定호호호  
호高深廣密호호等物을擇호야命中을大判호호可  
호를事

六遮蔽物應用的要願은射擊의効力을主호호호호호  
効用을熱慮호호는事

射擊을大別호야密集隊次의射擊과散開隊次射擊及  
連發射擊이니다

第二款 密集隊次의射擊

火線中에密集隊次를用호호는掩蔽物을有호호又騎兵

의擊攘에對호는等時에用을기에當方에서아모조  
로小호部隊로써호호호蓋其部隊가대호면호敵火  
를易格호호且其時間이僅火호호許多의損傷을  
受호호호호

密集隊次의射擊을行호호호三隊形을用호호  
호호一은橫隊호호호每小隊의射擊호호호是호  
此隊次中射擊을行호호호正面이가장廣大호利  
가호호호호호一은中隊縱隊호橫隊을作호호  
餘地又時間이엄호호호追擊射擊을行호호  
等境遇에際호호호先頭二小隊호호호四列

射擊이라但時宜에由호호호最後小隊를展開  
호호호호一은方陣이호諸方호호호來龍호호騎兵  
을防支호호호호호用을各面射擊이호호

密集隊次의射擊에又二種이잇호호一齊射擊과  
各個射擊이是호호호

一齊射擊○一齊射擊은号令을從호호호諸兵  
이一齊同時호射擊호호호謂호호호此射擊은  
我志氣를盛刊호호敵의志氣를梳호호호可호  
호又射擊의指揮호指揮官이掌握호호호  
令을普達호호호호故호호호好時機에前後호호

擊이 심고 隨意에 射擊을 中止시키면 正面의 硝煙이  
 消散하기를 俟고야 射擊을 再開하고 彈着點의 由을 外  
 距離를 確知할 수 있을 得고 彈藥을 節約할 수 있을  
 得고야 是도 此射擊의 利되노바라 然이나 戰鬪方酣  
 故야 兵卒의 心身이 動亂하기에 至고야 此種의 射擊  
 은 忽變을 야 不規의 各個射擊이 되노니 不利가 있나니 故  
 是 此射擊은 敵騎의 來龍에 對호든지 又 遠距離에서  
 大目標 砲兵或 縱隊에 對호든 時에 用을 分이나  
 各個射擊의 各個射擊은 各自 隨意로 射擊할 수 있을  
 謂호이나 此射擊에서 是 各兵 靜肅을 保持할 수 있을 難호

且 硝煙은 每射擊에 增加호고 又 射擊을 中止호는 甚  
 難호나 照準精密호고 且 多數의 彈凡을 射擊할 수  
 利가 있호므로 卽 忽然 敵龍을 受호는 時 又 忽然 有利  
 호 目標의 現出호는 時에 用호야 又 其 効를 奏호는 其  
 速度는 忽射擊의 二種이나 其 方法은 次款에 者 外 異  
 치 아니호나라

### 第三款 散開隊次의 射擊

既說호는 散開隊次는 步兵의 主要호는 戰鬪隊形이라 隨  
 故야 散開隊次에서 射擊兵 散兵線의 射擊은 步兵  
 의 主要호는 戰鬪手段이나 其射擊은 概 各兵 各個에

行을 그 속도에는緩急連續과急의三種이잇스나又  
稀하게諸兵이一齊히行을나니라

緩射擊에서上各卒其隣卒과共同하여射擊함이常  
이니又甲卒이射擊함을나니乙卒其彈着의注目을고甲  
卒이裝填을後乙卒이射擊함을나니其速度는一分時의  
約二三發이니라

連續射擊의는此交互射擊을廢하고各兵卒은或  
目標을無示하고或敵前의硝烟을認고나隨意  
에射擊을行하고其速度는一分時間約五六發이  
라

急射擊은아모조로急速을射擊이니其速度는  
一分時間의約八發乃至十二發이니라但急射擊  
은照準이精密치아남과彈丸을多費하고는弊害  
잇고으로卹其効力이足償을과確認함을時只  
彈道の依伸을利用하여確實을効用을期함  
二三百米의距離의付決戰의時用함이常이라  
但三百米乃至八百米에距離에드火時間特別에  
利益잇는目標(砲兵과騎兵反步兵의密集隊外  
近者을)行進上散兵線(現出을)外偉大을射擊  
의効力을顯함境遇의付는亦用함을나니라

急射擊은應用호되適切호時機호左外如호나  
 一攻擊에서호史擊前最後의準備호爲호言時  
 二防禦에서호敵의穴大擊호擊攘호時

三騎兵은防禦호호或凡戰鬪에서忽然敵과撞突

호時(倭軍의近傍과村落內의森林內等의戰鬪)

四退却호敵에向호야追擊射擊호行호時

一齊射擊은散兵線에用호時도其利호密集隊次에

同一호나然이나戰鬪의喧燥호當호야호聲音

을達케호호密集隊次에서보았一層困難호호

호戰鬪의始에小部隊호호令이全部에能達호호

且아스有効호敵의射擊을被키아호以前의用  
 호호되過치호호나

第四款 連發射擊

夫火線上敵의超越호銃數를備호은호今步

兵戰術第一의要件이나此旨趣를擴張호호

單發銃은未足호바호故호반다시所要에應

호야連發호호銃의制法호호不可호나

連發銃은單發銃의比호면同時間에서幾倍數

의彈凡을射擊호호由호야一銃호호數銃

의用을일호호나一人호호數人을兼得호호

可호니射擊의速度가如此호니其彈凡이實호容兩  
의注호不호니故호攻者가장호突擊호三州局을終호  
列호時에臨호호用호호容易호射擊의熾盛을極  
치호호守者도亦此速度를利用호호敵兵의突進을  
防호호니連發銃의攻守二戰에勢力를與호호如  
此호大호니然호호細言호其守戰에與호호勢力은攻  
戰에比호면更大호니何故호攻戰에射勝을制호호  
主호호進取의銃氣에在호호射擊은其進攻호  
阻害호敵兵을攘호호我進路를開호호補호  
手敗호호되호호遇호호吳호境遇가多호호守戰에在

호호各兵의志氣가概호寢覺호호戰間間一호  
火力을藉호호호敵兵을防호호호호호不可  
호호是호守戰에連發銃의勢力은照호호最大  
호호호호호호此他連發銃은騎兵을防禦호호時  
忽然直接호敵에게連遇호호時及追擊호호用호  
호大利가잇호호호

連發銃의射擊의호連發總射擊과連發一齊射擊  
의別이잇호호連發總射擊은單發銃總射擊條에  
揭호호同一호境遇에서行호호호蓋호호의滿裝호  
彈凡을各兵各個에連續總射호호義호其速度

은三十秒時間概十發에及고且連發一齊射은  
 号令에應고야連發言者其速度는一分時間  
 概八發이니中距離以下에서用言이常이니라  
 但瞬時間現出言上有利의目標에對言야는  
 遠距離에도오히려用言은單發銃의一齊射  
 擊과異言은인어쉽노이라

### 第二條

步兵의白兵戰(銃劍突擊)  
 方今火器가日益은精巧를極言으로因言야地  
 形及夜暗等의助가있든지敵兵이我火力역문  
 에擾亂言든지特異의好機에乘言은이아니면

銃劍突擊의奏功이愈難言기에至言야我가만  
 일敵를距言百米의地로브러此突擊의轉言  
 言도其疾進時間이적어도三十秒를要言  
 니此際는敵兵에서其火力이熾盛을極言時機  
 됨으로卽彼가만일은連發銃을有言즉連發急  
 射擊을行言야我를拒言은이반言어리니果然  
 言면我兵이疾進間每銃十發의敵彈을被  
 가恐言은이能히敵陣의達得言者가果然幾

許也

然則銃劍突擊은말을이行言은이能치말言야

曰否라攻者の散兵線은其火力에因方야敵兵을  
挫折方立漸進方야敵을距高이二三百米의地에  
達方고援兵이絶치안고求加方야攻撃点의對方야  
火力이熾盛을致方나아卒敵兵을驅逐할이能치  
호되노다시躍進方야다시其火力을極히方야則  
敵을壓倒方고其機則乘方야銃劔突擊이轉  
할호되其奏功이決코期方기難치사니方나此時를  
當方야全隊上一致斷行方되有階者는率先方고  
後方梯隊上推進方고喇叭手는侵龍象의譜를連  
吹方立龍象步호되호其速度를增方야突進의号令

으로各人이吶喊疾驅方야募然突擊方야卍雌雄  
을一擧의決치사남이不可方立其雌雄은호이志氣의  
盛衰호由方야判方되니라

凡突擊은最高級指揮官의命令을由方야  
行高이法나散兵線上에는第一호우右時機  
早左處兩호右敵의抵抗力이微弱高을察知  
方야迅速히문은利益을收得高이可方나故호  
突擊은散兵線으로卍行方되니라但最高級  
指揮官의意圖外호出치아님을要호然호  
時止密集部隊호右散兵線에跟隨方야支



防禦排備를爲고正面攻擊은始로브키計畫  
를일의實施치아남이不可고若敵兵이出擊  
치아남이判然호되노攻者는隨意히攻擊의方  
向及方法을選定호을得호야其指揮가甚히利  
益이잇스니如斯호境遇에는指揮官의意圖로  
從호外戰鬪에移호호호호開進호호호是  
則整正호戰鬪指揮에缺호호호不可호要件이  
나라

前示二種의境遇如何를問치말고攻者는地形及敵  
火의許限은힘洲密集隊次를保持호호進호호

其既散開호호호至호호호호호戰鬪를開始호호호  
所要호호兵負호호火線에備호호호戰鬪實行에際호  
호호斷然의增負호호호火線上의銃數로敵에對  
優호호호호호호火線에在호호兵隊호敵의  
數多의損害를與호호호호自己의損害를減  
호호最良手段이될호호호蓋地形及狀況의許  
限은호호호射擊호호호陸續前進호호敵  
兵에接近호호호호호

攻擊의成果를得호호호호優烈호射擊으로  
行호호호호圍運動에由호호호호호호호

라거나 아니거나의 서로에 諸方向으로 接近하는지  
戰鬪梯隊의 加入에 由거나 施行言은 第一展開에 宜  
의 準備치 아남의 不可거나

散兵線의 增加은 宜은 諸單位의 混淆言을 避호는 勿  
에 宜호 延伸法에 由호는 可거나 然호는 形勢의 變  
호는 又 伍間 增加法에 由호는 可거나 然호는 形勢의 變  
凡 增加兵을 得호는 時호는 散兵線은 其 勢의 乘호는 奮進  
호고 其 漸호는 敵과 接近호는 至호는 概 隊躍  
進을 行호는 但 現時의 形勢能 行을 得호는 然  
실로 一擧호는 敵陣에 逼호는 要호는

援隊及預備隊의 平坦開豁의 地에 在호는 戰鬪의  
初期의 射호는 測翼後或 遙호는 後方에 位置  
호는 勢力이 未衰호는 敵火의 害을 避호는 外 其 敵  
호는 漸接近호는 被호는 顧慮치 말고 命  
호는 待호는 且 漸然前方의 線에 接近호는 可호는  
指揮官은 次戰點의 向호는 續호는 新銳의 兵力을  
增加호는 決戰의 時機에 호는 敵의 優호는  
勢力을 擁호는 肝要호는

散兵線이 漸進호는 敵陣으로 보호는 大約二三百  
米의 地에 達호는 以後의 措置호는 第八節 銳銳

擊의諸法에由함이可하니라

攻擊功을奏고五敵의陣地를奪畧함도是로卅足  
함이不可하리니其得호陣地의點領을確實케아  
는彼方의後端에至하기스거攻擊을續行함은要  
하나其後의追擊은通常連綿호攻擊運動으  
로卅하지안고概射擊으로卅호後方部隊上  
地形의許限호第一線의進호射擊함은要호  
호니此際함의突擊은行호軍隊호天奪畧호陣  
地를點領호호隊伍를整頓호호嗣後新企圖에

應호서문에速히戰鬪를準備함이可하니라  
追擊射擊은敵를能히殺傷호호은先이敵호를  
殲滅함은卅하리不可하니故로此目的를達호  
호서문에新銃의部隊가잇고且狀況이許호면  
急速猛烈호追擊運動은實호欠함이不可호  
者니라

攻擊功을奏호면指揮官은其得地를固守함을  
勉호고且速히其隊伍를整頓호호다시攻擊手  
호를行호호準備를함이可하나아주混亂치아  
호敵火中에在호호退却함은마치自滅호

排槍이나 齊히 前進할 만도지 못하느니라

敵火의 掃射 空地를 前進할 때는 困難함으로 卽 夜暗을 利用하여 敵의 接近함을 必要함이 있느니라 此境 遇에서 通常 晝間에서 敵의 射擊 界外까지 前進하고 翌朝 夜暗이 乘하여 다시 諸隊를 進하여 拂曉 良好 距離에 達하여 天射擊을 開始함이 可하느니라

### 第二條 防禦

防禦의 隊形의 一定 方法을 設함이 能치 못함의 이를 攻擊의 比 方 則 更甚함지라 蓋 防禦의 在함이 是 特이 地形의 利用을 主함노지라 故로 地形에

準하여 其 隊形을 選用하여 남이 不可하느니라

是以로 防禦의 施行은 局地(高地 外谷地等)를 用함이 必要하며 其 用法은 第三卷에 讓함은 今 准一般 普通의 事를 說함은 是이니라

凡 防禦上 十分 火器를 利用함은 在함이 此 目的에 從하여 陣地를 選定함은 及 人으로서 卽 聖固 可하느니라

敵의 攻擊 方向을 知함은 天 戰鬪의 目的 及 地形에 從하여 陣地를 固守함을 排備함을 可함이며 其 法은 各 連制 部隊의 防禦 地區을 定함은 且 各自 預

備隊를備하기에잇스나又其地區의敵及其幅寬은  
陣地에形狀과交通의便否及展望의難易等에從가야  
異호者니라

凡勝利를期호는防禦上攻撃의處置와并行치아닌  
나不可호니라

主호야此攻撃에任호者는一定에地區의用치아나  
摠預備隊가是니라故로其兵員은아모조로衆多에  
호고되호고又其位置上一般의戰況及地形의從가야  
瞬時に攻撃에轉得호기最便호地點天通常陣地  
의一翼에在호者니라此位置上又強大호陣地에付

最恐호는敵의包圍를防支호고도로敵의側面을  
攻撃호노디便호니라

摠預備隊上防禦軍隊더우大호을隨호야더우遠  
히側方의位置호야此展開地는有호의可호니라

攻撃의際에아모조로遲히射擊호을始호은原則이  
라가나防禦에在호야는敵兵이我小銃의中射距離內  
에入호면射擊호을始호야極히有利호目標의對호  
야호호리려至大의距離에더호호니라此攻撃호을困  
難케호고且敵호을動搖케호을勉호의可호나其最初  
에호호호호호一齊射擊호을行호호을要호호나是호호

隊中の沈靜을保持하고且彈藥을節約코  
 저고노려문이라然이나過早호射擊은我陣地  
 를暴露호고又彈藥을浪費호기易호음을忌호  
 이不可호니라

敵兵더우接近호에隨호야守者는益々其射擊  
 을熾盛케호고其前進을防支호음을勉호고敵兵  
 이드러야突擊을行호노려문에暴露前進호  
 기의至호면此에乘호야大損害를被케호고彼  
 가我陣地前에辟易호할時호夫我가逆襲을行  
 호호機다此際남의交戰호호兵은其陣地에集

合호야逆襲을行호總預備隊에背後의支障  
 點을得케호고且야모조로多數銃을擧호야急  
 射擊으로써逆襲을援助호호可호고又時로全  
 線의호호출擊호호잇호니라

守者가만일退却호기의至호면新銳호一部隊三  
 後方陣地에據케호야卹自餘의退却兵을收容  
 의本分을盡호리리但此部隊를戰鬪에用키  
 인코退却의決心에문커미리後方에送致호호  
 호호은忌避호호事니라

專守防禦의在호야호進호야敵을熾滅호호

能치 못함으로卽甚不利함이萬不獲也此境遇에  
陷을時시기이戰地를防禦함이死而後고함을  
이니라

### 第三條 夜戰

摠論○從來野戰에서夜戰은戰鬪陣地에서야  
敵과對峙할時或敵營을總龍함을時에  
起함을이러니火器가더욱精巧함을是하야  
白晝功을期함이難고且死傷을被함이  
多고地를攻擊함은夜暗利用함은其目的  
을達함은必要가愈大함으로卽將來夜戰의

起함境遇가별호小部隊의戰鬪에最호함을  
信함이니라

夜戰에在함은諸般의地物이晝間과其効用이  
全異고又道路及方向에易迷고運動及指揮  
가困難고隊伍가紊亂함기易고精密  
제照准함은射擊이不能호故로夜戰은  
特이白晝戰에最重을置치아님을得지 못  
함이니露將(露將)의所謂彈丸은愚고銃  
劍은智고다는格言은實上夜戰의特色은謂  
함이나夜間의호友軍이相擊의危險이多



이夜間의攻擊을受호이可호을信호이호는第一에  
警戒線의擔負호을必要나모든夜間의防禦戰  
闘에在호야比隣軍隊付로應投호은호火急疾호  
側面攻擊호로卽호을辨호이니라

### 第八節 步兵의騎兵에對호戰闘

一人의步兵射擊호을準備잇호는閑豁호平地에서도  
一人의騎兵에優호호者로假令多數의騎兵에對호야도  
沈着호야動호이호호終始敵호을注視호야適宜刊火器  
호使用호은亦不足畏호호者나카

然則步兵部隊호亦自若호야堅確호姿勢호을保호호

호는假令優勢의騎兵部隊에會호야도其호호是호  
호호且精確호照準호호沈着호야射擊호호야衆호  
의火兵호을遲호호을得호호은何等의隊形이나騎兵호을  
防禦호호에適호호아는호호이호호

騎兵호호是最大의危險호을與호호은得호호을限호호야衆  
호의火器호을排列호호는호호在호호나故로隊形變換호方  
向變換호은唯此目的호을호호施行호호이可호호나左에步  
兵各隊形의用法概示호호다

橫隊에在호호야正面호로襲擊호을受호호는호호는隊形호을  
變호호호는호호잇호호고其호에對抗호호이可호호나其호

襲擊橫隊의 一側面으로 하여서 其一翼所要의 空  
로 騎兵으로 正面에 對한 것이 可하나니

隊縱隊의 在方에 襲擊을 受호하야 만일 行호의  
有餘하면 騎兵의 面을 橫隊에 展開함이 可하나  
不然이면 既述한 것 중 隊縱隊의 射擊을 受호하  
야 關隊形에 在方에 正面으로 襲擊을 受호하야 散兵은  
射擊을 開始하고 援隊된 各小隊도 翼後에 梯隊  
를 作호야 側方을 監視하고 其方面으로 來호 騎兵을 射  
擊함이 可하나 만일 一側面으로 襲擊을 受호하야  
援隊及 預備隊보다 此方에 正面을 變換호야 梯隊를

作호고 射擊에 因호야 此側面을 防護함이 可하나  
라

何等의 時든지 敵의 步兵과 戰鬪호 散兵은 敍令 敵騎  
의 脅迫에 逢호야 도아 모조로 密集隊形을 取호  
을 避호하야 散兵沈着호야 射擊을 行호하면 十分  
케 自信호야 敵騎의 襲擊에 對호을 得호하야  
地形이 만일 騎兵의 對호야 障礙及 掩蔽物을 有  
호하야 다시 散兵의 力을 增호호는 者나니

後方 梯隊의 射擊에 由호야 其側面이 安全호하  
호 係치안호 散兵線에 射擊兵에 對호이 能치

무릇 보병은假令方陣을編成호도効력이업디나  
라

方陣은從來騎兵을防禦할唯一의隊形이니其主  
호바는銳鉤에藉호야敵騎에抵抗호의잇스나  
人의臂力은진실호馬의全速을盡호야采호는騎  
兵의衝力을當호이不可호且方陣은十分利火  
力을用호이能치 못호야호히려敵의步兵  
及砲兵의射擊에對호야好目標을呈호는不  
利가잇디故로步兵操典中에此隊形을存載  
호나其用은左와치特別의時機에만쓰디나

라

一軍隊彈藥을射盡호는時

二殺傷의多호는戰鬪後其隊伍動亂호는時

三開豁地를退却호는時當호야絶호치호는優勢  
된敵의騎兵호는脅迫호는時

步兵은敵의騎兵에優勢된步兵의援助호는  
時或同時호各方向호는數線호로此襲擊호야  
來호는優勢의騎兵의안는時에開豁호는原野  
에호호호吾도顧慮호는일어업고其호에對호  
호前進호디나其前進호는得지 못호는든지或

有效之射擊을 得을 隊形을 取할 이 能치 吳  
 將 何 陣 步 兵 은 騎 兵 에 對 하 야 遜 色 이 少 者 外  
 如此 在 境 遇 에 도 步 兵 은 其 他 의 止 方 야 沈 着 方 야  
 射 擊 을 行 하 면 或 其 襲 擊 에 對 할 을 得 하 니 如 何 在  
 境 遇 에 서 든 지 退 走 할 步 兵 은 騎 兵 에 對 하 야 苦  
 도 抗 力 이 少 을 辨 하 니 大 危 險 도 大 難 點 은 鑒 心 者  
 이 可 方 니 라

第一條 砲 兵 火 의 下 에 在 을 時 動 作

其 一 步 兵 이 其 小 銃 射 距 離 外 에 서 砲 兵 의 對 할 時 도  
 其 射 擊 을 被 히 도 應 射 할 이 能 치 못 하 는 由 也

不 利 의 狀 況 을 現 치 하 니 當 此 時 應 當 外 上 掩  
 蔽 物 을 利 用 方 야 敵 火 을 避 方 고 又 閑 駭 地 에 서 는 一  
 時 斜 行 嚴 砲 의 照 準 及 修 正 을 困 難 케 故 是 時 是 方  
 外 其 位 置 을 左 方 又 右 方 에 變 轉 方 又 行 進 及 停 止 에 關  
 心 必 又 常 에 其 目 標 을 小 케 故 其 縱 向 減 量 外 砲 彈  
 의 躲 避 及 破 危 은 橫 方 向 必 然 縱 方 向 에 大 量 必 然 敵  
 砲 火 의 効 力 을 減 殺 量 을 勉 치 不 可 方 니 라  
 其 二 步 兵 이 其 小 銃 射 距 離 內 에 서 砲 兵 의 對 할 時  
 도 利 害 必 甚 多 故 其 接 近 의 程 度 及 地 形 의 援  
 助 가 大 量 을 從 方 야 愈 然 方 니 라



이 가능하다. 此際 一部의 兵은 俘獲을 하거나 砲을 及人馬를 確實히 守衛케 하고 或 其 砲煩을 毀損 閉鎖器를 除去 하고 照準器 及 車輪을 破壞하여 火門을 釘塞하는 등

第十節 步兵의 彈藥補充

步兵 携帶 彈藥 負數는 軍制學에 讓호는 戰鬪中 大隊의 彈藥 馱馬(彈藥數는 軍制學에 讓호)로 보되 補充을 하니 此 馱馬는 大隊 附近의 指揮官 從者 外 戰鬪의 始에 遮蔽物에 據고 外 其 戰鬪 兵 互相 距는 八百米를 越치 아니함은 要하니 工事 急호는 及고 外 是는 危難을 顧치 아니고 火線의 近

進호는 不可하니 다

彈藥을 火線에 補充호는 是는 需要에 從고 外 外 五호는 援隊 外 預備隊의 兵卒을 使用호는 此 兵卒은 命令에 從고 外 彈藥 馱馬 所在地의 赴호는 彈藥을 受領호는 指示케 호는 中隊에 搬送호는 可호는 一箱의 彈藥은 結束되 兩箱으로 보되 出호는 兵卒二人의 力을 分호는 搬送호는 然이나 所要가 이스면 箱入되 二人으로 搬送호는 可호는 相次호는 火線에 入호는 各 兵卒은 該 火線에 在호는

을 得호는 可호는 相次호는 火線에 入호는 各 兵卒은 該 火線에 在호는

야射擊을도兵을爲方야補充彈藥을推多性함이可  
하니其死傷者의彈藥을收給함을緊要하다하  
나

彈藥馱馬가其軍隊의隨從을야能치못할時馱  
馬의通過을기難은地又急疾을行進을要할時  
及戰鬪間의補充困難을나且多數의彈藥을  
要하되에는其隊戰線에入을야際을야其彈藥  
의全量外或一部를兵卒의排與함이可하  
나그時는各兵은襍囊及袴囊等의藏함을便  
라하나나

彈藥馱馬의彈藥을適當할時에補充함을은大  
隊長의責任이니其補充은彈藥繼列(彈藥  
數)軍制學에讓함을은보디함을法이라하  
나

彈藥繼列은卹大隊의彈藥馱馬를補充함을은  
치못호境遇에서는高等指揮官은他大隊의안주  
使用치못호馱馬로卹補充함을은可하나나

決戰의機에臨을야好結果를得호되必要함을  
彈藥으로價치하나其是은가重要件이라  
故로彈藥補充은各指揮官及兵卒의特이注

意을者나진실노機會가잇스면行方을念함이  
不可가나蓋彈藥을射盡호는步兵은其主要의戰  
鬪力을失호는者나故로其補充의能到與否호는크  
기戰鬪勝敗에影響이되나라

彈藥補充에意를用함이前示호는나何等의時든  
지만다시彈藥의補充을受得호는者로預想  
함이不可가나劇戰終日或補充의時機를得지  
못호는이잇서비彈藥을節用호는必要호는을  
知함이可가나라

## 第二章

### 第二節 騎兵隊의編制

騎兵中隊호는分호는아四小隊가되나(小隊가만일  
十伍에充치호는호는時호는小隊의數를減少호는小隊  
호는更分호는아四分隊가되나其二分隊相合호는호는  
半小隊나謂호는호는騎兵大隊호는中隊호는成호는호는나  
호는以編制의詳細호는軍制學에講述호는

歐洲雄國軍에호는上概四德露佛(乃至六澳伊)  
中隊호는三聯隊가되호는二乃至三聯隊를旅團의  
되호는二乃至三旅團을師團이라호는나나라

密集호는諸部隊호는二列호는編成호는호는나列中各騎

의間隔은其鎗의機의相觸함이度라고고列間의距離前列馬尾로부터後列馬頭에至함은縱隊에在자야는二步의橫隊에는二步니라

諸種의縱隊에서는二取호외距離는其先頭部隊第列의馬頭로부터後方部隊第一列의馬頭에至호長으로卽側호을法이라호니라

列中에잇는各騎의幅은隣騎外間隔을合호외一步天一米라故호橫隊正面의幅은其數外同호米突數니라

徒步外一步는歩兵과同호호호五珊米호乘馬의一

步는二步니라

第二節 騎兵의步度

騎兵의步度는常步外速步外馳步의三種이니라

常步는一分時間에九十步니是는馬力의久堪호호호호張緩慢호步度니라

速步는其速度에比호외馬力疲勞가甚호외호호호호此比較的專호遠距離를思行호호且諸運動에用호호其速度는一分時間에二百十步니라

馳步는最疾호호步度호馬力의疲勞호호最速

고니故로遠距離의運動에用을은得지吳古고  
흔히展開或襲擊前에行進古니其速度는  
一分時間에三百步니라

各步度는所要에從古야前掲의速度보단伸縮을  
을得古니라

以上三種의步度는常に適當에混用古야騎兵의  
利便을增進古는者니라

第三節 騎兵의隊形

第一條 中隊

橫隊의四小隊并列古는者니戰鬪主要의隊形이

리然이나遠距離行進에不便古니是는地形에  
문해隊伍의紊亂古기易흔이니라(第六圖)  
中隊縱隊의四小隊가付로又正面幅에對古는距  
離를兩古야付로重置古니集合及運動의  
隊形이니라(第七圖)

二伍一伍又四伍縱隊의途上의行進에用을隊形이  
나이를裁古야一伍가되且增古야四伍가되을은  
專히道路의廣狹에由古고四伍가되는向는  
縱長을裁古는利가잇스나能히此幅을有古  
古는道路上極稀古니라(第八及第九圖)

### 第二條 大隊

橫隊○大隊中의 諸中隊는 橫隊니라 卅로 六步의 間隔을 存方야 右로 브리 左의 一隊에 并列方나니 其用法은 前條外 同方니라 (第十圖)

縱隊橫隊○中隊縱隊에서 各中隊는 小隊幅에 六步를 加호 間隔을 存方야 并列方나니 此隊形은 縱橫二隊形을 折裡호 者라 故호 運動이 自在方야 諸方 向에 展開호 을 得호 且 其他地形이 交讓호 亦 行進方기 에 便方나 故호 龍擊待機의 運動及 集合에 適方니라 (第十圖)

大隊縱隊○中隊縱隊에서 各中隊는 小隊面에 六步를 加호 且 距離를 存方야 重疊을 謂호 且 此隊形은 正面이 狹小호 且 卅 困호 地形을 行進호 且 便호 且 運動及 狹長의 地에 集合호 且 適方니라 (第十圖)

大隊中隊縱隊○各中隊는 橫隊니라 中隊面에 六步를 加호 距離를 存方야 重疊호 謂호 且 此隊形은 容易호 諸方向의 展開호 且 卅 常에 運動에 用호 (第十圖)

第四節 戰場에서 騎兵의 動作及 龍擊

第一條 戰場에서 龍擊待機間의 動作

總論○襲擊의 好時機는 其來가 甚稀함이 其去가 最速  
 함이 其好機에 援호 襲擊은 騎兵 裝功에 明時有의  
 要訣이라 此要訣을 充호 列함은 되호 諸方向에 對함  
 外 機을 失치호 且 襲擊에 轉得함은 準備함은 必  
 不可함이라

騎兵은 敵火에 對함外 目標의 大함은 敵彈에 對함外  
 馬匹의 恐怖함은 隊伍 且 勿亂함은 故호 叫待機間은  
 必호 敵火를 遮蔽치호 必함은 不可함은 敵火及 襲  
 擊 區域外에 在함外 且 集合隊形을 取함外 駐  
 止함은 或運動함은 其 區域內의 止호 各方向

이 特이 危險함은 方向에 對함外 迅速히 展開함은 隊  
 形(中隊縱隊或縱隊橫隊)을 用함은 要함은 必함은 다  
 搜兵○中 小隊戰鬪의 準備호 列함은 其隊長은 夫  
 前進함은 必호 地形의 適否를 檢定케 함은 要함은  
 必함은 此勤務호 搜兵의 任함은 是호 是호 爲함外 各小  
 隊로 必호 必호 是호 敏捷호 兵通常 二名을 出함外  
 狀況에 應함外 側方의 小隊에 出호 且 練熟호 下  
 士一名(或士庫)으로 指揮케 함은 必함은 다

搜兵은 駐步함은 必호 其隊外 目擊의 由함外 連絡호  
 保持케 함은 必함은 指示의 方向에 前進함은 中



擊의任을兵外에치키려戰鬪參與을新銳의兵을沒  
 方備함이가장肝要하니是로爲야戰列區分을行하  
 니蓋騎兵이서로衝突을하노常의紛戰亂鬪가나타  
 其進退가되치怒濤가고各騎兵은全勝全敗의兩極間에  
 浮沈가나此時에當方야新銳의兵을用을者가概勝  
 敗의게을制함을得가나然이나開戰際의第一戰列  
 上敵을取하지안케部署함을念함이不可가나타

騎兵中隊上其兵員이寡火호故로卽常의비다시戰列  
 區分을行함이能치못가나힘써一部隊로卽第二  
 戰이되나數中隊로되成을部署隊에는戰鬪中隊의

스나二戰列에區分함이可가나타

第一戰列은第一線에在가야敵의거衝突을行하노  
 者면힘써兵員의多를要가나是一은開戰際에모  
 러勝을制가노되문이오一은침서敵을包圍하노  
 되문이라

戰列隊形을取가야襲擊의순에長호距離를行進  
 할되노天第一戰列은適宜의縱隊를依가나의可  
 가나其橫隊에展開함은장호襲擊를行치려  
 할時을要가나第二戰列의任은第一戰列의  
 援隊라敵의側面을攻擊가야我側面을庇護

方又第一戰列을 收容言立 或突破言立 敵의 當言立  
且 接戰의 際言外 特이 夾戰을 有利케言立 可在言外 但  
接戰에 參與言立 必要되 言外 是 容集 隊次로 卹 進擊 隊의  
跟隨言者니라

中隊의 隊數及 兵員이 許言外 三戰列에 區分言立 이  
나 二戰列 上 第三戰列은 預備된 各戰列 相距言度  
上 戰列의 兵員을 隨言外 不一言外 通常 第二戰  
列은 第一戰列 보 當 田 谷 二 이 我 隊 面 에 背 言 距 離  
를 存 言 立 或 危 險 言 外 是 我 勢 力 을 遲 言 側 方  
에 點 位 言 立 第三戰列은 第二戰列과 反對則이

나 第二戰列의 齊頭面보 當은 稍 後 退 言 外 占 位 言  
나 故 全 戰列의 形은 마치 魚 鱗 狀 言 外 矣

三戰列이 如此 容 難 難 存 言 外 如此 이 排 備 言 行  
進이 容 易 言 立 且 所 要 의 部 隊 間 戰 列 言 外 他 隊 上  
此를 控 言 是 得 言 外 何 方 向 에 面 言 是 同 一 의  
隊 形 을 取 言 外 戰 을 取 言 外 得 戰 言 立 別 敵 線  
을 包 言 外 擊 言 立 可 言 外 矣

第三條 龍表擊

騎兵의 戰鬪 上 所 謂 龍 表 擊 의 一 法 이 矣 是 也 이 其 目  
的 이 上 巴 上 敵 을 蹂 躪 言 立 白 兵 을 揮 言 外 殲 滅 言

言正曰在方ニイテ大別方ニ密集龍襲擊及散  
開襲擊の二種イリテ

第一款 密集襲擊

密集龍襲擊ニ密集隊次ニ用言正ニ襲擊法イリ  
其要正專テ衝力の大言正 言正敵の騎兵又密  
集言正歩兵に對言正外ニ常に此法ニ用言正騎兵の  
相戰外ニ假令其兵負イ寡少言正外ニ密集隊次ニ常  
に散開隊次に勝言正者リトテ密集龍襲擊ニ其速  
力イテスル制限ニ受言正正言正免ケ難言正ニテ  
密集龍襲擊外在言正外ニ隊次の整正テ團結の堅確

言正要言正ニテ正言正正騎兵ニ韁言正縱言正疾馳言  
正隊伍ガ勿テ紊言正外紛擾言正釀言正恐イット言  
正由由龍襲擊ニ仗テ敵中の突入丑列言正時機  
ガ少言正行言正不可言正且馬匹ニ龍襲擊後トシテ  
若干匪難の追擊言正為言正餘力言正保存チ外言正  
不可言正此等外故ト由其龍襲擊言正始正徐言正  
外漸次正其速力言正增加言正イ可言正天初期外正  
正戰鬥力言正財言正終期外至言正外正電光の閃  
ガチ奮進激突言正外復當言正不可言正勢力言正要  
言正言正イテ彈機外壁言正言正十十分其機言正

壓方五終에放方야十分其力은遲케함개함이是니라  
密集龍擊에用함隊形에二種이잇스니橫隊及縱隊가  
是니라

橫隊龍擊은騎兵의專用함바니何故호騎兵의主  
要호戰鬪隊形이니密集隊次中多數의白兵을  
戰線에得用함은此隊形의莫差호者니라然이  
나호치러展開치外나호者호橫隊行進中其  
一列을推進方고且其次負을補填方호되문에  
第二列의必要니라

此他橫隊호諸部隊가同時호敵의게衝호大호함을

得方고又隊面이廣闊함으로此龍擊隊의敵  
은호包圍方호得利이호니라

縱隊龍擊(梯隊龍擊)은橫隊에展開함時間又地  
域호正時假令敵에게最近接호隘路호브리出擊  
함際호側方에展開호를要함時의龍擊에用함  
나其他敵線의一點을間斷함시衝突함時又호  
은此龍擊法을逆用함리나其法이先頭部隊가호  
列龍擊方고其他部隊호展開함에天限隨호야  
此獨立方호戰鬪에參與호호되在方니라

### 第二款 敵開龍擊

散開龍擊은各騎一步乃至三步の間隔を取方外一列의  
 散開方外行方上龍擊法이니其衝力이微弱方다  
 運動의迅速호다敵火의被害僅火호利가잇스다故  
 以此法은敵의砲兵或散開호步兵을攻擊方호되  
 用方호又諸兵種의對호追擊에用方호다

散開龍擊은橫隊로브리호의常니橫隊의展開호  
 호裕餘성호時호天縱隊로브리호호잇은境遇에  
 든지호用散開호면各騎호가강迅速의步度호用敵  
 의거建호호勉호다니其整頓과列序에顧慮치  
 말호호齊頭面上在方外行進호호되注意호호을要

호를辨이니其龍擊의要領은密集호호者에考  
 호니但各兵の間隔이其度を遇호면兵力이分  
 散호外突進의勢力을失호호且集合이甚難  
 호다라

第五節 散擊

散擊은騎兵隊가임의敵外近이相接호기에當  
 호外敵의斥候及騎兵을距支호호我戰鬪準備  
 及運動을掩護제호호是에派遣호호部  
 隊通常小隊의戰法이니敵騎를遠距離地에  
 拒支호호호火器를用호호다

其他散擊隊의 動作은 其長의 受令은 任務에 因하여 定方  
二者니라

散擊隊를 集收코 卽方에 中隊長은 集合의 号音을 用方  
니라

### 第六節 追擊及 集合

追擊은 〇임의 屢述함이 騎兵은 追擊에 適當호 兵種이  
다 故로 他兵種의 戰勝을 令함도 自己龍擊의 全勝을  
收함도 卽其追擊에 在호니라

殺傷과 捕獲으로 卽大히 敵의 兵力을 減殺호 卽다시 戰을  
이 能치 吳호기 에 至케 함호 勝利호 神速猛烈의 追

擊을 由호 外始호 外收得함의 可호기 만일 敵兵을 擊  
退호 外障物或困難의 地形에 覺함을 得함은 其亂으로 更  
甚케 호 又 敵의 他隊中에 拮据케 호 卽我호 大호  
抵抗을 被치호 卽併호 外 敵의 他隊로 敗走케 함을  
得호니라

追擊에 卽述함이 專히 散開隊次를 用호기 此隊次호  
敵의 密集部隊가 新히 現出호기 卽遇호기 甚히 危險  
의 形勢에 陷호기 卽恐이 잇호기 卽卽 不得의 事變에 應  
호기 密集部隊를 後續케 함을 要호기니라

集合 〇接戰과 散開龍擊或追擊의 後에 卽集合은 가

장迅速히施行함을要하니何故오分難호騎兵은十分에戰鬪力이업습이니라其集合은호히러步兵의併合에次호日列次를顧慮치말고힘써速히指揮官의後方に到호야密集二列의橫隊를佐함이原則이니라

### 第七節 騎兵의對空戰鬪

彼我의騎兵이相戰호는當호야는隊伍整頓호고團結이堅固호且且勢力이잇호과運動의巧妙호且側面을攻擊호且戰列區分은適當히活用호且巧히白兵를使用호는호極히緊要호

나라별호戰鬪의勝敗호호르志氣의盛衰에由호야判호호지호故호르진신호騎兵되호者호戰術을能히호고勞苦에屈치안호且障碍를恐치안호且敵의強弱多寡를顧慮치안호且龍擊에令이호호下호면歡喜의情이腦裡에充滿호야競호호야應호호精神이업습호호不可호호나

騎兵은如何호境遇호호지決호敵騎의龍擊을俟호호不可호호나만다시彼의머문호龍擊을行호호리호其龍擊은힘써敵의薄弱部에專히敵의側面에對호호호行호호호緊要호호故호敵騎에對호호

我側面을掩護할事도亦同히緊要할것을推知할  
이可하니라

龍擊의要는機를失키말고橫隊에展開方且全力  
을擧方야衝突方도在方니但接戰이并敗潰호敵  
을追擊호는서문에馬力을貯蓄을要하느니라만일我  
橫隊에展開호는過早호야敵은오히러縱隊로써  
運動方호利를有호면彼가此進退自在호는隊形을  
利用方야我龍擊의目的을誤키호는可하느니라  
일遲에失호는時호彼가我隊伍未整호는機를乘

호야來龍方호는騎兵에長호는者호는此展開의時機  
를洞察호는眼力을練磨키야함이不可호는다  
임이整備호는敵騎에對호는야호는我騎兵은한번久히  
連步를爲호는後駈步로써短距離를通過호는고버금  
伸長駈步로終호는야龍擊步度로核호는야急히  
敵을包擊호는要호는나니라然이나敵騎展開中  
에在호는지或轉換運動호는虛를乘호는리호는  
호는遠距離의地호는되리駈步를始호는나니라

方今騎兵은戰場任務의外호는히러軍隊에先驅或  
後繼호는搜索警戒를行호는最要務에任호는고  
騎兵이此任務를果호는디호는我外同一의任務에服







을을나니是로爲고야騎兵은더우獨立力을有하기에  
至고나니라

第一條 徒步戰을行을境遇

一敵의守備를隘路를開을境遇

二敵의가문列要地를點領고야我步兵의來會고기은固  
守을境遇

三我軍退却의際고야敵을一地에支을고且強히展開커  
고야由是로時間을得을境遇

四我舍營地를防禦고을境遇

五騎兵의을卽下馬고연인의其騎兵의資格을失고야

不完全을步兵되노디遇키吳고은故로徒步戰은騎兵  
의非常手段이라徒步騎兵은步兵갓치處에運動  
고야오리火戰을行고은性能을有키外남으로卽通  
常徒步戰의始로브러임의其全力을盡고야激烈果  
敢키戰鬪고야卽速히其目的를達고나니라  
騎兵에徒步戰의性能을有키고은利로迅速히所望의點  
에赴고야不意에戰鬪를開始고은其戰鬪가不  
利고은고나니乘馬고야迅速히退避을일키是나니라

第二條 徒步戰의區分

徒步戰의單位는中隊나其區分이左外如고나니라

第一徒安三戰鬪을 部分

第二馬上預備隊

第三手馬

徒安戰은 如上에 乘馬 第一第二小隊로 卅 第一散兵小隊를 編成을 第三第四小隊로 卅 第二散兵小隊를 編成을 五各散兵隊로 一名의 小隊長이 率을 卅 中隊長 或 一名의 士官은 此兩小隊를 指揮을 하니 其戰法 步兵의 散開戰法에 準을 하는 者니 卅 散兵線 援隊

馬上預備隊는 徒步戰은 如上에 全中隊를 擧을 卅 使用을 하니 卅 何 及 大隊 徒步戰을 卅 卅 時에 設置을 하는 者니

通常 容集을 卅 徒步戰의 準備 及 實行 中 特히 劍面에 在을 卅 外 搜索 及 警戒을 繼續을 卅 散兵의 下馬 及 乘馬를 庇護을 卅 且 手馬를 警備을 卅 卅 任을 卅 小部隊니 馬上預備隊를 設치 卅 卅 時에 乘馬 卅 使로 卅 卅 代用을 要을 하니 卅

手馬는 徒安戰은 如上에 中隊가 卅 下馬을 卅 時에 士官의 卅 下에 屬을 卅 卅 可을 卅 卅 時에 當을 卅 卅 正校은 手馬傍에 位置을 卅 其他는 各小隊에 一名 下士를 置을 卅 又 散兵의 連絡을 維持을 卅 卅 卅 卅 若干의 兵卒을 置을 하니 卅 手馬는 不意의 敵龍衣를 受치 卅 卅 警戒을 卅 卅 陰蔽을 卅



馬匹을持케 하느니라

橫隊縱隊의別이엄시散兵되를者가下馬호면其銃을提호  
호擔호외駐步호指揮官의所在에集合호느니라

第三章 砲兵戰術

第一節 砲兵隊의編制

山野兩砲兵中隊各三小隊호砲車隊第一段列호第  
二段列호區分호호砲車隊及第一段列호호  
者호戰砲隊라호호各段列호半段列호分호  
호第一及第二五圖호中隊호大隊라호호野  
砲兵二大隊及田砲兵一大隊호近衛호在호外호野

砲兵二大隊호聯隊라호느니라

此外編制의詳細호軍制學호講述호느니라

第二節 砲兵의步度

野砲兵호野砲의步度호二分時間호常步호約八

六米호速步호約二百十米호駐步호約三百米호만

호速步호호호持續호호호其速度호減縮호호

一分時間호約百八十米호可호느니라

山砲兵호山砲兵의步度호駐馬호繫駕호論호호

호常步호約八十六米호速步호約百四十五米호호

第三節 砲手의位置

野砲兵○前車는接續하고는砲手의砲側定位는第十五圖五砲後定位는第十六圖五車上定位는第十七圖五放列定位는第十八圖五고니라

山砲兵○引桿를裝着할時砲手의砲側定位는第十圖五砲後定位는第二十圖五放列定位는第二十一圖五고니라

此外山砲兵은駄馬外繫駕에從고야諸卒의定位는第二十二及第三十三圖五繫에在고야砲手下砲後에位置할時는輪馬上砲手の背後로부터一米의距離를取고야니라

### 第四節 砲兵의隊形

#### 第一條 中隊

橫隊○砲車隊는第一線이오第二段列은第三線이오第二段列은第三線을成고야集合反運動에用고야其兩段列을集合은集合에時에限호는第二及第二十五圖○砲車의定間隔은十四米五間收間隔은五米되이常이니三米以下에減호이쉽고니라

砲車縱隊○各砲車는二米의距離山砲兵의駄馬에在고야各馬는二米五十이오繫駕에在고야는七十五冊米의距離를存고야서前後고야니運動及行

軍의隊形이니라 但段列砲車隊에 跟隨할時는 其 距離가 十米 이하 (第廿六及第廿七圖)

放列의 各砲車는 定間 隔으로 卅一線에 排列하고 第一 段列의 三彈藥車 山砲에 在고 卞는 砲車에 屬호는 六 彈藥馬는 砲車의 後方 十米 之前車 第一段列의 六 十米 距離를 存호는 卞는 放列의 一側 又 兩側 後列에 在고 卞는 掩蔽케 호는 卞는 (圖上에 는 北 背後에 在호는 是는 戰鬪隊形이니라 (第廿八及第廿九圖)  
彈藥車(馬)는 現時의 形勢가 許호는 卞는 繫索馬를 解

호는 其 鞍馬 或 馱馬 是는 掩蔽호는 卞는 可호는 卞는 卞는

自 餘의 第一 段列은 常에 其 砲車隊外 連絡호는 卞는 直接 戰線에 隨從호는 卞는 卞는 放列의 後方이 約 百米로 危險이 少호는 卞는 翼에 在고 卞는 掩蔽호는 卞는 第二 段列은 放列陣地의 後方 約 六百米로 同호는 卞는 掩蔽호는 卞는 且 交通便利호는 卞는 進退容易호는 卞는 地를 撰호는 卞는 卞는 卞는 應 호는 卞는 隊形을 取호는 卞는 要호는 卞는 卞는 卞는

放列은 前面과 後面과 及 側面에 在호는 卞는 得호는 卞는 卞는

니라

第二條 大隊

橫隊○橫隊에서 兩中隊로 其砲車間隔의 二倍에  
 等호 間隔 二千米을 保호 外 同線上에 併列호  
 호니 此隊形은 集合及 運動에 用호 호니 라

縱隊橫隊○砲車縱隊에서 兩中隊 同線상에 在호  
 호 約百米의 間隔을 保호 外 併行호 호니 此隊은  
 運動에 用호 호니 라

此間隔을 約三千米에 閉호 호호호 者를 閉호 縱隊橫隊  
 라 호 호니 所要호 約十米호 호지 閉호 호호호 得호 호 호니 此  
 隊形호 호亦 集合及 運動에 用호 호 호니 라

中隊縱隊○橫隊에서 兩中隊 約八十五米의 距離를 有

호 外 前後에 重疊호 호 호니 此隊形은 運動에 用  
 호 호 호니 라

砲車縱隊○砲車縱隊에서 兩中隊 約千米의 距離를  
 有호 外 前後에 重疊호 호 호니 此隊形은 運動及 行軍  
 에 用호 호 호니 라

放列○放列은 兩中隊 同線上에 梯隊에 布列호 호 호니 라  
 大隊長은 第一段列及 第二段列의 間에 兩中隊 共同호  
 位置를 概定호 호 外 命호 호 호니 라

第三條 聯隊

聯隊의 取호 호호호 隊形은 聯隊長이 命호 호 호니 各大隊長은 實

大隊을并列하고 或重疊하게 하니 其間隔及距離는 大隊에 中隊의 間隔及距離에 同한 것이 常이니라

放列隊形에 在자야는 每大隊에 梯隊를 立은 可하니라

### 第五節 砲兵戰鬪의 通則

砲兵의 戰鬪은 砲라고는 射擊이니 其射擊力의 大小는 該射의 適否에 關하나 其適否은 距離의 側定에 基한 彈著의 遠近을 觀測자야 適當히 修正호는 一法은 이니 故로 砲兵은 降雨或濃霧時 其他極히 遠大空距離에 在을 時 觀測이 困難하거문 其効力小하나 方今野砲는 能히 四十米以上이 오니 砲는

三千米以上에 達호는 如此한 距離에 是 砲戰함이 尠稀호는 亞호는 이거문이니라

砲兵은 戰鬪의 始로 是 優勢의 砲數를 排列호고 火力을 集中호는 緊要호는 나 此理由外 該射에 時를 費호는 故로 卽 砲兵中隊를 分割호는 是호는 必함 卽 避호는 기를 要호는 나니라

砲兵은 敵의 小銃이 有效射距離外에 是 動作호는 最利호는 나 決戰의 際자야 兩要호는 猛烈호는 敵의 小銃火라도 決호는 忌避호는 이 업시 我步兵에 隨伴호는 야 援助호는 者호는 나니라

我軍隊를超過方外射擊을함은避함의不可함나  
이를行함은砲兵隊長이其免됨을確認을  
하여限方니라

### 第六節 砲兵陣地の模定

砲兵隊長은放列布置에몬저陣地를模定함의通  
則이니其此를模定方는되指揮官의目的을  
從方外一般의戰況을顧慮하고오리러他兵種  
과共同動作을得為方는되注意함을要方  
니最初의陣地에就方는砲兵의數는指揮官의命  
令을從함

陣地를模定方는되射擊効力의多함을主眼이라  
거나併方外自己掩蔽의利를顧慮함을要方  
이니其件의概左外如方니라

#### 一 射界廣濶을事

二 敵을瞰制을事(敵의向方外緩傾斜를일호地)

三 地幅이十分寬事(中隊는四十乃至百米의正面을有方)

四 各中隊는四十乃至百米의間隔을有함을利라호

五 四호五호近距離地호掃射함을得을事

六 放列正面은호平坦堅硬호且通視함을得을事

七 放列正面은호直角을事(利호)

그러나此至當의正面을撰호는特히緊要호니是보다시  
其正面을變換호되니我射擊을止호且損傷을  
受호는恐이잇느니라

七敵을對彈의觀測을困難케호는事

八進退容易호는事(但專守防禦州는敵의接近이困  
難호는要호)

九適當호는段列의位置를得호는事(아又조우側方  
에蔭蔽호)

自己掩蔽호는되砲은高地稜線(頂線或防界線  
의背後에置호는利호호又正面前의土地가柔

軟호는지或斷絶호야我運動을大케됨차호호  
此外我射擊을妨호호는遮蔽物(樹叢과籬牆  
과堤塘等)放列의前方百乃至二百米의곳에잇  
스면不利호니此에反호야放列地가疏曠호는지  
만인其近傍에著明호는物體잇호는不利호니라  
前衛砲兵의陣地는我軍의展開을掩護호호호호  
砲兵의陣地는退却을掩護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進路의近傍又退路의側方에此陣地撰定호  
을得호호는極利호니라

砲兵陣地에兩望要件이前示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全在陣地를 覘見함이 實際에 概難하니 故로 亦 多  
로 多利를 具有 全陣地로 卽 滿足지 안함이 不可  
나서 지로 最良의 陣地를 亦 可 行 否야 撰定에 多時  
를 費함을 亦 射擊 開始의 機를 誤 否야 其所 得의  
所失을 償치 못 否니 砲擊 開始의 遲速은 多 則 全  
軍의 勝敗에 関함을 卽 卽 陣地 撰定은 極히 迅速에  
施行치 安함이 不可 否니 진심 則 砲兵에 長 否 者 亦 多  
를 多 其 眼力을 養成함이 可 否니 可

兵卒及砲車를 掩蔽 否 否 是 時 間의 잇스면 工事  
를 施함이 可 否니 防禦 陣地에서 卽 殊 然 否니 卽 前

車及彈藥車를 掩蔽함을 工事 卽 之 之 準備 全 陣地  
에서 卽 施行함을 得 否니 可

數中隊가 一 陣地를 點을 設치 卽 卽 비로 正 面을 至 當  
則 制限 否야 後 着 砲兵 是 處에 餘地를 存 置함이 可 否  
나 可

數中隊의 陣地에 在 否야 卽 地形 卽 風向 及 預期 全 戰  
況에 從 否야 諸中隊를 一線 或 梯隊 聯隊에 卽 概  
大隊 卽 梯隊를 設치 否니 可 否야 排置 否니 可 否야 梯隊  
卽 相互의 距離가 過大 否 是 處에 射擊의 指揮  
를 卽 否함이 不可 否 卽 其 間 隔이 過小 否 是 處에

前梯隊에 危險을 及지 안게 함이 可하니 砲煙  
은 常에 風으로 隣梯隊의 後方을 通過케 하  
노리가 있나니라

正面의 狹隘한 地形이 許하면 放列線을 前後에  
重疊하야 梯隊를 得得하나니라

第七節 陣地 進入 及 陣地 變換

陣地 進入 ○ 砲兵 隊長은 揆定한 陣地에 留하야 敵  
의 射目을 中隊 隊長은 스스로 其隊를 率하야  
陣地에 進入함이 常이다. 獨立 中隊의 在하야 中  
隊長이 陣地에 留하야 射目을 一小隊長이 其隊

三 率來호

陣地에 進入하노니 丘陵 岬 長 道路上을 行進하야 且  
遮蔽物을 利用하노니 注意하리니 是를 爲하  
야 砲車 縱隊로 卽行 進함이 可하니 然이나 蔭蔽  
하야 陣地에 近接함이 能치 못하호니 丘陵 岬 濶  
한 正面을 兩함이 可하니 敵前에 在하야 屢번 隊形  
을 變換함은 避함이 可하나니라

展開호 丘陵 岬 敵의 射界 外 外 遮蔽物의 背後에 하  
하야 敵火의 下에 在하야 하야 側面 運動을  
避함이 可하니 不得已호니 砲車 縱隊를 하야 良

方니라

歩度の通用은戰鬪의目的과戰況及地形에關古니馬  
力을顧慮古도機를失古이업고砲車로放列陣地에  
到케古으로卹基準古니라

敵眼에觸치안고陣地를占領古야不意에射擊을開古  
을利라古니라陰蔽古야進入이能치못古는陣地에서  
노其動作이迅卽迅速古을要古니라

陣地進入에문제時間의裕餘를得古는時數中隊가同  
時로射擊을開古을要古는時又敵의射擊下에  
在古야放列을布古는時노放列陣地에近接古야陰

蔽古고待機의位置를占古야射擊準備를古  
야靜肅平順序를保古야放列陣地에進入古을要  
古니라

陣地変換○陣地変換은高等指揮官의命令이아  
나면許치아니라時機가要古면其許可를講  
古를得古나戰況에因古야神速히前進을要  
古는期에限古야獨斷의處置를古고報告古  
이可古나陣地変換은잇는境遇를問치말고砲  
兵이一時其効力を失古노者故로戰鬪의目的을  
達古노는문제必要古이아나면爲치勿을지니라

陣地를發換하는것은 먼저砲에裝填하고彈藥을補充함이可하다

敵前에서陣地를發換하기에當하여二中隊以上에는通常梯隊을用하고退却에는獨立中隊도亦梯隊을用한다던境遇에서駐止하는梯隊도其射擊을持續하는者이다

陣地發換에際하여新陣地の揆定은第一陣地에서天을時間의裕餘가업슴으로卽隊長은其隊에문리急進하여一見으로卽揆定함이可하다故로미리陣地發換에所要한土地를詳悉하고手段을運함이良하다

한다나但臂力은三배함이고此火를轉位는陣地發換으로認치아나한다

退却의際에서陣地の揆定은隊長命令을與하여將校의저任함을常이라함

第八節 射擊의指揮及射擊의種類

第一條 射擊의指揮

砲兵隊長은指揮官이示한目標을配當하여戰鬪의方法을定하고死傷을顧함이업시各戰況에應하여常に主要한目標을射擊함이可하다

戰鬪의始에는通常敵의砲兵으로卽目標하고은문리장

我에有한部隊를射擊함이原則이니然이  
나만다시撲滅하기易한者를射擊함이니라  
敵의步兵에對하여는密集隊를目標라함이通則  
이니若不然한者는散兵을目標라하고射彈은  
廣히其全線을覆리함이可하니라

遠距離에서騎兵을目標라함은功을奏함은其集  
團할時에限고此外又高考司令部로써目標  
가됨이있으니凡射擊은目標를變換함은  
다시試射서문에時間을徒費함으로써一目標  
에對하여十分成績을顯케함後가아니면

忘리此를變換치아님을要함이니但危患의  
境遇에서는大隊長或中隊長은獨斷으로此  
目標를變換함을得함이니라

準備의整이不意에出함은一道에指揮是明同時  
에射擊을開함은크거効力を増함은者라數中  
隊의射擊을同一의目標의集中중언神速히  
成績을收함을得함이니故로敵兵이優勢의  
上인것은亦一時其一部에射擊을集中중함  
効力を顯함을誠함이可하니敵의各部에損  
을致함은射擊을數目標排備함은

함은重要의理由잇노여이니라

大隊長은大隊의射擊을指揮호니然이나아도  
조로中隊長의獨立을圖함이不可호니라

### 第二條 射擊의種類

射擊은其速度外其彈種에從호야二種類에大別호  
니라

#### 第一款 速度의關호射擊의種類

速度의문에는緩射外尋常射及迅速射에小別  
호事

緩射호每發射에中隊長이跑車의号數를号令

호호호고其速度호一定치못호나最緩慢호射擊  
이니라

尋常射호六門中隊에在호야호約十五秒時에一發二分  
時에約四發의速度를用호니每發射에射彈을  
觀測함을得호미可호니라

迅速射에在호야호裝填호砲호其順次로從호야함서  
速호發射호니其速度호六門中隊에서호約八秒  
時에一發一分時에七八發以上이可호나但射擊의觀  
測은要치아니호니라

此外호치러急放호호者가잇호니其裝填호고

且照準을終了砲車는号令에應方外只發射  
 方々又小隊或中隊의齊發의이付其隊의全  
 砲車는一齊히發射함  
 以上射擊의種類는戰鬪의目的과時機의関否  
 外揆用方々外只持續戰或戰鬪의初期에付  
 는緩射又尋常射를用方外決戰의時機外乘  
 는機會及近接戰에付는迅速射를用方外  
 其外衆多의火力을同時로聚注할時는齊  
 發方外又運動方는敵의對方外修正이完盡時는  
 機를見方外特히急放方外는方々外

第二款 彈種에関方外射擊의種類

彈種에関方外는着莖射擊과火射擊及霰  
 彈射擊에小別方々外

着莖射擊○此射擊에는榴彈及着莖을榴霰彈  
 을用方々外其激突에由方外破列衣를破片及彈  
 子의문에効力을顯方々外其射擊利는概左外如  
 右

一試射에適方々外是는其激發을濃烟에由方外  
 彈着을觀測方기에便함은此由方々外  
 二障礙物只家屋과橋梁과牆壁과阻絶等을

破壞方호되適方나榴彈에在方야는殊然호니라

三我兵을越過方外射擊호되適호니라

四信管裝置를要치外남으로卽激戰에드其使用이確  
實호고且堅硬호土地에射霰彈射擊에代用호을  
得호니라

曳火射擊○是는曳火호榴霰彈으로卽호되射擊이  
나目標의上方空間에射破列호을外破片과彈子  
의서문에効力을顯호호者나此射擊의利亦概  
左外如호니라

一着裝射擊은目標所在의土地柔軟호되호破列

의効力을減殺호호曳火射擊은土地의문제에制  
限호호노인호호이다

二曳火射擊은殺傷의威力이著호호호卽隊伍에  
對호호又掩蔽物의背後에據호호目的에對호호  
外効力이잇호호니라

三射距離가分明호되호實호濃密호彈雨호卽  
敵의거聚注호을得호호니라

霰彈射擊○是는散裝射擊이라其使用은單簡  
迅速호호接近호敵에對호호外防衛用에供호호  
호호三百米以內의距離에射効力이잇호호平坦

堅硬土地에 서彈丸이跳躍을하여 그効力이  
更大가니라

### 第九節 砲兵의掩護

#### 第一條 總論

砲兵은임의其性能의條에述호호치敵襲에對  
호야其安을自保함이能치吳호호寡弱호敵  
兵이接近호호도容易케我射擊을妨害케호호  
호至호則砲兵은一般排備에由호야他兵種호호自  
然掩護利함을原則이되고脅威를受호호砲兵隊  
의近傍에在호部隊호別호命令을受호호호호常

호援助호호호義務를有호호所以라故호砲兵의  
저特別호掩護兵을附호호는策의得호호가아  
니호砲兵이一時他兵種과遠隔치아남을得호  
吳호境遇에함이可호호라

#### 第二條 掩護의兵力及兵種

掩護兵은호호本隊의戰鬪에參與함이能치吳  
함호호호호호호其兵負을節減함이可호  
니其兵力은砲兵의大小의危險의程度에應호  
호不一호호호라

掩護의兵種은砲兵運動호호호騎兵을擬用

자나니是는騎兵은搜索에適當으로卽令이砲兵  
 이戰鬪할時上步兵을揆用자나니步兵은能히各戰  
 況에應當으로卽令이다地形又戰況의因자敵의散  
 兵이潛匿자아接近할時方非上步兵이안나면概用  
 方기難자나니

### 第三條 掩護兵의動作

掩護兵은砲兵運動間은危殆多호호方位를行進자아其  
 行進方向을搜索호호砲兵戰鬪를爲할時上危殆  
 호側方에셔호모조로上遮蔽자아占位호호其方向  
 을監視함이可호호나니

掩護兵이騎兵일時上遠히搜索호호首力은側方  
 後의位置자아龍來호호敵兵에對호호機를投  
 호호龍襲을行호호勉호호호호호防守호호  
 陣地에셔호徒步戰法에依호호호호호得지호호  
 호호나니

掩護兵이步兵일時上側方前에셔適宜의陣地  
 를點顯호호遠方호호敵兵을防支호호其力호호  
 호호砲兵에셔及지호호호호호호호호호掩護兵  
 의一部上敵騎의急龍襲에對호호호호호砲兵을  
 掩護호호호호호砲兵의及接近호호호호호호호호호

나니라도 또 掩護兵의 位置에 砲兵의 動依이 變호其 射擊을 遮障함이 必함은 要함

砲兵이 射擊을 中止함이 退却할 時호 掩護兵은 砲兵이 은연히 危殆의 虞 없기 必지 其地에 駐止함고 만일 我砲兵이 刺히 敵의 近薄케 함호 時호 奮勇의 當함이 砲兵을 救脫케 함은 要함나니 是로 爲함야 掩護兵은 往호 後衛의 要領을 服膺함이 必호 나니라

掩護兵은 其任務의 要需가 아니면 念히 戰鬪을 交함이 不可호 者나니라

第十節 攻守의 砲兵

第一條 攻撃

攻撃에 砲兵은 遭遇戰과 防禦排備함이 敵에 對함을 從함이 其動依이 不一호 나니라

遭遇戰의 在함야호 砲兵은 前列大히 步兵의 力을 勞치 且호 戰鬪함이 得호 면 指揮官의 決斷의 餘地를 與함이 大호 나니라

攻撃의 目的을 達함호 디호 始호 보호 敵의 砲兵을 壓倒함이 極히 緊要함이 運動과 射擊의 神速은 先制의 利을 必호 호 好手段이 나니 함이 敵을 回復함이 能호 못호 戰鬪의 陷호 者라 我가 展開敵의 先호 함야

得을 공은 目的을 達할 공이 敵의 非難을 나 相反을 境遇에  
 에 나 我砲數가 畧이 敵과 均할 공이 나 猛烈을 砲兵  
 戰을 預備할 공이 나

防禦 排備을 敵을 攻擊을 하디 開進을 後에 戰  
 鬪를 開할 공이 通則이니 此時의 도 亦 射擊의 優勢  
 를 點할 공이 아니라 其 奏功期치 未을 故로 始부터 全砲  
 兵을 陣地에 就할 공을 要을 하니 有時로 敵의 砲  
 兵을 避을 하디 霧의 夜暗을 利用을 하 敵의 接近을 必  
 要가 步兵의 說을 파 如을 나

攻戰의 種類가 如何에 拘기 不得고 凡 砲兵은 優勢의 砲

를 備을 하 開戰을 하 敵의 砲兵을 差 靡을 立 指  
 官으로 攻擊點의 指示를 受을 면 其地點에 向을 하  
 射擊을 集中을 하 可을 나 然 射擊을 此點을  
 射擊을 得을 공은 能치 彼我를 辨別을 하 射  
 彈을 觀測을 하 且 我軍의 危險을 及치 不을 나 此際  
 으 陣地의 發換을 要치 不을 나 利가 不을 나 此際  
 一 部의 砲兵은 敵의 砲兵이 非로 我 攻擊兵의 目標을 及치  
 不을 나 砲兵을 射擊할 공이 不을 나

我 步兵 攻擊을 始을 後 我 砲兵의 對을 하 敵의 砲兵이 非  
 로 出現을 不을 나 戰鬪를 開을 나 我 砲兵은 拘치 不

又其射擊의 勇을 明히 步兵의 攻擊을 援助함을 要하고  
其 射擊을 障地의 後方의 及方에서 預備隊의 來援을 困  
難케 함의 可함이 又一部의 砲兵은 步兵의 隨伴에서 近距離  
에 迫하여 猛烈히 射擊함을 能히 攻擊部隊의 支援  
이 되노니 大케 其志氣를 發揚함으로 倣倣 砲兵을 儀  
仗의 供함도 其損價함이 有餘함이 다

攻擊功을 奏함은 砲兵의 一部로 速히 侵畧함은 障地에 進入  
하여 步兵을 援助함이 射擊으로 卽 第一의 進擊을 行  
함으로 任함이 是則 砲兵隊長의 獨斷으로 障地  
를 變換함은 時機다 又 敗退함을 敵의 功의 我有効의

의 射界를 脫함은 進擊에 移함을 砲兵은 集  
團에서 神速함은 步度로 卽 近接하여 敵으로 新障  
地를 占領함이 能치 못함이다

攻擊功을 奏치 못함은 何로 砲兵이 變호마 進出함은 砲兵  
은 退却함을 步兵을 收容함은 逆龍來를 擊退함을 者  
다

第二條 防禦

防禦에 在하여 砲兵의 戰鬪은 通常은 列敵의 砲兵  
에 對하여 開함은 設初부터 全砲兵을 擊함은 射擊  
의 優勢를 欲함은 論을 俟치 아니함은 敵의 攻擊方

向을預知함이 능치 못할지니最初開戰을砲兵만等  
 設을放列陣地에就키고其他는陣地의中央或緊要  
 地點의後方에應援交通이便할바에據方에敵  
 의攻擊方向을洞察方에참서敵의砲兵에對  
 放列陣地를占領方에先制의利를占함이  
 니라

射擊의開始는通常指揮官의命을바나機에  
 列過遠의距離或小部隊에對하여射擊을開  
 함을避하여敵으로속히我位置를察知치  
 못方지함을要함

敵의步兵의攻擊의문에前進하기나其砲兵과對  
 戰方에步兵의임의前進하면敵의砲火를顧慮  
 치안코且掩蔽物을放擲하여敵의步兵猛射  
 且其攻擊을防過함이特이緊要하니但同時  
 敵의砲兵도射擊方이니

敵의步兵攻擊을始하는前의當方에其砲兵이優勢  
 方에砲兵戰을繼續하고無効됨을察할時指揮  
 官의命令에依하여砲兵은一時敵陣의隅을避  
 함을得거나敵이만일進方에決戰을企함  
 特別의命令이아니나도全砲兵은조금도敵의砲火를

顧慮함이 없고速出함이야 步兵을 猛射함을要  
함이니라

防禦亦無利함이야 砲兵의 一部는 敵兵의 其侵畧  
함인 陣地에 其砲兵을 進入함을 防함고 다른 一部는  
穴擊을 步兵의 對함이야 凌射함이야 預備隊外協  
力함고 敵를 陣地로 보러 驅逐함을 勉함의 可함  
니 如斯함고 最後時期의 至함기까지 毅然함이야 動  
침안코 敵과 對戰함이니라 他兵의 退却을 掩護함을  
을 得함은 假令砲車를 失함에 至함야 도호리라  
赫함은 各營을 存함호니라 附錄第三卷 Scale and

澳軍命令에 由함야 砲兵의 退함야 穴擊陣地外且  
조로 側方又 隘路後에 揆定함을 得함은 此호 交戰中  
需要亦 火함者 天通常 敵兵의 逼薄지 아니 砲兵  
호 卽任함고 猛烈하게 射擊함야 敵兵의 追擊을 扼  
支함함의 可함니라

엇든 境遇에 든지 守者가 攻者를 擊退함면 砲兵은  
其火力호 卽 猛烈하게 敵을 追擊함의 可함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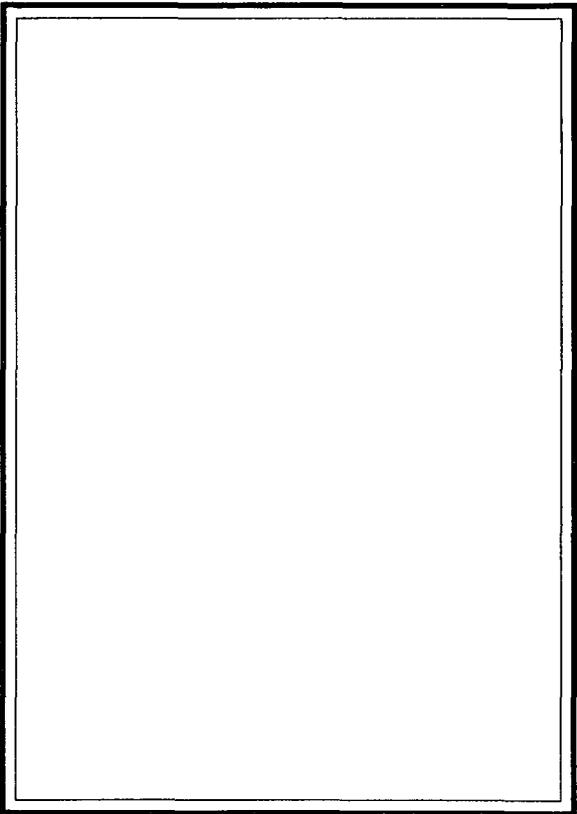
### 第十一節 砲兵의 彈藥補充

放列의 彈藥은 第一段列호 卽 第二段列의 彈藥은 砲兵彈藥과



列에 派遣 言니라

凡 彈藥補充의 到否 上 戰鬪의 勝敗에 影響을 受이 極大호  
所以 上 임의 步兵 彈藥補充條의 說言 矣스니 砲兵에 上 殊  
異호니 砲兵의 戰鬪 上 上 射擊의 一法이 實을 辨이니  
其 彈藥을 射盡호면 一時은 死이 其兵의 價値를 失호可  
나 然則 砲兵은 假令 其 彈藥이 缺호호야 退却지 안호陣  
地에 止호야 補充을 待호호는 故호其 補充에 上 絶치 안호精  
密호 注意를 加호야 其時 機를 失치 안호 極히 肝要  
호니라



第四編 諸兵種連合

第二章 總論

諸兵種の性能은 인의迷亂을 각기 各長短이 있나故로 各兵種은 作戰間長短이 相補하고 緩急이 相扶함이 卽各々其分을 盡함이 各의 其唯一의 目的 天戰勝을 期함을 지니라

第二章 兵種連合의 利害

第一節 步兵의 騎兵을 連合을 境遇

步兵을 主力함이 騎兵을 連合함이 部隊上 搜索敵을 戒가 함외 全利이 나니라 然이나 砲兵을 有함 敵과 戰

에 當함이 나스 吳遜色이 存을 免치 못함이 如斯한 境遇에 際함이 나 輕捷을 運動에 由함이 其 損을 價 補치 外 남이 不可함이 故로 此種의 連合은 小호 部隊에 만 用함이 나니라

第二節 步兵의 砲兵을 連合을 境遇

步兵을 主力함이 砲兵을 連合함을 部隊上 大히 戰鬪力을 增加함이 且 築設을 障地外 堅牢함을 家屋及 碍 障物等에 據고 敵을 攻擊함이 當함이 其 勢力을 運함을 得함이 나니라

然이나 騎兵을 缺함이 나 卽 敵狀을 知함이 能

치 못하니 敵의 意圖를 預察함이 不能함이 始終 賊의 中에 在方니 故로 騎兵을 有함 敵의 對方에 不막치 盲目 人의 明眼者의 對함은 方니 此外은 勿려 急疾을 追擊 則 由方 外 全勝은 收함이 能치 莫호 不利가 有이니라

### 第三節 騎兵의 步兵을 連合함을 境遇

騎兵을 主力이라 方아 이에 步兵을 連合함은 部隊 固執 支援을 有함 且 陰蔽 斷絶의 地에 도 亦 獨立 作戰을 得方니 步度 緩慢의 步兵으로 始 騎兵과 連合케 함은 勿로 騎兵의 所長 速力의 利을 失함으로 卽 步兵은 此를 乘車케 함은 勿로 或 隘路를 守 備함

外 騎兵의 退却을 庇護케 함은 勿로 勿로 境遇 用 함을 辨이오 且 方今 騎兵은 不 得고 勿로 徒 步戰을 得 爲 方니 故로 步兵을 連合함은 愈 補함이니라

### 第四節 騎兵의 砲兵을 連合함을 境遇

騎兵을 主力이라 方아 砲兵을 連合함은 勿로 勿로 騎兵으로 持續 的 勢力을 有케 함 且 搜索 上 敵의 兵力을 發露케 함 又 追擊을 行함 勿로 便方니 此 連合의 爲에 騎兵의 其 動作을 箱制케 함은 勿로 步兵과 連合함을 時 勿로 最大함이니 故로 此 連合은 騎砲兵에 軍에 勿로 殆 無方니라

### 第五節 結論

以上諸節에由きて觀하면 諸兵種이連合지 아니하면 作戰上의機關이得全치 못하리라 故로軍의大單位로師團及獨立을 作戰상에團隊로 보아 諸兵種으로編組함이通則이니라

第三章 大單位一般의編則

一兵種으로州編成을最大單位로步兵旅團이라 諸兵種이連合을單位로師團이라 獨立作戰상에諸機關을具하여其師旅團一般의編制로軍制學의讓호는事

第四章 枝隊編成의는에諸兵種臨時連合의要領

作戰上의目的을達하는爲문의大支團隊로 보아一時其兵을割을하여枝隊를編成하는일이往々잇스나其枝隊上前示第二章의要旨를從하여 諸兵種을領함을常이라 하나 但로우兵種을主라 고立우어 扈繼이라 하는지는枝隊의任務外地形에從하느니라 此을要호는枝隊編成의要領은枝隊의目的及任務에必要호兵數를越過치아남파아모조로 建制部隊를分割치아나호되在하느니라

第五章 戰鬥序列及軍隊區分

第一節 戰鬥序列



第五編 命令及報告

第一章 命令

第一條 通則

高等指揮官의 軍隊統制上에 關한 外下官도 命令은 筆記官을 定規한 바니 又命令의 長官者는 假令口達官이 아니라 授官外 筆記官의 可한 바니 單簡한 事를 命令고 各自의 單一任務를 授官도 例문에 命令은 口達로 明官五或省畧官外 号令詞를 用官의 可한 바니 다

命令을 作官에 當官外 注意官을 要件이 概左와 如함

一 命令은 簡明確功官五且 受令者의 職量에 適應치

日의 不可官니 故三이 是를 製官에 常의 受令者의 位置에 立官外 兩命한 事를 如何케 了解官지 熟思官니 受令者 誤解上 命令者의 誤失로 보더 多生官니 다 二 命令에는 明히 順序를 示官의 可官니 合同命令 兵諸部隊의 動作을 包括한 長命令은 毋數一三三等一을 附官外 重要의 事를 先列官五 其事項 同一種의 者는 同一의 番号中에 記入官의 可官니 다

三 命令에는 目的을 達官키에 當官外 受令者가 스스로서 處斷이 能치 吳官 事件이니 且 必順官는 者限官外 記載官의 可官니 下級指揮官의 職權內에 干

涉을 일은 避을 要하느니라

四 實施不能치 못하든 事는 決코 命令으로 卹規定함이  
不可하느니라

五 臆測과 企望其他 遠호 將來의 狀況을 豫想함이  
호 條件은 命令中에 加함이 不可하느니라 何故호 然일  
現況이 此에 反호 尙호 信任을 圖케 하리니 又 命令  
의 理由는 矣코 擧示함이 不可하느니라 命令의 制來依이 得  
宜호 其理由는 是호 判然함이 可하느니라

此外호 尙호 命令用 語等에 關호 條件은 要務令 通信  
通則의 讓호 하느니라

凡 曖昧호 命令은 誤解를 招호 야 嚴確치 안코 命  
令은 動호 其人的 威權을 失호 하느니라 然일 命令을  
下호 其 實치 못호 야 屢호 命令을 變更호 且 特  
이 無益호 軍隊를 勞動호 且 軍隊의 志氣  
를 沮喪호 且 長호 命令은 人의 常에 其要領을  
得호 苦호 且 簡單에 過호 其意를 盡치 못호  
且 又 命令이 其部下 職權에 干涉호 其動作을 箱  
束호 且 自奮의 志를 挫호 야 放任에 過호 或  
其目的을 誤호 하느니라 命令은 下호 困難이 비록 平  
時호 尙然호 且 戰時使 德의 際호 命

令者되者고 以當이 注意함이 可하니라

第二條 命令의 種類

戰時所用의 命令은 分하야 二種이 되니 曰作戰命令 曰日  
日命令 이是라 此他호치러 訓令호는 者잇付 命令의  
範圍에 屬하니라

第一款 作戰命令

此命令은 作戰에 關한 命令이니 團隊의 稱호를 冠  
하야 其師團命令 某旅團命令 等과 如함 或 軍團  
區分을 成호는 部隊의 名稱을 冠호는 前衛命令  
枝隊命令 等과 如함 又 某令의 月日時刻 午前

午後 何時 何處 及 某地 某團隊 又 某部 命令에  
下의 註記 言語를 常이 附하느니라

凡 軍隊上 作戰命令에 由호야 動作하느니라 其命令은  
概左의 條項을 逐次로 含有호는 者니라

一 敵狀 但 受令者의 緊要호는 者별이 니라

二 我軍 目的의 大要 是受令者가 一般의 目的은  
了知호야 協同하야 此目的을 達호에 努力호는  
을 得호느니라

次에 軍隊 區分에 由호야 外호조로 各部隊의 任務  
를 示호느니라 假令 前進行의 其目的이 如하느니라

三 搜索騎兵에 關한 規定

四 前衛에 關한 規定

五 側衛 又 側枝隊에 關한 規定 ○ 但其 設이 以는 所

六 本隊에 關한 規定

七 大行李에 關한 規定

八 輜重梯隊에 關한 規定 ○ 但 軍隊에 關한 外에 必要한 事項은 別이 나라

九 運動發起에 當한 外에 發令者의 所在地

此外 發令者는 命令詞의 終이 署名名호의 可호 나라

戰鬪及 駐軍에 對한 外에 命令은 概此式에 準호 나라 其詳

細는 第二 第三卷의 說을 바가 잇나 나라

軍隊區分은 命令詞外 判然 區別한 外에 記載호는 四 卦 半紙 等

을 用호는 境遇에 依호는 中央에 一 橫欄을 劃호는 上欄의 軍隊

區分 下欄에 命令詞을 記載호는 可호는 通覽에 便利호는

의 可호는 日 達命令에 依호는 軍隊區分에 由호는 外에 成호는 各部

隊의 任務를 示호는 可호는 勿호는 列(敵狀及 我目的의 次에 軍

隊區分을 述호는 可호는 勿호는 列

小 司令部에 對한 軍隊區分을 特示치 안호는 假令 某隊은

前衛에 任호는 可호는 騎兵 何騎를 付호는 可호는 命令호는 簡

易호는 可호는 勿호는 列



長의 意見은 卽州 事를 處斷케 함이 可할 時는 必其  
連言 目的 及 連言 例 適當을 手段을 教示 方는 勿 過치  
吳方나 比 等의 教示는 亦 一 種의 訓令 이니라

訓令 된 者는 命令에 比 方면 確定의 度가 少하나 何故호 訓  
令 實行 方을 定호고 又 訓令 中의 條件을 實際 取捨  
함은 受令 者의 權內에 在호는 者가 多하나니라

### 第二章 報告 一 並通報

通報는 高等 司令 部로 三 方는 通知外 其外 近隣 各司令  
部 又 各官 等으로 互相 實驗 實情 況을 通告호는  
等을 謂호는 이니라

報告는 一 任務를 有호는 者로 보되 援任 者 又 報告 者의 関  
係 在호는 上官의 其 知를 要호는 事項을 申報호는 謂  
호는 이니라

報告는 亦 通常 筆記호는 者나 오리라 命令에서 如 引 簡  
約하나 趣旨 明瞭호는 緊要 外 用語 等은 要務  
令 通信 通則에 捷호는 通常 左에 記호는 三 件의 要旨를 備  
호는 者나니라

一 彼 我의 関호는 過去 現在의 狀況

二 報告 者의 將 施 五 列호는 處置

時期에 後호는 이 업시 確正의 報告를 送達호는 作戰上

最緊要한 術됨으로써 其習練을 忽케함이 不可하  
니라

報告其趣意의 事實에 違치아 남을 主要하느니라 粗忽  
又無根의 報告은 軍機를 誤言으로 大罪라 凡報告者는  
스스로 擊件外他人으로 보더 傳聞한 件外 臆測에  
出한 件을 明白히 區別하고 意見을 附하야 傳達함이  
可하니라

一定의 時間中 形勢의 變化가 업고 或其地方에 아 吾敵  
兵을 見치 못하노 等事도 만다 시 報告치아 남이 不  
可하니라 蓋此等의 事亦 指揮官에 서는 性日 緊要

한 關係가 있느니라

凡報告에 是報告者의 名을 署하야 并 差違의 地名  
時刻을 記載함을 要하느니라 凡 缺한 處는 其報  
告에 受領者의 거흔히 無効하느니라

報告用紙及 封筒은 定或 要務令에 是함은 宜하느니라  
用하느니라 然이나 만일 是는 且 時機가 急을 境  
遇에서 手冊의 紙片等을 用함은 宜하느니라

第三章 命令及報告의 傳達

命令及報告는 距離의 遠近과 其他의 景況을 從하  
야 雷信及 筆記 或 口演으로 卽 傳達하느니라 傳時間

에餘裕가업든지或不得云云境遇가아닌外는既說함이  
치筆記가아傳達함을定規가아니라

口演으로卽命令及報告를傳達케호는時上傳令使로出業  
前後誦케함을要가아니傳令使에는輕重에由가아單行  
의將校或下士卒을用가아는途次危險의虞가아있스면  
若干의護衛兵을附가아고又緊要호는命令或報告는時  
宜에因가아는二三通製호고數道로호는計數使로호는  
吾傳達가아는但其發送의個數호는書中記載함이不可  
가아는上敵의저奪함이되야호는其二三通됨을知치吳거  
함이니라

命令反報告書를敵의저奪取케가호는此호는破壞又  
又燒燬케함으로卽미리傳達者의저書中の趣旨를  
說明가아는함이可다가아니라

命令傳達의途中에서形勢가變遷가아는其齋호는卽命  
令의임의機를失가아는實行에不利호는云云覺知가아는  
上受令者의저對가아는其當時의形勢를陳述함을  
要가아는니라

報告는往來途中에서他の司令部等에知케함이適當  
가아는如此호는境遇에서호는卽上傳達者에對諭示함이  
可다가아니라





戰術學教程卷之二

目錄

第七編 搜索勤務

第一章 總論

第一節 行軍中搜索勤務

第二節 駐軍中搜索勤務

第三節 威力搜索

第四節 搜索中間接手段(搜索補助術)

第二章 斥候

第八編 警戒勤務

第一章 總論

第二章 行軍警戒

第一節 通則

第二節 前進行警戒勤務

第三節 側敵行外警戒勤務

第四節 退却行外警戒勤務

第五節 側枝隊

第三章 駐軍警戒(前哨)

第一節 前哨中通則

第二節 混成前哨

第三節 獨立步兵の前哨

第四節 獨立騎兵の前哨

第九編 行軍

第一章 總論

第二章 行軍の速度と関する素質

第一節 諸兵種行進の速度

第二節 休止

第三節 道路

第四節 天候

第五節 志氣及体力

第六節 縱隊の大小

第七節 行軍軍紀

第八節 出發の準備

第九節 出發の時刻

第十節 集合

第三章 各兵種の行軍隊形

第一節 通則

第二節 行軍序列

第四章 行軍の種類

第五章 鐵道輸送

第六章 船隻輸送

第一節 敵留之地域上陸

第二節 敵留之地域上陸(敵前上陸)

第十編 駐軍

第一章 要領

第二章 舍營

第一節 舍營の種類

第二節 宿營命令

第三節 舍營の勤務負

第四節 舍營の設備

第五節 警急集合場

第六節 警報

第三章 露營

第一節 露營の設備

第二節 露營の勤務負

第三節 警報及出隊

第四章 村落露營

戰術學教程卷之二

第七編 搜索勤務

第一章 總論

凡敵狀을得을지니는廣遠히搜索을지니是搜索勤務의  
專히騎兵의게任을바나라

敵이遠隔을時는騎兵은獨로搜索을任을지니이搜  
索騎兵이라補을

敵이漸々近接을기어至을야는通常騎兵은警戒隊의  
屬을야搜索을任을지니然則行軍에在을야는前衛騎  
兵이호駐軍에는前哨騎兵이라을지니라

此外搜索의爲을야는候을用을고搜索의目的을依을  
非威力을用을고又搜索의間接手段을用을지니라  
搜索勤務는行軍駐軍에의稍々其趣를畢게을지니故  
로以下節를分說을고며은前項의候學事에及지不  
을지니라

第一節 行軍의搜索勤

騎兵의任務○搜索騎兵은縱隊指揮官直轄에屬을고  
獨立을야는速히縱隊前方에進을지니其任務는敵情  
搜索을야는狀況을審게을고且同時는我軍의運動  
을掩蔽을지니在을지니蓋騎兵은廣遠의地를搜索

言으로進退動作이常의不羈自在言니不羈自在  
 의度는後續部隊에拘繫지言는事가得음을應言  
 言야増進言는者니是는其獨立事에從言을要言  
 以다又縱隊指揮官은此騎兵으로대그耳目이되고이  
 로모더得言야報告를查數言야우리任務及全隊의  
 動作을스스로判斷치아남이不可言니是는騎兵은  
 直轄言을要言는可이라然이나彼我が漸近言야前  
 方에行進言는騎兵이戰端을開言고前衛을誘引  
 言야戰鬪를交言又言境遇에는形勢가前과異言  
 言로州搜索다前衛開戰의合一을失치아남이緊

要言니라故로如此時機에는行軍中騎兵의大部를  
 前衛와後衛司令官의指揮에屬言야前衛騎兵  
 과後衛騎兵이되어搜索에任케아남이不可言  
 其勤務의原則에는敵軍이遠隔言時와異치안  
 코호우其動作의範圍가稍小言先이니라

騎兵의區分○以上의要言에從言야形勢가이를許  
 言면騎兵은四州其大部를擧言야搜索騎兵  
 이됨을要言야其區分又言은時機와地形에從言  
 야騎兵隊長의自決言者이니此를一定言을得지  
 及言나道常境遇에는騎兵隊는道常其兵力의三

分乃至四分一을 출군이 前衛가 되고 前衛는 其三分  
一乃至四分一을 출군이 前衛의 뒤고 이므로 又 尖兵을  
출군이니 만일 搜索騎兵의 兵力이 一中隊에 過치 不  
할時는 通常 前衛만 設고 이므로 又 尖兵을 출  
군이니 (釋) 此外 騎兵隊의 大小를 問치 말고 各 梯隊  
로 分히 必要의 應을 作 斥候 又 部隊를 側方에 出  
는 者니라

搜索面○此幅員은 地形과 道路의 關係 其他 我 騎兵의  
衆寡와 縱隊의 大小等에 從군이 異故로 一定을  
을 得지 못하나 搜索騎兵은 其 掩護를 縱隊의

前方에 하나 右側을 危險한 地方을 搜索함은 不變  
의 原則이 나라

遂隔의 度○搜索騎兵의 本 縱隊로 分히 遂隔을 距離 又  
高도 伍高 一定치 不하나 縱隊 指揮官이 命令에 從하  
는 敵狀을 探知코 且 行은 止히 遂隔 搜索의 必要를  
는 故로 情況이 此을 許하면 其 距離 數日 行程을  
隔은 גיע 至하나 騎兵 前衛에 屬은 時止 決  
五 背後의 步兵隊外 連絡을 失함은 不可하나 跟  
隨은 步兵과 一定의 離距를 終始 保持함은 是는 敵  
의 要치아 일 變치어 實로 成함이 難한 일이라

何故오오나騎兵은常歩로行進호야도步兵과漸  
 二遠隔호은必然호이니만일強히步度を短縮호  
 져호면크게馬匹을瘦勞호야騎兵의性能을害호  
 호니故로騎兵은常歩로交호는되速歩로써호  
 其速隔의度는後續步兵과連絡을失치안호는되  
 在호나타

敵兵이愈近호야前衛多數外騎兵이임의前方에  
 져其能力을逞호餘地가無호기에至호야는騎兵  
 은所要의兵員만안호고其餘호將來의動作에適  
 當호位置

(我軍의側面을掩護호는故로騎兵은搜索에  
 或威脅호고且戰鬪時에加호는位置에

이右을要호이라

敵騎外遭遇○凡騎兵이寡弱호敵騎에遭遇호면  
 躊躇치말호驅逐호야陸續前進호可호나彼가  
 騎幕이強堅호時호迂回호든지潛入호되도특  
 手段을다호야搜索을持續호고步兵에來緩호기  
 를俟호可호나그來着호기前或敵騎의驅逐호  
 바가되든지敵의步兵의制壓호바가되면漸次退  
 却호야드디어本縱隊에近호기에至호면在後兵  
 의正面을開호可호나退却中이나호면得호敵  
 軍에接觸은決크이를絶치안호終是敵에注意호

고오하려서所要의狀報를求호는일이肝要호나라  
又敵과衝突호後騎兵의專心努力함이可호은敵  
의後續部隊의兵種及兵力을偵知호는데잇는諜의  
오戰鬪호인을忘호은不可호나라

### 第二節 駐軍의搜索勤務

行軍間獨立호야搜索의事에從호는마騎兵은駐軍에  
도通常前衛外遠隔호야依然이獨立宿營호나  
其他의境遇에호通常前哨步兵과前哨를混成호  
호故로駐軍의搜索勤務호前哨의條에說述호되  
호나라

### 第三節 威力搜索

尋常의手段호도호敵狀을搜索함이能치吳호時호  
不得已強大호步兵部隊外且砲兵과有時로騎兵  
을附加호야攻擊(威力搜索)을行호는此種의搜索  
隊호아모조尋潛行호야敵의附近接호고그敵眼  
에觸호기에至호야호神速히果敢히攻擊호는지  
或호는砲擊호야敵의兵力을散露케호을힘씀이  
可호나더거戰鬪호其本旨에잇지아임호도搜索  
의目的이임의達호면嗣後의目的을從호야速히  
戰鬪을脫호고或本戰에從事호을要호나라





서로 오히려 그 간諜된 일을察知케 못함을要하  
나니라

間諜을使用하느니라當하야其間諜된일을우의左  
右人도知치 못하게함이肝要하고又間諜을待하  
야는内心에戒慎을加하고外面은溫和態篤케하  
야彼の歡心을失치안케注意함이可하니口로暴  
戒로써間諜에對함은그면効가絶無하고且도  
더有害하니라

第二條 俘虜外降來人及戰場遺棄의傷者

此等人을尋問하느니라彼其言을偽치하니면威

嚴모함을아리寬溫之도써待함이可하니尋問者  
가만일敵地言語에通하면問答은스스도談話로  
變하야話中要件을探知하기로至하고又尋問하  
는事件은被尋問者의貴賤及智愚로從하야不一하  
나되키左外如하니라

所屬部隊外其部隊에繫連하는他에部隊外高等司  
令官의姓名과前夜의宿營과行軍狀態와將來의  
運動에就直命令과戒風評과彈藥과糧食의多寡  
外志氣의盛衰와給養의饒否와病傷者의衆寡等  
이是以但其應答의信偽를明察함이極히肝要하

니라

此等人을尋問하느니라其手에落호當時에可  
하느니라그런고하느니라當初止彼가心志만히狼狽  
하야自守에未遑호이니被尋問者도그秘호야言  
호쳐아니호事호陳述호호은實호尋問者가其人  
의伎倆에存호니라

第七條

住民及旅客

住民及旅客에尋問호條件호伍호州前條外相同  
호니라

住民에在호야호吏員外教員外僧侶外鄕導外或數

의例호某事에從호고又人質된者를選호야尋問  
호호可호고호有時호兒童호의容易호要件을得호  
호이니호何故호兒童호은言호爲歸지안호其實  
를吐호호니라

旅客에호호其職業及其來路를尋問호호適切호  
訊問호호可호호니라

住民及旅客의狀報호確實호호나호者호多호호니兵  
數호호호호實數호호만호言호호호니米國將

호호호四住民及旅客호數에兵數를實호四倍  
乃至六倍호言호호은余의經驗호徵호호保證호호호

바라거나라

第四條 書類

戰時住民地에 入寇하 隊長은 其地의 新聞紙(附錄 第三卷 Memo)에 向空獨軍(軍)并 郵便電信局及 公私 郵便函에 在空信書其他 公廳의 諸書類를 奪取함이 可하거나 是을 因함이 精確히 敵狀을 得거나 是의 往來以合이나라

第五條 諸種의 徵候

徵候에 因함이 敵의 企圖動靜을 推測察知함을 得거나 其例가 左와 如하거나라

敵의 住民이 不遜하고 我住民의 恐怖함을 다 敵兵이 其附近에 在거나 又 敵兵의 衆多의 徵이 多거나라

塵烟의 方向과 濃淡及 高低는 兵種及 行進方向을 察知하기에 足하거나 又 塵烟의 濃密하고 且 低함은 步兵의 徵이오 其 淡薄하고 且 高함은 騎兵의 徵이오 코코 장稠密하고 且 間斷함은 砲兵의 徵이나라 敵營에서 炊烟疎密과 燎火의 光輝及其 負數는 例敵狀을 察知하거나 是 徵候라 然거나 敵兵其 退軍을 秘區에 함을 爲거나 是 是 燎火를 盛케거나 捨棄

火)等事이決코이에詭騎케말지니라

車輛의轟聲과馬匹의嘶聲及狗犬의連吠는此軍  
隊가通過호는徵이니라

人跡外蹄跡과轍痕은敵軍의兵力과編組及行進方  
向을概知케호이니是호는爲호야敵軍의靴底及蹄  
鐵의種類外轍間의廣狹을預知호는此이肝要호  
니라

其他水濱에渡水材料를聚호는渡過의徵이호도  
路를破壞호는其前進의意를徵이니敵兵이詰  
旦호부터米攻호면其舉가全軍에互호호其夕호

로부터호는時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가退軍을秘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나맛당이事에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호注意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 第二章 斥候

凡斥候는敵狀을搜索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의要需의應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터涉遠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斥候는伍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兵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查諸件을知호야卽搜索에從事호이卽要호니라  
 該程亦候長은部下搜索호任務를明示호을聚要  
 타호너기其他行進方向을指示호고且集合點을  
 豫定호야동을要호이잇니라

凡斥候는아모조부衆目에觸지안호且危險을預  
 防호는예문에其行進과休止호大호往民地에서  
 아나호開濶호原野에서호이可호너斥候가만일  
 晝夜連續호야泳道호는時호路外의掩蔽物에據  
 호야徹夜호고其人員이警戒兵을出호이足지못  
 호時호各人이다鞭을取호야警戒함이可호니라

## □ 譯者紹介

### 學歷 및 經歷

서울中·高等學校 卒業(10회)  
陸軍士官學校 卒業(19기)  
東國大學校 經營大學院 修了  
國防軍史研究所 責任研究員 歷任

### 主要 論著

韓國戰爭, 休戰史(국방부 전사면찬위원회, 1989)  
韓國戰爭戰鬪史, 白石山戰鬪(국방부 전사면찬위원회, 1990)  
韓國戰爭戰鬪史, 蘆田坪戰鬪(국방군사연구소, 1992)  
韓國戰爭被害統計集(국방군사연구소, 1996)  
大韓帝國軍事教範集, 步兵操典(국방군사연구소, 1998)  
6·25戰爭의 休戰協商과 그 教訓(「國防」7, 8월호, 1990)  
韓國戰爭 休戰의 歷史의 再照明(「軍史」제26호, 1993)

## 戰術學教程(上) 大韓帝國軍事教範集Ⅱ

1999年 9月 1日 印刷

1999年 9月 4日 發行

서울特別市 龍山區 龍山洞1街 8番地  
發行處 國防軍史研究所  
發行人 朴 淳 贊  
印刷處 ㅅㅇㅅㅇㅅㅇㅅㅇㅅㅇ

〈非賣品〉

본 저작물의 복제, 복사 또는 인용시에  
국방군사연구소장의 승인을 득할 것